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세세생생 줄지 않는
내 안의 보물 찾자"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7일) · 주간

제1016호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깊은 물은 소리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찬 항아리고
지혜로운 이는 가득 찬 연못과 같다.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 교회서 한다고?

서울 7개구서 교회 활용 단체접종… '교회 투표소' 재현

서울시 일부 구청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교회 시설을 활용해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 편의가 아닌 행정 편의대로 장소를 배정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0월 중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서울 25개구의 독감 무료 접종처를 조사한 결과 7개 구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해 출장 단체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투표소' 의 악몽이 의료 복지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접종처로 교회 시설을 활용한 곳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구로구로 총 5곳의 교회에서 출장 단체 접종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강서구, 도봉구는 2곳서 서대문구와 관악구는 1곳의 교회에서 출장 단체접종이 이뤄졌다.

반면, 다른 18개구는 바우처를 활용해 가까운 병 · 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구청 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단체접종은 2차 감염과 응급상황을 우려해 정부에서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단체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접종 기관에 상관없이 간이 접종실에서 이뤄지는 단체 예방접종은 안전 접종을 위해 억제한다' 고 명시했다.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출장단체접종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출장단체접종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10월 15일 감사원에 개선 요청 민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상에는 출장단체접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행정을 일부 지자체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민간 의료기관에 수탁을 할 경우 접종 수수료를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북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접종 공고를 하기 전에 먼저 동주민센터에게 주민편의를 위한 접종처를 문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심의해 결정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고, 보건소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접종을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지난해 민원을 제기한 동대문구 보건소도 주민 편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동대문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회신 공문에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단체 예방 접종이 불가피한 선택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시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곳도 상당수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은 충신교회에서 접종이 진행됐으나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들어서 있다. 성북구 정릉 4동의 경우 벧엘교회와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는 도보로 3분 거리이다. 실제 중랑구와 강북구, 은평구 등은 출장단체접종처가 대부분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병태 종자연 사무국장은 "'종교 자유와 복지 행정이 무슨 상관이냐' 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종교 인권과 관련해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련의 교육이 '공염불' 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기사 3면〉

〈표〉 인플루엔자 출장단체접종 이용 교회

지역	해당 교회
강서구	배광교회(등촌2동), 화성교회(화곡본동) **총2곳**
구로구	베다니교회(구로3동), 평화교회(고척2동), 개봉교회(개봉2동), 서남교회(수궁동), 성락교회(신도림동) **총5곳**
관악구	명문교회(신림4동) **총1곳**
동대문구	청량리성결교회(청량리동), 롯교회(회기동), 나사렛교회(전농1동), 경신 교회(답십리1동), 장안교회(장안2동) **총5곳**
도봉구	도봉감리교회(도봉 1동), 염광교회(창1동) **총2곳**
성북구	벧엘교회(정릉 3,4동), 사랑제일교회(장위2동), 신생중앙교회(석관동), 영암교회(돈암1동), 장위중앙교회(장위1동) **총5곳**
서대문구	충신교회(북가좌2동) **총1곳**

성북구 · 동대문구 · 구로구가 교회 5곳 이용, 가장 빈번

응급상황 · 2차 감염 이유로 정부도 단체접종 삼가 권고

서울醫會, 시정 요구 제기해 종자연도 지난해 개선 요청

지자체 "예산 부족해서" 해명 요청받고도 '모르쇠' 일관해



무로마치시대 아시카가 쇼군이 소장했던 수월관음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공개됐다.

14세기 고려 불화, 日서 발견

700년 만에 발견… '용왕 공양 모습' 에 학계 주목

7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1점이 일본에서 공개됐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일본 도쿄 미쓰이(三井) 기념미술관이 무로마치막부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1436~1490)의 가보를 소개하는 '히가시야마(東山) 보물의 미(美)' 특별전에서 세로 160.2㎝, 가로 86.0㎝인 수월관음도를 소개했다고 10월 20일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려불화는 700년 동안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최상급에 속한다. 세로 160.2cm, 가로 86.0cm 크기로 보존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선재동자가 아닌 용왕이 공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아시카가 소장품이란 점에서 이미 이 불화가 최고급 명품으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불화는 세계적으로 160여 점, 한국에는 10여 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수월관음도' 는 전세계에 약 40점만이 남아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닌다. 노덕현 기자

"도난 당한 성보문화재 불교·정부가 찾겠다"

조계종, 문화재청·경찰청과 도난예방 및 회수 협조 협약

지난 5월 말 조계종 문화부 A주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시 진행되는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을 위해 인사동의 한 경매업체의 도록을 살펴보던 중 도난품으로 보이는 성보문화재들이 대거 물품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문화부 스님들과 직원들은 경매 현장을 급히 찾았다. 경매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물론 신고를 접수한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문화재청 직원들과 함께였다. 당시 도난품으로 확인된 4점이 압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0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추가 조사로 사상 최대인 48점의 불교문화재를 회수한 성과를 낸 데 이어, 회수과정에서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경찰, 문화재청이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와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조계종과 경찰청, 문화재청은 협약을 맺고 불교문화재 도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수사과정 협조 등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총무원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강신명 경찰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3개 기관 대표와 정갑윤 국회 부의장 등 정부관계자, 48점 문화재의 원소장처인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잃어버린 불교문화재 회수와 예방에 뜻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해 회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자리를 통해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에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각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전 예방과 회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전국 사찰의 소장문화재를 일제조사한 〈한국의 사찰문화재〉 발간 이후 도난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해서 기관간 협조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는 회수된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전이 열렸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2면〉

'수행연금' 폐지… 대상 확대로 전환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급 대상과 방법, 실효성 등의 문제로 지급이 연기됐던 조계종의 수행연금이 폐지된다. 대신 승려복지 대상을 전체 스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행연금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폐지 절차를 밟아 공약은 허언이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3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소득, 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의 수행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 복지 확대를 위해 승려복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수행연금에 해당되는 제10조(수행연금)부터 제16조(비용부담)까지를 전부 삭제했다.

대신 조계종 총무원은 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승려복지 정책을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 로 대폭 확대했으며, 스님들의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종단에 승려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 를 두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승려복지실행위원회' 를 구성토록 했으며, 승려복지회를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로 이관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1016호 INDEX

시방세계 5
숭산 스님 열반 10주년 세계일화 대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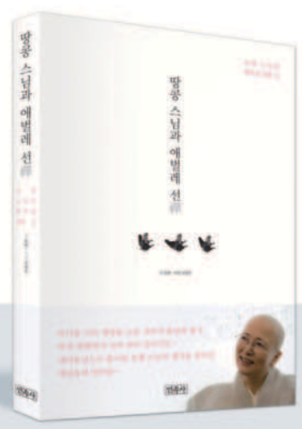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 3·31
오강남 교수 불교평론 논단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

80년대 최고의 스타 이정미, 생방송 도중 사라져 홀연히 출가, 힐링 멘토로 우리 곁에 돌아온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禪 이야기!

운동선수는 시합 긴장증후군, 탤런트는 연기 긴장증후군, 가수는 공연 긴장증후군 등등. 긴장증후군은 다 불안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꿰뚫고 알아차리면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 선을 하면 이러한 불안을 줄이고 없앨 수 있으며 보너스를 받았다는 고마운 느낌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禪

■글 보현 | 사진 강명주
변형신국판 칼라 | 값 13,800원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어 날아가듯…
대자유인으로 돌아온 보현 스님의
말과 생각을 넘어선 깨달음의 언어들이 눈부시다.

수행이 빚은 촌철살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주고,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현대인들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자기 안에 본래 간직한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내어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비결, 행복한 생활 선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열어준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재가 여성 불자가 설한 유일한 경전 승만경을 비구니 최초로 풀이한 일진 스님의 승만경 해설서!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勝鬘經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회주 명성비로 스님 추천사 중에서



■일진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Tel. 02)732-2403~4 민족사

무차대회 약속 지킨 아름다운 만남

자승 스님, 20일 노들장애인야학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장애인 교육기관인 서울 노들장애인야학과 약속을 지켰다.

자승 스님은 10월 20일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해 박경석 노들야학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은 지난 9월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초청 무차대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무차대회 당시 총무원장 스님은 박경석 노들야학 대표에게 학교 방문을 약속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무차대회에서 노들야학 음악팀의 공연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당시 박경석 대표님께 야학방문을 약속했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노들야학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매월 조계사를 통해 쌀 1가마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자비나눔 기금 500만원을 학교 운영기금으로 지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0일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 조계종 총무원

진각종 내년도 예산 166억 400만원

22일 종의회서 확정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2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관에서 제391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으로 총 166억 400만원을 확정했다.

세부 예산안으로는 통리원 139억 4000만원, 교육원 7억 5000만원이다. 포교 및 문화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으며, 각종 행사 및 부서운영비가 감소했다. 교육원 예산은 예년과 동일하다.

한편, 종의회는 법경 정사의 교육원 교무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종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종의회 의원으로 원명 정사(대명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출했다.

이날 종의회는 12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진각종 유지재단 이사 법정, 경당, 회성 정사를 유임키로 결의했으며 회당학원 이사로 유가심인당 주교 덕운 정사와 명륜심인당 주교 효명 정사를 복수추천했다. 노덕현 기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태고종 20일 수계산림 회향

태고종 제3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회향법회가 10월 20일 태고총림 선암사 만세루서 혜초 종정예하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거행했다.

이날 수계산림 법회에서 사미 31명 사미니 9명 등 총 40명이 태고종 새 스님으로 태어났다. 이날 전계아사리 도산 스님(총무원장), 교수아사리 지홍 스님(중앙종회의장 수석부의장), 갈마아사리에 설운 스님(정수원 원장)을 삼화상으로, 호법부원장 상묵 스님, 중앙포교원장 지현 스님, 고시위원회 위원장 동우 스님, 총무원 부원장 호명 스님,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등을 7증사로 모신 가운데 열렸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받은 수행자는 큰스님이 되겠다는 대 원력을 갖고 탐 진 치를 끊고, 생각 생각에 보리심을 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출가자로서 일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했다. 김주일 기자

도난 문화재, 선의취득·공소시효 없애야

[해설] 도난 문화재 매매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48점을 개인수장고 등에 은닉해온 사립박물관장 권모씨(73)와 이를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정모씨(55) 등 1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48점의 존재는 피의자 권 씨가 지난 5월 마이아트옥션에 도난품인 문화재 경매를 의뢰하며 그 존재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관련 제도의 허점을 보여준다.

낮은 시효때문에 처벌 회피

피의자 권 씨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총 4억 4,800만원에 매입 후 박물관 내 수장고에 은닉했다가 채무문제로 일부를 지난 5월 경매에 내놓았다. 불화들은 피해 장소를 비롯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화기(畵記)가 오리거나, 덧칠하고, 심지어 조각조각 나뉘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불교문화재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월 29일 문화재청 단속반 및 서울시 광역수사대와 협력해 이를 밝혀냈다.

그렇다면 권 관장은 왜 경매에 도난 문화재를 내놨을까? 가장큰 이유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단 점이다. 이번에 회수된 불교문화재는 1988년부터 2014년 사이에 도난당한 것으로 장물 취득 · 알선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모두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적발이 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

문화재 은닉 시효 7년에 불과
시효 끝나면 시장 나와 매매
경매 경우 선의취득도 유효해
문화재 매매 허가제가 대안

장보은 광역수사대 팀장은 ""문화재는 오래될 수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보통 공소시효 이후에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 관련 범죄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난품 매매 '모르쇠'면 해결

이와 함께 도난문화재를 모르고 살 경우 선의취득 조항이 유효한 점도 도난문화재의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보호법 상 도난문화재의 일반적인 매매는 선의취득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때문에 장물 소지자가 의도적으로 경매에 출품해 위장낙찰자를 내세워 장물을 세탁하기도 한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도난문화재는 지자체의 매매허가제를 도입해 도난품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 무효 및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문화재 매매 시 년 1회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 않더라도 확인방법이 없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제시대 이후 도난당한 것으로 기록된 불교문화재는 총 796점으로 그동안 회수한 문화재는 181점에 불과하다. 강력한 도난문화재 근절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문화재 도난이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은 도난백서를 새롭게 펴낼 계획이며 경찰은 도난문화재를 자진 신고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불법 문화재 자진신고제' 운영을 검토중에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은 10월 22일 도난문화재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문화재 도난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장 형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난 문화재 선의취득 예외 조항과 공소시효 확대 및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시 총회 열자" VS "절대 못 연다"

전국비구니회 · 열린모임 23일 만남… 합의점 못 찾아

종회의원 적법 선출 주장에
총회 통한 논의로 맞서 '설전'
비구니회 내홍 장기화 전망

최근 내홍을 겪는 전국비구니회와 열린비구니회의 임원진들이 만나 임시총회 소집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열린비구니회 공동대표 임대 스님 등 9명이 10월 23일 전국비구니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전국비구니회관서 만났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열린비구니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비구니회측에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의 사퇴와 임시총회 소집, 제 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대표 후보추천 무효 등을 전국비구니회에 요구해왔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부회장 무아스님,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 운영위 수석부위원장 혜전 스님, 운영위 부위원장 명준 · 묘주스님, 기획실장 지홍 스님이, 열린비구니모임에서는 공동대표 임대 · 정현스님과 재범스님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명우스님은 "운영위원장 선출과 종회의원 비구니대표 후보추천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비구니모임측 공동대표 임대 스님은 "우리도 비구니회의 회원인 만큼 문제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총회를 통해 좀더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나 내홍은 장기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을 심려하는 교수 · 강사 모임'은 10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린비구니모임'의 주장에 동참했다.

비구니 교수, 강사 스님 34명은 "이미 제10대 비구니회 집행부가 과연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인가에 대해 의식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특히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의 극심한 파행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곤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열린비구니회가 언론지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으며, 열린비구니회측은 전국비구니회 사무국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공식 접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재가이사 김선근 교수 선임

20일 재단 이사회서 결정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10월 20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85회 이사회를 열고 김선근 명예교수〈사진〉를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김선근 신임이사는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동국대 이사회는 2013년 12월 선임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동국대 이사회는 종관위가 추천한 이사 후보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종관위는 재차 후보 재선출을 주문했으며, 동국대는 교육부에 문의해 이사선임 권한이 동국대에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10월 28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2015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노덕현 기자

《열린비구니모임》 지지 성명서

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발족된 우담바라회로부터 시작하여 1985년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개명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전국 비구니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지난 10월 13일 '(가칭)열린비구니모임' 공동대표(혜운, 임대, 정현, 행법스님)가 140여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 의지를 밝히며 제16대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과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후보선출에 대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열린비구니모임의 행보는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에 불만을 품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이번 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의 파행적 모습이 발화가 되었지만, 이미 그동안 제10대 비구니회 집행부(회장 명우스님)가 과연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인가에 대해 의식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특히 운영위원장(계환스님)의 극심한 파행에 대해 걱정의 한목소리를 내곤 하였다.

과연 지금의 전국비구니회는 누구를 위한 비구니회인가!

참으로 우린 통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전국비구니회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는 용기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편 '열린비구니 모임'은 출범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진정한 대승의 행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 교수와 강사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열린비구니모임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둘째〉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속히 소집하라.

〈셋째〉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불기 2558(2014)년 10월 22일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을 심려하는 교수 · 강사 모임〉
본각 능인 대현 명선 명오1 명오2 문성 범견 벽공 서광 선정 성법 수경 여현 오인 원과 원영 은광 일연 일장 일중 자목 정도 정운 제마 지은 지현 철우 해주 행오 형운 혜원 희철 효탄

지능화되는 땅밟기 이어지는 종교편향

종단 대응 기구는 '유명무실'

 # 구미 도리사 주지 묘장 스님은 10월 19일 지인들이 찾아와 사찰을 소개하기 위해 경내지 서대에 올랐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구미 주찬양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서대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당장 교인들을 제지했지만 해당 목사와 신도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발했다.

 # 지난해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시립합창단이 10월 7~11일 열린 '제1회 대구합창제전'에서도 영어로 된 찬송곡을 불러 논란이 됐다. 지역불교계는 "공공행사에 찬송가를 부른 것은 종교편향"이라고 즉각 반발해 대구시장을 방문하고 항의했다. 결국 문제가 된 상임지휘자은 교체됐고, 합창단 단무장은 보직 변경됐다.

올해에도 굵직한 땅밟기 기도, 훼불, 종교편향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 편향과 불교 모독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대형화, 지능화 되지만, 불교계는 해당 단체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정도에만 대응이 그치고 있다. '사후약방문'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종교 편향과 훼불 문제를 다루는 불교계 기구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유일하다. 2005년 설립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011년 자성과쇄신결사가 진행되면서 화쟁위원회 등과 함께 결사추진본부로 편입됐다. 올해 다시 사회부로 이첩됐으나 조직은 많이 망가진 상황이다.

2013년 3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고, 현재까지 위원장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배정돼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종교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때와는 아주 상반되는 상황이다. 운영됐던 종교편향 모니터링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라진지 오래다.

현재 불교계가 종교편향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일부 개신교도들의 보여준 행태는 예후가 좋지 않다. 종평위에 들어온 제보만으로 치밀해진 종교 갈등을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길' 기도하는 땅밟기 기도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치밀해졌다. 지난 7월 4일 부처님의 정각 성지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일부 개신교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충남 예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N교회 C담임목사는 지난해 4월 19일 수덕

땅밟기 · 市 합창단 편향 이어져도
종평위는 '사후약방문' 조치만
위원장 1년째 공석, 직원 1명뿐
모니터링 · 예방정책 개발 '불가능'

사에서 촬영한 자신의 '땅밟기' 사진을 SNS에 개제했다. 목사는 '마태복음 24:14' 와 교회 십자가를 그리고 '수덕사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중들은 주님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쓴 사찰 기와를 들고 있었다.

훼불과 종교 모욕 사례는 더욱 당당해졌다. 서울 관악구 원각사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내건 가로 연등이 훼손됐다. 훼손된 곳 위에는 교회 이름이 담긴 성경 문구 목판까지 올려놓는 대담함까지 보여줬고, 예수재단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노상 전도까지 하기도 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변화되는 종교편향, 훼불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히 종단 대응 기구인 종교평화위원회가 제 궤도에 올라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당장 시급한 조직 정비를 비롯해 종교 갈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교평화법, 증오범죄방지법 등의 국가법 제정을 위한 연구와 시민사회 연대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종교평화위원장이라는 소임의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종회가 개원하게 되면 적임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현재 1명이 종평위 업무 담당하는데 나머지 부서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나눠서 통합 관리하겠다. 업무 상 상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 배현진 기자

"절박한 심정으로 사라지는 것 기록"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 '물 위에 쓴 편지' 일반 공개



사람들이 떠나간 마을에 할머니 네댓 분과 진돗개 한 마리, 그리고 스님이 남았다. 텐트안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 미숫가루 등으로 끼니를 때우던 스님은 일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모래천을 돌아다니느라 까맣게 얼굴이 그을렸다.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내성천, 물위에 쓰는 편지' 시사회에서 만난 지율 스님<사진>이었다.

지난해 개봉됐던 '모래천이야기' 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촬영, 편집은 혼자였다. 홈페이지 3개를 관리하고 글을 쓰고 소송건을 진행하던 중에 완성했다. 텐트안에서는 내성천 동물을 수놓은 조각보를 만들어나갔다.

4대강 개발로 경북 영주시에 영주댐이 들어서자 하류에 위치한 내성천에서는 모래 유입이 중단돼 강물이 말라갔고 축대가 무너졌다. 주변 농지에서는 지하수가 고갈됐다. 내성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록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이번 작품이었다.

다큐멘터리는 '텀블벅' 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116명이 십시일반 기부한 5백 75만원으로 항공촬영과 장비보충을 했다. 작품은 상영요청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상영회를 실시하며 따로 영화관 배급은 하지 않는다.

지율 스님은 이제까지의 작품을 두고 "세상에 진 빚 같은 것"이라고 했다. "주변 괴롭힘으로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떠나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며 그냥 지나쳤을 때 느끼게 될 마음 빚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내성천을 살리기 위해 11월에는 가톨릭과 연계해 강길 걷기와 인간띠 잇기 등도 진행한다. 이와함께 낙동강 도록과 내성천 자료집, 내성천 생태 세밀화 화집도 발간된다.

또한 올해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내성천 회룡포 근처에 4대강 기록관을 세울 계획이다. 이곳에는 내성천과 낙동강의 변화등에 대한 기록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포했던 홍보 동영상 등도 모아둘 예정이다.

스님은 얼마 전 내성천의 친구들과 진행했던 영주댐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단 통보를 접했다. 법원은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대신 내성천의 친구들은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자격을 얻었다. 내성천 1평사기 운동으로 6백평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율 스님은 앞으로 가처분 즉시 항고와 영주댐 중지 및 철거 본안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창경궁 소재 오층석탑 봉은사로 이운해달라"

추진위 발족 및 기원법회

일제에 의해 서울 창경궁에 옮겨진 고려오층석탑의 반환에 봉은사가 나섰다.

봉은사는 10월 24일 경내 법왕루에서 이운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이운추진위 발족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봉은사는 문화재청에 '창경궁 소재 석탑 봉안 의향서' 를 보냈다. 봉은서는 의향서에서 "봉은사에 봉안된 보물 321호 '지정사년재명 고려청동루은향로' 와 함께 고려석탑이 위치한다면 사격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내외 참배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궁릉문화재과 관계자는 "사측에서 고려 유물이 있으니 고려석탑을 내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선례가 된다면 연고없는 곳에서 다른 문화재도 연이어 요청할 것"이라며 "소장처 기록이 없다면 박물관에 우선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이에 대해 "더이상 성보문화재가 궁궐 장식물이나 박물관 전시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먼저 사찰로 이전 후 원소장처가 밝혀지면 다시 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19일 안양 본원에서 전국청년연합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 대구 · 진주 · 제주 · 광명 · 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의 청년회 법우 500여 명과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한 청년회 법사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한마음선원 전국 청년 신도 '한자리에'

10월 19일 본원서 전국청년연합법회 거행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의 청년들이 14년만에 한자리에 모여 대행 스님의 뜻을 새기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19일 안양 본원에서 전국청년연합법회를 개최했다.이날 법회에는 부산 · 대구 · 진주 · 제주 · 광명 · 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의 청년회 법우 500여 명과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한 청년회 법사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행사는 △대행 스님 각령전 헌화 △대행스님 비디오 영상 법문 관람 △청년회 발자취 영상 상영 △대행 스님에 편지 낭독 △본원 청년회 음성공양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오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담선법회를 가졌으며 대행 스님이 생전 주석하던 서산정을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1980년 7월 창립된 이후로 국내 사찰 최대 규모의 청년회 모임으로 발전했다.

특히 매년 봉축일에 열리는 연등회에서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만드는 연등은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기로 유명하다. 청년회는 1998년 연등축제의 연희에서 '용등(龍燈)' 을 첫 시연한 것을 시작으로, 200년 제1회 창작등 경연대회에서 학등(鶴燈)으로 개인 착장득 부문 최우수상을 획득, 이후로 창작등 경연대회에서는 늘 우수한 입상 성적과 연등 축제의 봉축상,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매년 1회 대행 스님을 모시고 전국청년연합법회를 개최해오던 전국청년회는 2000년 이후부터 잠시 모임을 중단했다. 14년 만에 법회를 연 청년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셋 째주 전국청년연합법회를 열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세월호 사건, 종교계 반성 기회로 삼아야"

오강남 교수, 불교평론 논단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종교계는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개인 스스로의 업의 결과로만 보는 표층종교에서 이시대의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10월 열린논단에서의 일갈이다. 오강남 리자이나대 교수<사진>는 10월 23일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 논단에서 종교계의 자성을 강조했다.

오 명예교수는 "지난 4월 중순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한 일이란 겨우 천도재나 추도예배가 고작이었다. 모든 불행을 '신의 뜻' 이라거나 '업보'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명예교수는 "불교계는 무력한 숙명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경제적 불의나 인권유린 같은 사태에 대해 참된 인간성 회복으로 불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명예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층종교로서 종교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명예교수는 "지금의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종교는 표층에 머무르는 종교에 불과하다"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를 찾는 수단이 되는 심층 종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명예교수는 이어 "불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탐진치에 찌든 나를 비우고, 참된 나를 찾는 과정을 걸어야 한다. 기독교적 용어로 본다면 신성 내지는 내 안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불교가 기독교와 손잡고 이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강연요지 31면〉

" 성우상사 거위털 제품의 특징은 가볍고 따뜻하며 땀이 차지않습니다.(거위털 이불, 패드, 베개)
강력한 흡습, 발산, 공기층 형성으로 체온을 33° ±1 유지하고 숙면을 도우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

모든 제품 거위솜털 100% 간편한 세탁(물빨래)/다양한 사이즈(M,L,XL,77,88,99) www.namsungwoo.co.kr


누비 적삼 55만,50만,45만원
누비 바지 55만,50만원


속조끼 230,000원(녹차)
148,000원(일반)
속바지 380,000원


다리토시 45,000원


수면버선 80,000원




후드점퍼 410,000원
480,000원




〈소매 착용시〉 ---> 〈소매탈착시〉
거위털 점퍼 (지퍼 타입) 320,000원


조끼 180,000원


복대 50,000원


목워머 16,000원


저고리 500,000원
450,000원
350,000원


목도리 28,000 / 50,000원

· 방수, 흡습, 발산 제품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 상의 180,000원
바람막이 하의 110,000원


팔토시 20,000원(방수)
공양실 앞치마 32,000원


공양 앞치마 20,000원


귀마개 펼친모습(큰사진)
귀마개 안으로 접은모습
모자 95,000원(생활방수)
(모자 사이즈 조절가능)


휴대용이불 가격,색상,사이즈 다양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B1 22호
대표 02)2679-2848
010-3707-7016

일 주 문



108산사순례기도회 8주년 법회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은 10월 23~25일 3일간 서울 도안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대법회'를 개최했다.



만만한 뉴스 거제 전시

만만한 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10월 25일 거제불교회관에서 '만만한 원정단 찾아가는 갤러리' 전시를 열었다.



열린선원 초청 강연 개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10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열린선원에서 밥이삭손 동물을위한 진리의소리 대표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카티나 치와라다나 법회

스리랑카 이주민 쉼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은 10월 26일 양주 마하보디사에서 카티나 치와라다나(가사 공양) 법회를 개최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제 2회 회원의날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10월 27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 제2회 회원의날 행사를 열었다.



2014불교사회적경제 포럼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초대회장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10월 18일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붓다 석가모니' 시사회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붓다 석가모니' 시사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특강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붓다의 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 뇌과학, 불교를 만나다'를 주제로 초청특강을 연다.



서울국제아트페어 개인전

정경연 홍익대 교수는 11월 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2014서울국제아트페어에서 전경연 부스 개인전을 연다.

"청년불자 대표단체 위상 높일 것"

재선된 전준호 대불청 회장

"대불청 80여개 지부가 각 지역 사업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불청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수탁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법명 석천 · 49)〈사진〉이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준호 회장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3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재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전준호 회장은 △신행과 사업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대불청 공신력 확보 위한 브랜드사업 구축 △100주년 맞은 대불청의 기반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회장은 가장 먼저 지회에 활용가능한 각종 사업 개발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지회를 발굴해 창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 회장의 지난 임기동안 대불청은 문화재청 폐사지 지킴이 사업을 통해 11개 지회서 13개 폐사지를 관리 한 바 있다.

전 회장은 "현재 80개 지회로 30개 지회를 추가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하겠다"며 "2



브랜드사업으로 지회 활성화

컨설팅 전문위원 및 사업단

100주년 · 통일문제에도 앞장

년 동안 진행해 온 다양한 콘텐츠 사업과 함께 각 지구 · 지회 조직활성화가 과제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제도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전 회장은 "청소년을 위한 인성개발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관련 사업, 등 청년불자로서 해나가야 할 분야는 무궁무진 하다"며 "새로운 불교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인 참교육문화사업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대불청 100주년을 앞둔 준비과정도 진행한다. 전 회장은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미리 사업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며 "불청선배 찾기를 지속 추진하고 브랜드 사업을 통한 후원금을 연간 1000만원씩 모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불청은 북측 청년불자들과도 교류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 회장은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해 북측불교청년단체를 매년 개최하는 전국불교청년대회에 초청하기로 했다"며 "통일을 위한 기초사업인 남북교류에도 불자청년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청은 이날 임시회의에 이어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2020년 창립 100주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다름도 아름다운 '똘레랑스'를 전하다

향적 스님, 23일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 봉정식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1989년 홀홀단신 프랑스로 떠났다. 낯선 이국 땅에서 한국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 1년여 수행을 한다. 이후 종단 소임을 보면서 틈틈이 수행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해 지난 2009년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을 내놨다. 종교 본질과 화합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이 5년 만에 프랑스어판으로 출간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향적 스님의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프랑스어판인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의 출간 기념 봉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봉정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 호계원장 법등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주호영 새누리당 국

이날 향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름 종교 수행자인 나를 거부감 없이 받아준 수도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면서 "수도원에서 수행하면서 종교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외빈



들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제롬 파스키에 대사는 "이번 책은 전 세계 종교들이 다름을 이해하는 '똘레랑스'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서강대 종교연구소장 서명원 신부는 "깨달음에 경계와 한계가 없음을 책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적 스님의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 대사관에 제공하며 현지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 제8대 박순 원장 취임

임시이사회서 선출돼…11월 27일 창립 14주년 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원장 · 이사장 정경연)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불교여성개발원 제1차 임시 이사회 및 (사)지혜로운여성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원장 및 제5대 이사장에 박순 부원장을 선임했다.

박순 신임 원장〈오른쪽 사진〉은 1944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세종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를 졸업했다. 제1기 교법사 출신인 박순 원장은 2006년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을, 2013년 여류화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



한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03년에는 제1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됐으며, 녹조근정훈장(2006)과 제27회 예총예술문화상 공로상(2013) 등을 수상했다.

박순 신임 원장의 취임식은 11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4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이나은 기자**

전력인불자聯, 표충사서 힐링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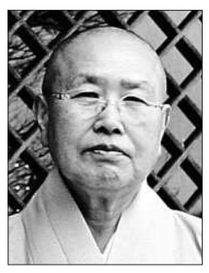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장재원)은 10월 17~18일 양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전력인 불자연합 제25차 정기 추계연합법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불자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법회에는 전국 10개 기관 회원 80명이 참석했으며, 힐링법회, 철야정진이 이어졌다. 또 표충사 신도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힐링법회에서는 참선법 강좌, 108배 절 수행법 강좌, 지역화합 및 기도성취 대다라니 주력이 진행됐다.

봉사활동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호를 방문해 준비한 쌀, 양말, 불교경전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불연은 향후 지역불자와의 화합법회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묘관 스님, 동국대 5000만원 쾌척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10월 22일 합천 용흥사 묘관 스님이 인재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묘관 스님은 "평소 불교의 발전은 인재불사에 있다는 생각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에 조금씩 보시를 해왔다. 최근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동국대가 최고의 성과를 거둬 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보람도 느꼈다"며 "동국대가 더욱 발전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계속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 소감을 말했다. 묘관 스님은 2002년 일산불교병원건립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1000만원, 교지매입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5000만 원까지 총 기부액은 1억 1200만원이다.

동국대는 스님의 법명을 딴 '묘관장학기금'을 개설해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금강사, 제6회 세계음식 경연 열어



거제 금강사는 10월 19일 경내에서 제 6회 세계음식 경연 및 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세계 음식 경연, 사찰음식 전시, 체험마당,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정혜숙 기자**

대 한 불 교 원 효 종

미등록 종도들에 대한 최종등록 및 징계 예정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로서 현재까지 총무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종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등록 및 징계예정을 공고합니다.

1. 대한불교원효종은 2013년 11월 28일 총무원장으로 우석스님이 당선되어 종무행정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종도들이 도당을 형성하여 별도로 총무원장, 종정을 선출하는 등 해종행위를 하면서 선량한 종도들을 현혹하여 총무원에의 종도등록을 방해하고 있는 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모든 미등록 종도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종도등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도 종도등록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해종행위를 하는 종도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치탈도첩의 징계를 하여 다시는 대한불교원효종의 종도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2. 모든 미등록 종도들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사본을 구비하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으로 방문하여 종도등록을 하여야 하며 문의전화는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합장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

당선자 : 법원스님. 능관스님. 명운스님. 현수스님. 지광스님

위 스님들은 2014년 10월 21일부로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대한불교원효종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 춘명. 선운. 현수. 무공



세계일화대회에서 '젊은세대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10월 18일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상담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공생과 공존의 불교가르침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각국의 선수행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共存 가르침 전파

〈공존〉

숭산 스님 열반 10주기 맞아 열린 제10회 세계일화대회

"목적이 없는 인생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학업과 취업 경쟁으로 인해 인생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삶의 철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반대급부로 무한경쟁 속에 인간성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찍이 근대화를 경험한 서구 유럽의 청년들은 1970년대 우울증, 소외 등으로 마약중독과 자살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한줄기 광명이 되었던 것이 있다. 바로 숭산 스님이 전한 가르침이다.

경쟁 체제 속에서도 타인과 공존하는 삶,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세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끈 숭산 스님의 가르침은 서구 유럽 젊은이들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숭산 스님의 입적 후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전세계 곳곳의 제자들이, 과거 자신들이 경험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위해 다시 뭉쳤다.

숭산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한국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일화대회가 열린 것이다. 세계일화대회는 세계 도처에 있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3년 마다 한번 씩 각국을 돌며 개최한다.

국제관음승가와 국제선원 무상사가 10월 1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0회 세계일화대회에서는 미국과 독일,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 수행자들이 참석해 '참선수행과 직업' '젊은층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자신들의 경험을 한국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입재식에서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나서 절차탁마를 강조했다.

스님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계가 하나로 소통하는 세계일화 정신이며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하는 힘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전세계인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그 가르침은 대중들이 탁마를 통해 정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에 공존의 삶 알려줘야"

이어 '젊은 세대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무한경쟁 체제에서 방황하는 젊은세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세월호 참사와 성남 추락사건으로 희생당한 청소년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포럼에는 27년 넘게 숭산 스님과 함께 수행한 슬로바키아 알렉츄 지도법사, 하버드대에서 학생상담을 진행하는 심성민 법사,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는 밍첸웬 스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밍첸웬 스님은 성장기에 공생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다. 스님은 "캠프를 통해 우정으로 가득찬 인생, 기쁨, 조화,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삶에 대해 느낀 청소년들이 오히려 학업에서도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성민 법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생들조차 막상 대학에 와서는 인생의 목표가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

젊은세대 대한 불교 역할 중점 모색
전세계 제자들 모여 경험담 · 방향 공유
부용암 오도 기념비 및 서울대 워크숍
"숭산 스님 가르침, 시공간 넘는 큰 뜻"

생을 단순히 대학 진학에 맞추었기 때문"이라며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불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미난트란 씨는 "홍콩 시위에서 젊은이들이 나선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행자를 만나 학생들이 수행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켠에는 숭산 스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세세생상 보살도' 전시회와 한국에서 수행중인 외국인 스님을 찍은 사진전도 함께 마련됐다. 포럼 중간에 참석자들은 연수원 곳곳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선수행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장진호(30) 씨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오래전에 접하고 세계일화대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해외에서 열려 참석하지 못했다"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 소중한 기회였다. 눈앞의 경쟁과 이득보다,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오클랜드에서 온 조단 데 허(39) 씨는 "12년 전 버클리대에서 공부할 당시 은사께서 숭산 스님의 제자이셔서 스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월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에는 마곡사 부용암에 숭산 스님 오도송 비석이 제막된데 이어 20일에는 계룡산 무상사에서 '숭산행원대선사 10주기 추모다례재'가 열렸다. 또 25일 서울대에서는 기업경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가 제자들이 한국대학생들과 선수행이 직업 등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공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입재식에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제자들



대회장에 설치된 사진전을 살펴보는 참가자들



공주 부용암 철야정진 후 숭산 스님 오도송비 제막식 장면



부용암에 건립된 숭산 스님 오도송비

"청년 고민 해결책 큰 스님 가르침서 찾아야"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숭산 스님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숱한 외국인 제자를 배출한 해외포교의 선구자이자 대선사다. 이번 세계일화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제자들만도 300여 명. 이런 대중을 총지휘하는 한 스님이 바로 무상사 조실 대봉(大峰) 스님〈사진〉이었다. 대봉 스님은 외국인 스님으론 유일한 숭산 스님 전법(傳法) 제자로 8명의 외국인 제자 중 맏형이다.

대봉 스님에게 이번 제10회 세계일화대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출가인연과 맞닿아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스님은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직한 병원에서의 3년간의 환자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님은 회의를 느끼고 용접공 등 막일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뉴헤이븐 선원에서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1977년 5월, 대봉 스님이 28세였을 때였다. 청년기의 방황 끝에 수행자로의 길을 걸어서 일까. 대봉 스님은 청년기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970년대 서구사회의 청년들이 겪었던 정신적 방황을 현대 한국사회, 그리고 아시아 등지의 여러 청년들이 겪고 있다"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불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대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숭산 스님을 통해 해결했다"며 "스님은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사람들과 공생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셨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젊은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무상사의 대중들을 이끌며 수행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조실 대봉 스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다. "한국불교에서 길을 찾는 이들이 초발심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는 대봉 스님. 스님은 다시 대중들 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신행 소식

자비명상 수험생 학업스트레스 날린다

청담고와 10월 29일 업무협약 맺고 연 2회 실시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이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고등학교(교장 방남수)와 10월 29일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 명상을 지도한다.

자비명상은 "고등학생들에게 자기사랑과 올바른 인격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청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명상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10월 17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청담고는 1학년 50명을 모집해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자비명상은 마인드힐링지도사를 파견했다.

첫날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동기를 부여하는 '내 몸에 귀 기울이기'에서는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뒤 긍정의 씨앗 심기, 행복명상을 이어갔다. 또 '하트 차크라' 시간엔 몸에 있는 7가지 차크라를 이해하고 명상체조로 마음을 치유했다.

또한 10월 31일과 11월 7일 명상프로그램이 두 차례 열린다. 31일에는 명상 의미와 효과를 배우고 호흡 · 명상을 통해 기초 명상을 실습한다. 또한 나만의 만다라를 그려 색칠하는 미술치유명상도 함께한다. 11월 7일에는 나의 꿈을 찾고 자신감을 증진하는 내안의 보물 '꿈설계'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팀별로 칭찬실습해 관계를 개선하는 '칭찬샤워'도 마련된다.

자비명상은 "이번 강사는 자비명상에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지도사로 국가등록 민간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며 "자비명상은 향후에도 인재를 양성해 명상과 상담치유가 필요한 기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명상의 집, 자애명상 8주과정 모집

11월 5일 개강, 김재성 교수 지도

수행센터 '명상의 집'은 자애명상과 마음챙김명상에 근거한 자기치유 8주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자기치유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과 자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명상심리학 교수의 지도로 매 주마다 △명상수련 △자애명상 및 마음챙김 명상의 체험나누기 △명상법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된다. 처음 4주는 내면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자애명상실습을, 이후 4주는 자애명상에 근거한 마음챙김명상(위빠사나)으로 자각하는 마음을 훈련할 계획이다.

참가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희망자는 다음카페 '명상의집 자애(cafe.daum.net/mettaa)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접수(metta4u@nate.com)하면 된다. (070)8616-4837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 활동수기 · UCC 공모

11월 10일까지 접수… 20일 수상작 발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미래 세대의 문화재 애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 및 UCC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활동수기의 경우 문화재지킴이 활동 소감 및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견과 에피소드 등이며 분량은 원고지 15매(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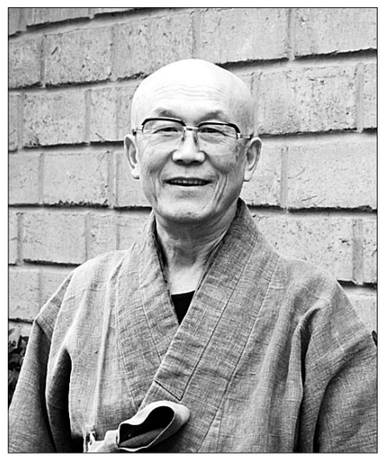
활동사진 2~3장도 jpg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야 한다. UCC는 문화재와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면 된다.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도 가능하며 100MB 이하 5분 이내의 분량이어야 한다.

제출마감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 수상작엔 상장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동국대총장상), 은상(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등도 시상한다. 수상작은 11월 20일 발표한다. 이나은 기자

"독참 · 점검으로 화두타파 하세요"

활인선원, '간화선 정로정진회상' 개산





대효 스님(사진 오른쪽)은 40여년간 스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회, 수련회, 단기출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임에도 선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 수행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가자뿐 아니라 안거 중인 스님들도 스승의 점검과 독참(獨參)없이는 스스로 간화선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런 가운데 간화선 참구를 쉽고 재미있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새로운 '조사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효 스님(원명선원 · 활인선원장)이 스님들만을 대상으로 '간화선 정로 정진회' 회상을 개산해 눈길을 끈다.

대효 스님은 10월 22일 종로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많은 수선납자들이 화두참선의 길로 가고 있는지 거슬려 가고 있는지 모르고 방석만 지키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릇된 현실을 타파하고자 한다"며 "활구참구의 진의를 모르고 배회하는 선객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간화선 정로 정진회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2의 선의 길을 나선다'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정진회상은 11월 11~20일 10일간 안성 활인선원에서 열린다.

정진 일과는 3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기(1~3일차)는 법문을 중심으로 화두간택, 화두참구법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하며, 2기(4~6일차)는 법문과 점검, 3기(7~10일차)는 정진과 점검으로 스스로 화두참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11월 11~20일 활인선원서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
40명 대상으로 집중지도
화두간택 · 화두참구법 강의

매 하루 일과는 3-5시 새벽정진/ 8-10시 오전정진/ 13시 30분-15시 30분 오후정진/ 15시 30분-16시30분 법문/18-21시 법문 및 정진 점검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정진회상에서 대효 스님은 1일 3~4회에 걸쳐 소참법문, 가행정진, 개별탁마를 지도한다.

대효 스님은 선의 불모지인 제주도에서 원명선원을 개원해 1976년 조계종 前 종정 서암 스님을 모시고 7일간 1일 2회씩 무차선회 개최를 시작으로 前 종정 서옹 스님을 모시고 대중적인 선법회를 개최했다. 또한 스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회(2박 3일), 수련회(5박 6일), 단기출가 30일 · 50일 · 100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3년부터는 고땡 힐링캠프를 매월 1~2회 일반인, 가족, 청소년, 교원을 대상으로 개설해 운영할 정도로 간화선 수행 지도의 달인이다.

대효 스님은 "전국 100여 개의 선원에서 2천여명의 납자들이 세계 유일의 무형문화유산인 안거를 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스님들이 안거기간 동안 선방에서 화두참구를 하는지, 위빠사나 수행을 아는지 알 길이 없다"며 "수행자이자 지도자인 스님들이 간화선에 대한 확신이나 올바른 화두참구법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참선문화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효 스님은 "이를 위해 잘못 알고 헤매는 화두간택 화두참구방법에 대해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가듯 자세하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매일 개별 독참을 진행해 올곧은 간화선 수행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상을 계기로 봄과 가을 해제 후와 결제전 각 2회씩 연 4회로 '간화선 정로 정진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회상 참여 대상은 비구 · 비구니, 사미 · 사미니 총 40명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참여 희망 스님은 전화 또는 인터넷 '활인선원(www.hwalin.net)'을 참조하면 된다.

대효 스님은 "간화선 실참과 다양하고 오랜 참선 수행의 지도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두참구수행은 물론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1644-526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천진불 다함께 뛰놀며 친목 다져

조계종 직할교구, 10월 18일 천진불한마당 개최



조계종 직할교구(총무원장 자승)는 10월 18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제4회 천진불 한마당'을 개최했다.

서울경기지역 어린이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으로 친목을 다지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직할교구(총무원장 자승)는 10월 18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제4회 천진불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사찰 어린이들을 결집시켜 친목을 도모하고 사찰 간 어린이 법회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국제선센터, 용주사 등 어린이법회 시행사찰 30여곳 700여 명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 불자들과 지도교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체육대회(단체줄넘기, 협동 공 튀기기)와 함께 사찰별 장기자랑, 사찰음식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참석해 아이들에게 불교교리 즉석퀴즈를 내고 상품을 수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주최한 직할교구 사무처장 정만 스님은 "천진불어울림한마당은 어린이포교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교계 유일의 어린이를 위한 운동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사찰이 어린이포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혜만 스님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불자 어린이와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뛰어 노는 대동한마당"이라며 "어린이법회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돼 향후 어린이포교의 중흥과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혜만스님은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직할교구 말사 및 수도권에 소재한 사찰의 어린이법회 어린이들과 자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 뛰어 노는 대동한마당"이라며 "친목도모는 물론 사찰 간 어린이 법회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향후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의석당 지선 대종사
명예종정 호림당 혜원 대종사

상임부종정 법경 원로의장 정인 종회의장 법륜
부종정 월현 부의장 정광 부종정 법정

총무원장 법정 행정원장 정운 총무부장 법원 감사원장 혜관
문화부장 해운 호법원장 지산 복지부장 일화 포교원장 보덕
사서실장 법안 비구니원장 진언 재무부장 덕안



'이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은다면 다시 어느생에 이몸을 제도할 수 있으리오' 뜻을 같이하실 종도님들을 모집 합니다.

입종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증 신청서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 명함판 사진 3매

▶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법회 ◀
■ 일시 : 불기2558(2014)년 10월 3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성불사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팔달동)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

예수제 안내

예수제((豫修齊)란?

예수십왕생칠제를 줄여서 예수제 라고 합니다.

예수(豫修) "미리 닦는다"는 뜻이고 죽은사람을 천도하는 49제를 지내듯 산사람을 위한 생칠 49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고죽으며 윤회하는 이몸이 전생에 지은 업과 현세의 지은업을 미리 닦아 구경 열반의 세계로 가기위한 예수제를 11월 16일 봉행합니다.

성불사 주지 법성 합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성불사에서
예수제 동참 접수 받습니다.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

▶ 예수제 안내 ◀
■ 일시 : 불기 2558(2014)년 11월 16일
(음. 윤, 9월 24일)
■ 장소 :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성불사

수효사 효림원 복지 포교 10년… 10여개 시설 운영

사찰안 복지센터로 유명한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대표이사 무구)이 10월 20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기댈곳 없는 지역 어르신들이 서울 서대문구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을 찾아와 자신들의 노후를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효림원은 이제 6개의 직영시설과 4개 위탁시설을 가진 노인전문복지법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간 효림원을 다녀간 어르신들이 어림잡아도 족히 수 만명은 넘을거라는 것이 무구 스님의 말. 수(修)와 효(孝)를 근본으로 어르신을 섬기겠다는 이름답게 지치지않고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행해온 노인복지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2004년 노인보호센터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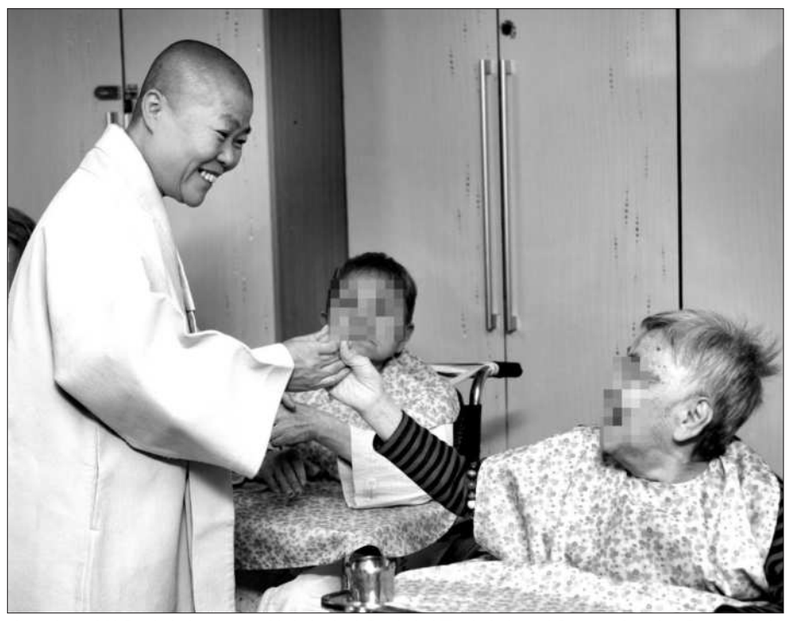
수효사 효림원은 2004년 10월 20일 복지법인 설립 후 이듬해 2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시작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잇달아 개원했다. 현재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교육원, 연꽃간병회를 운영하고 있고 북가좌2동노인복지 · 데이케어센터와 서대문노인전문요양 · 데이케어센터도 위탁 운영하는 등 점차 규모를 넓히고 있다.

효림원은 사찰 안에 복지센터가 위치한 보기드문 형태다. 총 8층 높이 건물 중 맨 윗 층 수효사를 제외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건물 각 층을 사이좋게 나눠쓰고 있다.

데이케어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은 총 31명.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가족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보호 기능 뿐 아니라 문화참여, 재활서비스, 가족상담지원 등도 이뤄진다. 서대문구 지역내 방문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5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센터를 이용중이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와 전문적인 케어기술 습득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사찰내 복지센터 설립
노인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갖춰
2013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수효사 효림원을 설립한 무구 스님(사진 왼쪽)은 어버이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신도자원봉사조직 성장 비결

수효사 효림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사찰 신도들의 자비행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과 복지센터가 함께 있다보니 신도들이 수시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다.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등 불교와 복지가 한데 어우러져 도심불교복지도량으로 거듭난 것이다. 때문에 탄탄한 자원봉사 조직과 활발한 활동은 수효사 효림원의 자랑거리다. 막힌 혈을 찾아내 침으로 따주는 '따주기 공덕회' 역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단체다. 60명의 회원들이 군법당으로 봉사활동을 나간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106명에게 진행하는 밑반찬 지원서비스에도 수효사 신도들이 봉사자로 참여한다.

신도들을 복지 전문가로 길러내는 교육도 이루어졌다. 수효사 복지대학에서는 '아름다운 이별여행을 위한 준비교육' 을 주제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 교수와 의료진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해 호스피스 개념과 죽음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 말기환자의 심리 정서 케어, 불교생사관, 불교생명윤리, 임종의식, 불교상장례 문화, 사별가족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했다.

산하 연꽃간병회에 소속된 100명의 간병인들 역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받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차례 복지부 장관상 받아

작지만 내실있는 곳. 수효사 효림원이 추구하는 바다. 여타 사회복지법인과 비교했을때 작은 시설일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말자는 것이 운영철칙이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효림 · 수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A등급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전국에 있는 3천6백여개의 입소시설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상위 10%(34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구 스님은 "시작 초기만 해도 복지가 쉬운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덤벼들었는데 결코 그게 아니더라"며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복지가 무엇인지 조금 알것 같다. 그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이어 행복경의 말을 인용하며 "복지를 통해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로 가르침을 듣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역사회 행복나누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2001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및 운영자를 육성, 발굴하는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주요연혁

2004 법인 설립
2005 효림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 개원
2006 효림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개원
2007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 · 효림노인공동생활가정 개원
2008 효림가정봉사원교육센터 개원
주간,단기 장기요양기관 지정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 개원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 우수교육원 선정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효사 효림원

2009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완료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개원
사회봉사집행 우수협력기관 지정 (서울서부보호관찰소)
2010 수효노인요양시설설치(단기보호센터에서 요양원으로 전환)
2012 효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평가 A등급
2013 구립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위탁, 구립북가좌데이케어센터 개원
2014 효림 · 수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평가 A등급

단고을합창단 충북 합창대회 대상

2014 충북노인문화예술제 합창대회에서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덕중) 소속 단고을합창단(회장 손용락)이 대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이 대회에는 10개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단고을 합창단원 31명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낸 결과 대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며 "합창단원들이 수상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단고을합창단은 주 2회씩 모여 두 세 시간씩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 합창단원들은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단고을합창단은 2007년 결성돼 지역 어르신들이 꾸준히 참여, 올해 처음으로 대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배현진 기자**

"여러분 스스로를 대접하세요"

명상 심리학 박사 서광 스님,
10월 23일 조계종봉사단 교육


서광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이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을 위해 '봉사를 통한 수행과 깨달음'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1년에 두 차례 있는 봉사단 보수교육의 일환이었다.

시작하기는 쉬워도 지속하기는 힘든 것이 봉사. 스님은 봉사자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혜로운 봉사자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객석에서는 '감정조절' '봉사하고 있다는 상'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광 스님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낸 것 자체가 위대하고 수승한 것이지만 하다보면 거기에도 인간관계는 있기 마련이라 협동보다는 독단이, 봉사자간 반목과 질투도 생겨 마음상하는 일이 많을 줄로 안다"며 "나를 내려놓고자 시작한 일에서 다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강해져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비를 실천할 때 지혜를 빼놓지 마라"며 봉사피로현상을 줄이기 위해 '자비심 브레이크' 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첫 마음을 퇴색시킨채 봉사활동을 그만두기보다 자신에게 자비심 가득한 마음을 베풀어 휴식을 선물하라는 것이다.

"봉사에 지쳐서 관둔다 마음먹고나면, 한편으로는 속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죠.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 가졌던 특별한 마음을 도매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거랑 같으니까요. 이렇게 그만두면 무의식에서 가진 불만이 또 다른 번뇌망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서광 스님은 "나를 대접하는 것 역시 수행"이라며 "세 번 남을 위해 봉사한다면 한 번은 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베풀라"고 조언했다.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질높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스님은 이날 자리에 모인 봉사단원 2백여명에게 "봉사만큼 우리와 타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며 격려를 전했다.

배현진 기자



동네서 재미있게 살자

10월 18일 삼전동 근린공원이 오랜만의 가을 운동회로 시끌벅적했다. 모처럼 모인 삼전동 주민 4백여명은 남녀노소 함께 어울려 공구르기, 달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혜영)이 주최하는 삼전어울림축제였다. 주민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이웃간 인사가 오고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마련한 행사로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기' 사업의 일환이었다. 주민들 역시 축제에 참가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며 이웃간 정을 싹틔우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삼전복지관 캐릭터 '연꽃돌이' 의 인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장터, 솜씨자랑,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마당과 놀이마당이 진행됐다. 또한 희노애락을 주제로 한 지역 주민들의 가족사진 전시와 만들기 작품 전시도 이루어졌다. **배현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세세생생 줄지 않는 내 안의 보물 찾자”

공생선원 개원 12주년 기념법회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물질가치에 매몰된 많은 현대인들은 인격을 상실한 채 고뇌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견성성불(見性成佛) 하면 참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견성은 화두참선과 염불 주력으로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할 때 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설정 스님이 10월 5일 공생선원 개원 12주년 초청법회에서 열린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설정 스님은 … 1942년 수덕사가 자리한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속가(俗家) 부친이 만공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성장한 스님은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범어사 · 봉암사 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30대 중반부터 수덕사 주지(1978~1988)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1994~1998)을 지냈다. 2009년 덕숭총림 수덕사 제4대 방장(方丈)에 추대됐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특히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졌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심한 때가 지금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존경쟁이 치열해졌고,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는 물질가치, 생명가치, 인격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 · 생명 · 인격가치 위에 견성가치라 하는 절대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의 견성가치는 참생명의 가치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되면 참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자애 · 평화 · 모든 방편과 실력 · 지혜와 공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견성한 자들을 열반 · 해탈 했다고 말합니다. 해탈의 경지에 가면 너와 나라는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주관과 객관, 대소(大小)가 끊어지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가 됩니다. 이것을 대자유의 경지, 대원력의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그자체가 그대로 환희이자 축복입니다. 이 무한한 공덕과 실력, 지혜와 복덕이 나한테 다 구족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악에서 오는 겁니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 죄악의 근본은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참선과 주력, 염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누구나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선정삼매(禪定三昧)를 성취할 수 있으며 걸림없이 살 수 있습니다.

생사 걸림 없이 살아야 해탈가능

중국 선불교 전성기를 이끈 방거사(?~808)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거사는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수행자’ 였습니다. 네 가족은 전재산을 ‘동정호’ 에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간 가족은 ‘짚신’ 이나 ‘조리개’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네 식구는 결연한 의지로 참선을 하며 자기 자신을 다 놔버렸습니다. 자기를 다 놔버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벗어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수행자로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참선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놔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놓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자성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탐진치를 한꺼번에 놔버리면 심성자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놈을 갖고 있으니 그놈 때문에 막혀서 도저히 자성자리가 드러나질 않는 것입니다. 방거사는 이미 물질가치(재산)를 다 털어내버렸을때 공부가 반쯤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방거사는 딸 영조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와라.”

방거사는 정오가 되기 전에 방에 마련해 놓은 자리에 좌정해 ‘열반’ 에 들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 영조도 방거사 못지않게 깨달음을 증득한 선사였습니다. 영조는 나가지 않고 문간에서 내다보더니 “해가 안 보이는 데 일식중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거사가 밖에 나가 일식을 확인하려던 그때 영조가 방에 들어와 방거사가 ‘열반’ 에 들려고 마련했던 자리에서 가부좌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방거사는 “참으로 기민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의 이야기도 매우 극적입니다. 딸의 장례식을 치루고 지방장관을 지내던 친구가 놀러왔을 때 몇 마디 ‘당부’ 를 남기고 친구의 무릎을 베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이 떠났단 소식에 “말씀이라도 하시지”하며 밭에서 일하다 쇠스랑 손잡이를 잡고 선채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방거사의 부인도 방거사의 소식을 듣고 “싱거운 사람들 같으니 , 소식도 없이 떠나다니”하며 동네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부한 사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언제 죽겠다, 언제 간다” 생사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저렇게 깨달았으면 중생교화를 하지 왜 그렇게 홀랑 가버리나”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사가 초탈한 경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생사가 초탈된 상태에서는 무대가 사바세계 뿐 아니라 우주 시방법계에 맘대로 왕래자재무애 하는 겁니다.

견성에 머물지 말고 백척간두진일보하라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다. 하루저녁에 초가집 열 개를 지었다 부순다는 이야기가 있듯 말이죠. 그 번뇌 망상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자리를 한번 되살펴 보는 겁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는 간화선입니다. 화두를 들어 그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참선하면서 번뇌, 망상 일어난다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화두를 들어버리면 번뇌 망상은 다 꺼져버리게 돼 있습니다.

죄악 근본 탐욕과 집착서 비롯
참선 · 주력 · 염불로 탐진치 녹여야
육근 얽매인 현대인 정신줄 놓아
화두로 번뇌 부숴야 견성 가능

화두를 의심하고 있는 그 당처를 잘 잡고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일심으로 가다보면 그런 생각으로 뭉쳐서 시간가는 줄 모르는 때가옵니다. 한 시간이 갔는지, 두 시간이 갔는지, 몇 시간 갔는지 모르는 그런 때가 홀렁 지나갑니다. 그런 때 결판이 납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경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얼마든지 참선할 수 있습니다. 염불, 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으로 갈 때 올 때,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계속 놓치지 않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별리고(愛別離苦)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헤어진 남녀를 비롯해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여읜 자식 등. 잃어버린 상대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괴로워합니다. 또 돈을 잃고 돈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등. 늘 집착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거처럼 화두를 들어보세요. 삼매가 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염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지장보살이든, 부처님 명호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부르는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면 염불선이 됩니다. 그렇다고 복이나 성취를 빌면 안됩니다. 일념으로 하다보면 다 되게 돼있습니다. 열심히 일념으로 하다보면 잡념이 다 떨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분별, 망상, 차별심이 다 떨어지는데 청정심이 안 일어날 수 없고 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 망상으로 진리를 찾으려 하면 안됩니다. 처음에야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한 한생각을 해야 합니다. 철학 · 과학으로 부처님 법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철학은 사고(思考)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으로 불교를 접근하면 안됩니다.

부처님 공부는 무상 · 무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때 까닭이 나오게 됩니다. 일념으로 갈 때 경계들을 지나게 됩니다.

참선을 한다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한번 앉으면 한 시간 세 시간, 삼일도 끄떡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두가 있냐고 묻자, “화두 들게 뭐가 있습니까, 편안한데”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맑고 깨끗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앉으면 습관이 들어 화두가 다 날라가버리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마경(마의 경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경계이죠.

이렇게 동정이 일여(一如)하고 오매가 일여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해야 합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한 발짝 내딛으면 죽는 것인데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옛분 들이 그런 얘길 합니다. 우리나라 선의 전통은 돈오점수(頓悟漸修)라고요. 요새는 돈오돈수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론적으로 보면 돈오돈수이지만, 수행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오점수여야 합니다.

전생이라 하는 꽃이 확 폈다 하면 그 꽃이 잘 피어서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보림(保任)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무결한 경지가 옵니다.

마음 밭 잘 갈아야 뿌리 잘내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참생명운동으로 전국민이, 전세계인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돈, 지위, 명예 등 짜잘한 것들로 갈등, 원망하고 다투지 마세요. 못난 중생들이 자존심가지고 난리칩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화두를 들고 부수어버리세요.

곡식심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잘 갈아야 나무뿌리도 잘 내리고 결실도 맺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심성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원래 맑고 깨끗했던 참나로 회복하는 것이 견성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합니다. 그 속에서 공부하고 정진해야 공부에 힘이 생깁니다. 경계가 없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공부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성을 하는 그날 까지 이 고삐를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되 그 보는 놈을 관(觀)해야 합니다. 듣되 듣는 놈을 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근(六根)의 도적을 만나 색성향미촉법에 끄달려 도둑맞고 살다보니 제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전부 남에게 도둑맞고 자기 살림살이를 지킬 수 없게 된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부해서 견성하자는 것은 내 살림살이, 내 것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빈털터리 거지가 돼 중생노릇하며 고통받고 살자는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써도 없어지지 않는 지혜, 복덕, 자비라는 내 원래 보물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성공부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얍!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한국 선불교는 보조선이자 임제선"

보조사상연구원, 10월 18일 제24차 국내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 제24차 국내학술대회.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보조선과 임제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고려 말 간화선 주창을 통해 선불교의 씨앗을 심은 보조지눌 스님(1158~1210). 하지만 보조 지눌 스님의 입적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러 임제선이 전래되며 보조선은 상대적으로 그 빛이 가려져 왔다. 하지만 임제선의 열풍 아래서도 보조선의 선풍은 끊이지 않고 수선사 선승들과 여말 선초 선사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보조 지눌 스님에 의해 제시된 선풍이 여말 선초의 선사들과 거사들에게 어떻게 연속되어졌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조 스님이 정토수행을 부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후대선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시대상황과 인식 투영됐을 뿐, 차이 없어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한국 간화선은 보조선인가 임제선인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선법은 7~8조에서 그 맥이 끊어진 북종과 달리 남종선의 임제종 양기파 일변도로 맥을 이어왔다"며 "때문에 고려 중기에 자생한 보조선(普照禪)과 고려 후기에 재전래한 임제선(臨濟禪)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가 늘 문제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사선의 흐름을 계승해온 임제선과 남종선의 사굴산문 선법을 계승해온 보조선은 그 법통과 법맥이 다르지 않다"며 "고려 중기 지눌이 돈오점수의 수행법과 선교일원의 사상체계를 모색한 것과 고려 말 태고(太古)와 나옹(懶翁) 등에 의해 재전래된 임제선법이 돈오돈수에 입각한 사상체계를 강조한 것은 시대상황과 역사인식이 투영된 것일뿐 그들 선사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계에서 보조선과 임제선이 근원부터 다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청허 휴정 이후 편양 언기 등의 임제법통 정립이라는 정통성 문제를 가미시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이어 "법통과 법맥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는다면 한국의 간화선은 '보조선이자 임제선' 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조선의 장점이 임제선의 가풍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제종 순수성 위해 지눌 법통서 제외

이와 함께 후대 법통 정리 과정에서 보조선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경후 동국대 연구원은 '여말선초 보조선(普照禪)의 법통과 법맥' 을 통해 한국선종사에서의 법통과 종조문제를 짚었다.

오경후 연구원은 "조선 후기 청허 휴정의 제자들에 법통이 정리됐지만 이들은 임제선의 수용이 본격화된 고려 말 조선 초 불교사적 사실을 임의대로 재구성했다"며 "환암 혼수 · 구곡 각운 · 벽계 정심의 법통을 태고 보우의 계보로 편입시켰다. 이들은 임제종의 순수성 강조를 전제로 보조 지눌을 임제종과 상관이 없는 별종으로, 나옹 혜근을 평산 처림의 분파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법통 인식은 보조 지눌과 나옹 혜근의 위상과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해당 서울과기대 교수는 '여말 선초 거사들의 보조선 인식과 계승' 을 통해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하였던 거사들이 보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승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박 교수는 "이 시대의 사대부들 가운데에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거사'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이들에게는 '보조선' 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선풍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전제하며 "이 시대의 사대부들이 대부분 불교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조선 계승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조 스님 수용 자세는 후학 교훈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불교 이해에 나타나는 보조의 모순과 종합성' 발표에서 염불사상을 중심으로 보조 지눌 스님의 수용태도를 점검했다.

신 교수는 "보조에게는 염불선에 대한 수용의 면도 보이고, 또 폄하의 면도 보인다. 이는 '모순의 노출과 종합' 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지눌은 자신의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 사상들을 허심탄회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는 자기 철학은 없고 역사적 기술만 늘어놓는 현대 한국의 불교학계에 많은 교훈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 명칭의 불교요소 활용한 종교교육 필요"

이동배 교법사, 전국불교교육연합회 연구발표회서 주장



"전국 각지에는 불교 명칭의 지명이 많지만, 자라라는 세대들은 이를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있어 이러한 지명과 관련된 불교의 문화를 알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개최한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에 대한 연구발표회에서 불교지명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4일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동배 교법사(사진)는 '지명(地名)에 담긴 불교사상을 통한 불교교육 방안 연구-광주(光州)지역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교학논문 발표 및 공개수업을 통해 각 지역의 지명과 불교의 다양한 역사를 연계한 교육방안을 설명했다.

이동배 교법사는 "최근 불교계에서 일고 있는 도로명 주소변경과 관련해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문화말살 정책에도 지키고 보존했던 법정지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졌던 동명과 지명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되살려한 한다"고 명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동배 교법사는 명칭 변경을 통해 본 광주의 역사와 한국불교에서의 광주, 불교와 관련된 지역명(행정 지역명, 산 · 강 이름, 사찰이름)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이어 '불교 지명을 활용한 수업안' 을 활용과제로 내놨다.

이 교법사는 "광주(光州)는 아미타부처님을 상징하는 빛의 고을, 무등산(無等山)은 비할 바 없이 높은 부처님 경지이자 광주의 대표적 산, 방하동(芳荷洞)은 향기로운 연꽃, 광) hdrn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방시장(西方市場)은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의 세계, 광주 서구의 염주동(念珠洞)은 보리수 따위의 열매를 줄에 꿰어서 만든 법구"이라며 광주지역의 불교와 연관된 다양한 지명들의 불교적 의미와 해석을 풀어놨다.

이 교법사는 특히 "아이들이 이러한 지명에 녹아 있는 불교사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를 알리는데 교법사들과 종립학교 관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법사는 "지명에는 그 시대의 역사와 생활, 그리고 문화가 스며있는 문화재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며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명을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알리고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런 포교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수업에 앞서 최종대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빛고을 광주의 유일한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은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만암스님과 전남 5대본사의 출연으로 개교했다. 본 학교는 불교교육을 통한 대중포교와 불국정토의 구현 그리고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은 10월 24~25일 양일간 라마다호텔과 정광고등학교 등 광주지역 종립학교에서 제44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24일에는 교장협의회, 교법사단의 정기총회, 25일에는 공개수업 및 학생 동아리활동 전시작품 관람, 교학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성사 청동보살 좌상 등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등 8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10월 20일 지정 예고했다.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은 높이 51cm로, 윤왕좌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존 불상 중 가장 크다. 특히, 이국적인 얼굴에 우아한 미소를 띤 표정과 편안한 앉아 있는 모습 등 고려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은 석가여래삼불좌상을 협시(脇侍)하는 4구의 보살상 가운데 하나로서, 조선 후기 불전의 봉안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이 보살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각승 원오(元悟)가 수조각승(首彫刻僧)을 맡아 1605년에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초 조각승들의 활동과 조각 전통의 계승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이밖에도 16세기 후반의 조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



고성사 청동관음보살좌상

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과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八)',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四)', 신미대사가 국역한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도 보물 지정 예고됐다.

또한 백제 의자왕대 대좌평이 은퇴 후 사찰을 세운 것을 기념해 제작한 비(碑)인 '부여 사택지적비(夫餘 砂宅智積碑)' 와 경주 궁성과 인접한 월지(月池)에서 출토된 초의 심지를 자르는 특수 용도의 가위인 '경주 월지 초심지 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 역시 보물 지정 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불교사상硏, '불교와 사회' 학술회의

원광대 · 日교토 불교대학과 제23회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과 일본 교토불교대학은 10월 31일 오전 10시 원광대 숭산기념관 3층에서 '불교와 사회' 를 주제로 제23회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케미 초류 교수의 '출가와 세간과의 관계', △야기 토오루 교수의 '열반인에 대한 일본인의 제사의식', △바바 히사유키 교수의 '일본 대장경 간행과 한국의 팔만대장경 비교',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일본 최대 종단 정토진종의 전쟁책임에 대한 연구' △한내창 교수의 '현대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 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환수문화재, 국보 · 보물 지정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을 비롯해 소장처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에 대해 국보, 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환수된 문화재는 총 145건 9,958점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은 환수문화재 소장처에서 추천 받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 와 같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대여' 형식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2011년에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총 22개 기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의궤 3,840책에 대해 보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EBS와 석굴암 · 대장경 조명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와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코리아,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10월 24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방영한다.

'문화유산코리아,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 방송프로그램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총 11건의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10분 방영되며, 위성채널인 초 · 중등 · 직업(EBS+2) 채널을 통해 1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재방영된다.

노덕현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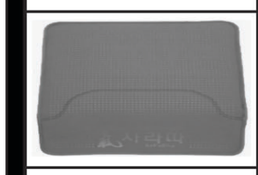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전주 비빔밥과 사찰음식이 만나면?

완주 송광사 2014 비빔밥축제서 사찰음식 '인기'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과 사찰음식이 만난다면? 2014전주비빔밥축제에서 완주 송광사가 선보인 사찰음식을 맛보기 위해 4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몰려 화제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0월 23~26일 열린 전주 비빔밥축제에서 사찰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힐링' 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다양한 채식 식단의 맛스러운 모습에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삼삼오오 발길을 멈추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특히 음식 조리와 함께 열린 '발우공양' 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및 박성일완주군수, 완주군의회 의장 그리고 서거석전북대학교 총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불교신행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이 즉석에서 신청을 통하여 함께 공양을 올렸다.

대중들과 점심식사를 발우공양으로 진행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며 "발우공양에 담겨 있는 수행정신과 함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은 환경을 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재배 식재료 사용, '힐링' 음식
발우공양, 시민 4000명 참여
연음식 '쿠킹콘서트' 높은 호응

한국여행 중 우연히 행사에 참여한 사요코(24세. 구마모토 현)씨는 "작은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불교의 발우공양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에서 비롯됐다. 일본에서도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발우공양' 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발우공양에 이어 전주 경기전 특설무대에서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과 쉐프들이 함께하는 '쿠킹콘서트' 도 열렸다. 쿠킹콘서트는 송광사 연밭에서 직접 채취한 연(蓮)을 가지고 음식을 즉석에서 요리하며 대중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진 스님은 "몸에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며 "몸에 이로운 음식은 몸을 깨끗이 할 뿐 만 아니라 평소 식생활 습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진 스님은 "자연음식이자 건강식인 사찰음식을 권한다" 며 "음식은 맛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정신도 함께 담아야 한다. 사찰음식에는 불교의 평등사상, 나눔정신, 공동체 정신도 함께 담겨있다" 고 말했다.

박주희(48세, 부산 금정구)씨는 "평소에 더 맛있고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다" 며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함께 깨끗이 하는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비빔밥 축제를 시작으로 '3소식 캠페인' 을 전개한다. '3소식' 이란 즐거울 소(笑), 작을 소(小), 푸성귀 소(蔬)의 3가지 '소' 를 실천하는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 광주영산재 시연회



최근 광주시로부터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의 시연이 개최됐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10월 18일 서구 법륜사에서 '전통불교영산작법 시연회' 를 개최했다.

이날 선보인 영산작법은 7월 31일 광주시의 무형문화재 23호로 등재된 광주영산재로 범음이수자 혜령, 바라이수자 호산, 작법이수자 월인 스님 등 총 30여 명의 스님들이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선보였다.

월인 스님은 "앞으로도 인재불사의 원력으로 후학들을 교육 ·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담양 용화사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0월 18일 경내에서 "한중불교문화교류수륙대재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를 봉행했다.

행사는 세계선센터 총재 도성 스님,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스님을 비롯한 신도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대회장 대광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불교는 이제 대승불교 정신으로 대중화, 생활화,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진실한 불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자" 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국,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스님들이 참여해 수륙재의 의식을 각 나라별로 진행했으며, 행사후에는 중국소림무술시범단, 한국태극권단의 시범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발효차 '청태전' 으로 만끽하는 사찰 풍미

장흥 보림사, 청태전차문화축제 및 산사음악회



사찰의 풍광을 즐기고, 사찰 고유의 전통차를 음미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돼 화제다. 전남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10월 18일 경내에서 '2014청태전차문화축제' 와 '템플스테이, 명상치유 산사음악회' 를 개최했다.

청태전차문화축제에서는 법요식에 이어 청태전 맛있게 우리기, 멋이게 꾸미기, 제다체험, 보조선사창성탑비 헌다례, 청태전 홍보 및 판매 등이 진행됐다.

'청태전 맛이게 우리기' 는 각 참가자들에게 청태전 2개씩을 지급하고, 차를 우려내는 프로그램이다. '청태전 멋있게 꾸미기' 는 청태전을 이용해 전통 찻자리를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거나, 새롭게 창조한 찻자리를 만드는 행사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주어졌다.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장흥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고유발효차이다.

청태전차문화축제에 이어 오후에는 혜민 스님(뉴욕 불광선원 부주지)의 명상치유 강연과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혜민 스님은 이날 강연을 통해 "행복해지려면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사귀려면 배풀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부부관계, 친구관계, 자식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어 6시부터는 피아노 연주가 임동창 씨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행사에 앞서 주지 일선 스님은 "오늘 이 행사는 힐링의 명사들을 모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훨훨 내려놓고 가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체대비 보살행, 한국불교 살피는 자리로"

김제 금산사 1415주년 개산대재 봉행… 보살계 수계법회도 이어져



백제 법왕이 국태민안과 선정을 펼치고자 발원하며 자복사찰로 창건한 전북의 대표적인 명찰 금산사(주지 성우)가 개산 1415주년을 맞았다.

10월 18일 금산사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열린 개산 1415주년 개산대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불국사 성타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최규성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해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조사전과 부도전에서의 다례재에 이어 육법공양, 헌공, 기념법회,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점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높은 가을 하늘 만큼이나 후세에 길이 빛날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며, 그 혜명을 계승하기 위해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자" 고 당부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금산사 개산 1415주년을 맞아 역대조사스님들의 동체대비 보살행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것이다" 고 설했다.

이날 오후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증명법사로, 월주 스님을 계사로 대적광전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서는 만등불사 점등식이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산신대재 및 우금 문화예술제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북불교 중흥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산신대재와 문화예술제가 10월 19일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에서 열렸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과 대학원 스님들과 김춘진 국회의원, 김종규 부안군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개암사의 산신대제는 명종,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열리는 우금문화예술제에서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한 심진 스님, 퓨젼국악단 '아띠' 베트남과 필리핀의 공연단, 가수 조항조 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색다른 멋을 선사했다. 이날 우금 문화예술제에 앞서 재안 스님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다문화 가정 자녀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안 스님은 "산신대제를 봉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융성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며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자" 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 불교 성보기획전

군산지역의 성보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기획전 '천년의 만남' 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10월 22일 개막됐다.

군산 은적사, 동국사, 흥천사, 불주사, 상주사 등이 소장하고 성보문화재와 군사지역의 사찰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 80여점과 1편의 영상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다.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전시될 이번 기획 특별전은 군산지역에서 발달한 불교문화을 재조명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각 사찰별로 소장하고 있는 불상, 경전, 사리함, 복장유물 등 다양한 성보문화재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자료와 체험실이 준비되어 있다.

불주사 배수로 공사 중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양식의 금동여래입상, 은적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동국사 삼존불 사리장엄구, 복장유물 등 군산을 대표하는 사찰들의 성보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 군산 사암연합회장 도연스님(상주사), 흥천사 회주 지환스님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비 모금함' 싣고 다니는 부산 택시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창립 26주년 맞아

'거리의 포교사'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심연섭)가 창립 26주년을 맞았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2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10월 2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석을 마련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청소년 20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단체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심연섭 회장은 봉행사에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부산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나눔과 배려가 있는 모범적인 신행을 펼쳐나간다면 지역사회 희망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이타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개인택시불자회 덕분에 지역사회가 든든해지고 있다"며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수불 스님은 모범회원 15명에게 불교연합회장상, 연합신도회장상 등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택시불자회원으로서 자비행을 꾸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이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1988년 7월 첫 창립법회
95년부터 자비활동 나눔시작
2011년 사직동에 자비정사 개원

한편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전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이었던 차현규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150여 명의 회원들이 1988년 7월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첫 창립법회를 가지며 결성됐다. 이후 매달 한번씩 정기 법회와 매년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꾸준한 신행을 이어왔다. 1995년에는 장애인연합회 컴퓨터 기부, 노인요양복지관 방문 및 무료급식 등 본격적인 자비 행보를 시작했고 이후 2011년 부산 사직동에 자비정사를 개원함으로써 신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창립26주년기념법회에 참가한 부산개인택시불자회원들이 합장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비 활동이 있다면 인재 불사를 위한 학자금 전달과 교통봉사다. 이유인즉 50 ·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부산개인택시불자회원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각자 개인 택시 차량에 자비의 모금함을 설치해 십시일반 모인 승객들의 보시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른 신행 단체와 차별화되는 교통봉사도 회원들의 주요 활동이다. 부산불교연합회의 팔관회, 봉축법요식 등 부산 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때마다 교통정리를 맡아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

우제철 부산개인택시불자회 부회장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를 위한 보시행이 결국 나를 위해 회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며 "나로 인해 사회가 맑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에 그저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하루라도 스님처럼 살고자 발원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 수계법회

신라 · 고려시대 호국불교 의식을 재현하는 '2014 팔관회'가 성황리에 봉행됐다. 10월 18일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국왕친영행렬 재현으로 막을 올린 팔관회는 10월 1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나라의 평안을 발원하는 전통의식 및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국왕친영행렬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국왕으로 분장해 용두산 공원을 시작으로 광복로 일대를 행렬했고, 이어진 호국기원법회에서는 개회선언, 호국기원문, 대회사, 봉행사 등의 순서로 팔관회의 시작을 알렸다.

둘째날인 10월 19일에는 팔관재계수계법회가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봉행됐다. 삼화상에는 전계대화상 고산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정련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교수아사리 무비 스님(문수선원 선원장)이, 칠증사(七證師)에는 존증아사리 지현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수진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허 스님(쌍계총림 쌍계사 전 율원장), 정각 스님(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종학 스님(부산불교연합회 고문), 무원 스님(부산 삼광사 주지), 원묵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등 대덕스님들이 대대적으로 나서 수계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교수아사리 무비 스님은 "팔관재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룻밤이라도 철저히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의식으로 팔재계를 정성스럽게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며 팔계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천여명의 수계자 및 사부대중은 전계사의 선창에 따라 팔계를 지킬 것임을 후창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마정수기를 내리고 있다.

이후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칠증사가 수계자들에게 마정수기 의식을 거행하며 팔계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2014 팔관회 수계식을 통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성 회복의 계기를 심어주고 가을이불 전달, 김장나누기, 잔치국수 만발공양 등 나눔행사도 진행해 팔관회에 의미를 더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팔공산 관봉 갓바위 선본사(주지 성본)가 주최하는 '제14회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음악회'가 10월 17일~19일 갓바위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행사 3일간은 스님들의 법문이 열려 주목을 끌었다. 10월 17일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팔공산 관봉 갓바위 선본사 자락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야단법석을 열게 됨에 감사하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갓바위가 기도처 도량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나눔의 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18일에는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의 법문과 10월 19일은 갓바위 선본사 주지 성본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1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통일북소리 등의 공연과 합주, 장기자랑, 음악회 등이 이어졌고 생활도자기, 소원연꽃 등 컵 만들기 체험부스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소원나무 소원지달기, 갓바위 일원 소원성취 등 반대회 등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공당 정무 대종사 3주기 추모음악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10월 17일 법왕문화관 3층 법당에서 원공당 정무 대종사 스님을 기리는 3주기 추모음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중스님들과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법의 진리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사 스님의 감사함에 더욱 머리가 숙여진다"면서 "포교의 1인자 부르나 존자가 되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 따라 깊어가는 가을날 스님을 그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머나먼 포교의 길로 묵묵히 가고자 한다"며 스승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추모음악회는 대구불교방송 '아름다운 만남' 진행자인 효민 스님이 사회를 맡고 도신 스님과, 심진 스님, 상정 스님, 수월 스님 등이 출연했다. 그리고 국악가수 권미희 민속춤에는 유희연 포교사, 우담바라 합창단, 연합합창단, 해오름사물단 등이 공연무대에 올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행원승가연합회, 자연사랑 실천

행원승가연합회(회장 도경)는 10월 19일 대구 남구 앞산 충혼탑 앞에서 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줍고 자연 정화를 '화두'로 회원스님들과 법석을 가졌다.

회장 도경 스님은 "일상생활의 습관화 된 삼독, 삼업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리고 부처님처럼 하심으로 순수 보시행을 하자"며 "오늘이 자연사랑, 마음청정, 행선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3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앞산 등반객들에게 음료수, 떡, 장갑, 머플러 등을 보시하며 자연사랑과 마음청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행원승가연합회는 종단종파를 초월한 대구경북 지역 스님들의 모임으로 '자연사랑 · 마음청정 · 행선'을 목적으로 2014년 5월 19일 창립됐다. (053)581-0233

손문철 대구지사장

통도사-코레일, '힐링 기차 캠프' 출시

지역관광 및 여행문화 활성화 MOU 체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와 코레일이 의기투합해 기차여행 상품 '다 · 가 · 치(茶 · 歌 · 致) 힐링캠프'를 내놨다.

10월 22일 통도사가 지역 관광발전 및 신개념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방창훈)와 체결했다.

다 · 가 · 치 힐링캠프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KTX 및 연계차량을 포함, 통도사 관람은 물론 통도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선 · 사찰음식 실습, 자연건강 숲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함께 당일치기로 진행되는 자유투어는 KTX와 연계차량이 포함돼 통도사 관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측은 올해 7월부터 힐링캠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력해 왔으며 9월 다 · 가 · 치 힐링캠프와 자유투어 프로그램을 KTX 여행프로그램으로 등록했다.



이번 협약은 통도사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국내여행 프로그램 컨텐츠를 공동개발, 양측간의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힐링캠프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창훈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통도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 및 통도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통도사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이 공동개발한 다가치 힐링캠프와 자유투어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http://www.letskorail.com)에 게시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연제구 내 사찰 단합…지역활동에 진력

부산 연제구불교연합회 조직 재정비

부산광역시 연제구불교연합회 제2대 회장으로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이 취임했다. 10월 23일 연제구청 강당에서 거행된 연제구불교연합회장 및 신도회장 이 · 취임식에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연제구연합회 초대회장 원광 스님(정수사 주지)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허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심의 도시 부산, 그중에서도 연제구는 행정의 중심이다. 그간 부산은 불교계 주요 행사의 주축이 되어 활동해 왔지만 정작 연제구 지역 내에서 함께 모여 일을 도모하는 것은 미비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계기로 연제구 지역 내 포교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제구불교연합회는 1993년 초대회장인 정수사 원광 스님을 포함한 연제구 내 20명의 스님으로 결성됐다. 그 후 지역 내 무료급식, 불자장학사업 등 소외이웃을 위한 활동에 진력해 왔으며 올해 6 · 7월



혜원정사에서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제2대 회장으로 원허 스님을 선출했다.

이번 취임식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연제구불교연합회는 회장인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를 중심으로 수석부회장 보당 스님(보국사 주지), 사무총장 진각 스님(송광정사 주지), 법승 스님(화엄사 주지), 해성 스님(용화사 주지), 건우 스님(법경사 주지), 법호 스님(정토사 주지), 도명 스님(소원사 주지) 등 총 8명의 스님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연제구불교연합회장에는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내 삶의 전환점 대비주를 만나다!

一山 법상스님 구미 대비주 법회

일 시 ▌2014년 11월 9일 (일) 오후 1시 20분 ~ 5시
장 소 ▌구미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 TEL 054-454-6601/5)
내 용 ▌대비주 수행법문, 대비주 49독, 축원, 합동천도재
동 참 금 ▌1인 1만원, 설판재자 1인 35만원, 영가1위 35만원
차량운행 ▌일산 덕양선원에서 07:30 출발
문 의 ▌덕양선원 031. 907. 7172. / 구미 수행회 도연 010. 3531. 7500

구미 대비주 수행회

경기도 일산의 〈덕양선원〉을 본원으로 하고 구미/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대비주 수행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출범한 수행단체입니다.

대비주 수행도량 덕 양 선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메리트원 BD 607호 (031.907.7172)
다음카페 http://cafe.daum.net/zeol



덕양선원 一山 법상스님은

2004년부터 시작된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금년 4월에 회향하고 2024년까지 새로운 10년 결사에 돌입,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시는 대비주 수행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저녁 7시 30분)마다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 대비주 수행 지도법사 (2005년 ~ 2013년 12월)
○ BTN불교TV '대비주 수행' 강설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 저서 : - 다라니 수행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다라니의 힘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내 생애 단 한번 뿐인, 오늘 (수행예화집 / 10,000원)
-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엮음 / 12,800원)
○ 음반 CD : 신묘장구대다라니 음반 (10,000원)

'대비주 수행'이란?

대비주(大悲呪/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하며 대비주(大悲主/자성불 참나 주인공 등)로 사는 수행입니다.

대비주 수행은 스스로 밝고 주위를 밝힙니다. 위로는 조상님과 수평으로는 가족들과 깊은 인연들, 아래로는 자식과 후손들이 해탈하고 성취하는 수행입니다.

一山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과 〈자성불 수행〉은 남녀노소 빈부차별 직위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행이며,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대원을 향하여 최상의 길을 여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입니다.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오늘날 一山 법상스님의 서원이 되어 펼치는 '대비주 수행'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수행을 함께 합시다.

비로자나불 향한 발원… 속세 시름은 저만치

기도사찰을 찾아서

④ 공주 마곡사(자비광명기도도량)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전경. 우측에 보이는 석탑이 원나라 라마교 영향을 받은 보물 제799호 오층석탑이며, 왼편에 우뚝 솟은 건물이 삼세불을 함께 모신 대웅보전이다.


대웅보전의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마곡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백범기념관

'춘마곡 추갑사' 는 말이 전해 질 정도로 봄의 경치가 뛰어나다는 마곡사. 완연한 가을에 찾은 마곡사는 봄 풍경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태화산 일대의 소나무 숲이 이어주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가다보면 금세 산굽이가 이어져 어느새 사찰에 닿게 된다. 굽이굽이 길에 실려 흔들려 가는 맛이 또 다른 정취를 낳는다.

마곡사는 사계절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입구에서 내리면 산사의 호젓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마곡사 만의 장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마곡사가 위치한 절묘한 자리 덕분이기도 하다. 마곡사가 있는 곳은 태극형이라 하여 택리지에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의 하나로 꼽힌다. 절을 둘러싸고 계곡물이 휘감아 돌며 천왕문 앞에서 만나 흘러내려가니 좁은 가람구조를 극복하는 탁트인 계곡으로 인해 절로 속이 시원해진다.

마곡사는 정확한 창건연대가 전해지지 않는다. 여러 설이 있지만 신라 말 보조선사 체징 스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전해온다. 장곡, 마곡, 안곡 또는 삼 골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무염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절을 지을 때 은사인 마곡보철 스님을 존숭하는 뜻에서 이름했다는 설, 또 절을 짓기 전 마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혹은 절 중창 이후 불자들이 삼을 심은 듯 빼곡히 들어차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전해 내려온다.

마곡사는 고려 전기까지 폐사된 채 도둑떼들의 소굴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후 1172년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제자 수우 스님과 함께 왕명으로 중창했다. 당시 지눌 스님이 이곳에 있던 도둑떼에게 떠나라 했으나 이들은 오히려 지눌 스님을 헤치려 했고, 스님이 도력으로 호랑이 떼를 끌어 모으니 도둑들이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한다.

중창 당시 가람은 지금의 곱절이 되는 크기였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타 60년 동안 방치됐다. 1651년 각순 스님이 대웅전 등을 중수했다.

비로자나불 자비광명 기도 이어지는 곳

마곡사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 바로 가람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개천이다. 이 개울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별도라고 할 만한 가람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북쪽에 위치한 비로자나불을 돋보이게 한다.

보물 제802호인 대광보전 안에 들어서면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법당 서편에 동쪽을 향한 자세로 모셔져 있다. 이런 배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서처럼 주불인 아미타불이 서방정토를 향해 앉아 있는 방식인데, 이 곳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서쪽을 향해 앉아 있어 드문 예로 꼽힌다. 물이 흘러가는 곳을 바라보는 비로자나불의 그윽한 모습은 기도객들의 발길을 저절로 이끈다.

비로자나불은 진리와 광명을 상징하는 부처님이지만 특별한 설화로 인해 이 곳에서는 기도가 이어진다. 대광보전 안에는 참나무돗자리가 깔려있는데 여기는 앉은뱅이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어떤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비로자나불에게 기도하기를 "참나무로 정성을 다해 자리를 짜 드리겠으니 다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라며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하며 참나무 껍질로 정성스레 자리를 짜다보니 마침내 100일이 되었고, 그날 앉은뱅이는 자리짜기를 완성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평의 자리를 짜고 나자 그의 정성에 부처님이 감복했는지 앉은뱅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까. 많은 이들이 아직도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비로자나불 상주하며 지혜와 자비 전해
앉은뱅이 전설 얽힌 '돗자리' 눈길
김구 선생 기리는 기념관 경내 세워져

과거 · 현재 · 미래가 공존하는 대웅보전

기도가 진행되는 대광보전의 뒤로는 지붕 하나가 불쑥 솟아 보이는 전각이 있다. 바로 대웅보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중층건물로 내부는 통층으로 뚫려있다. 내부는 더욱 독특하다. 가운데의 석가모니불을 위시로 서쪽에는 아미타여래, 동쪽으로 약사여래를 모셔놓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이다.

이 대웅보전 안에도 역시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지는 요소가 있다. 손때 묻은 윤기가 자르르한 싸리나무 기둥 네 개가 그 주인공이다. 두아름 굵기의 기둥으로 팔로 안고 한바퀴를 돌면 3년씩 더 산다는 말이 전해진다.

처음에는 나무 빛깔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반들반들하다. 이 윤기는 바로 사람들이 기둥을 붙들고 돌기 때문이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마곡사 싸리나무 기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고 물어, 많이 돌았을수록 극락길이 가깝고 아예 돌지도 않았다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전해진다. 다른 민간속설도 전해진다. '싸리나무 기둥을 잡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는 말이 그것이다. 싸리나무 기둥은 점점 허리가 잘록해져가고 있다.

여러 종교 문화요소 곳곳에

마곡사는 기도와 함께 여러 종교의 문화 요소를 곳곳에 숨겨놓고 있어 이를 찾아보는 재미를 더한다.

보물 제 799호인 마곡사의 오층석탑은 독특한 양식으로 유명한데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탑은 우리나라 전통양식과 달리 높은 이중기단 위에 높게 서있고, 지붕돌이 폭이 똑같다. 무엇보다 탑의 맨 윗부분에는 라마교 장식인 둥근 풍마동이 얹혀있다. 한국과 중국,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탑의 네 면에는 사방불이 양각돼있다. 동서남북을 포괄해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상주한다는 메시지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굴뚝으로 꼽히기도 하는 대광보전 옆의 기이한 굴뚝도 볼거리다. 가톨릭 박해 당시 가톨릭 신자들이 마곡사로 피신해 살았는데 당시 기와를 구워 흙과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

마곡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기거한 곳과 삭발터가 있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장교 쓰치다를 황해도에서 살해하고, 살인범으로 찍혀 인천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탈옥한 백범 김구 선생은 잠시 마곡사에 숨어 승려를 가장하며 살았다. 법명이 원종이다.

마곡사에 있는 백범기념관은 김구 선생을 기리고 있다. 벽에는 김구 산생의 사진과 친필휘호가 걸려있다. 서산 대사의 어록으로 김구 선생이 자주 쓰던 말이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김구 선생은 항상 이 말을 가슴에 담고 후세들에게 이정표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한 앉은뱅이부터 민족의 등불이 된 김구 선생의 이야기처럼 마곡사는 정진에 대한 하나의 울림을 선사한다. 수많은 화마에도 벽돌 한 장, 나무 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 지금의 마곡사를 이룬 노력과 함께 현재도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불자들의 모습이 그 것이다.

공주 마곡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는 길

공주에서 공주대교를 넘어 32번 국도를 따라 예산(유구) 방면으로 15.7㎞ 가면 사곡 면소재지인 호계리에 이른다. 호계리를 벗어나는 지점 오른쪽에는 5번 시도로가 나 있다. 이 길을 따라 8.6㎞ 가면 마곡사에 이른다. 최근에는 고속도로가 뚫려 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마곡사 IC와 유구IC가 가깝다.

주변 볼거리

마곡사 주변에는 영은암, 대원암, 은적암, 백련암, 청련암, 부용암, 북가섭암 등 부속암자가 즐비해 솔바람 속의 백범 명상길과 함께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곡사 백범 명상길은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며 산책하던 길로 3개 코스의 명상길을 다듬어 내방객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


마곡사에서 명상길로 가는 초입의 계곡길

△제1코스 '백범 명상길' (3km) : 마곡사(백범 식수 자리) – 김구 선생 삭발바위 – 군왕대(기 체험장) – 마곡사

△제2코스 '명상 산책길' (5km) : 마곡사 – 천연송림욕장 – 은적암 – 백련암 – 활인봉 –생골마을(약초마을) – 마곡사

△제3코스 '송림숲길' (11km) : 마곡사 – 천연송림욕장 – 은적암– 백련암 – 아들바위 – 나발봉(황토숲길) – 전통불교문화원 – 다비식장(죽음 체험장) – 장군샘(옻샘) – 군왕대 – 마곡사

명상길에 있는 군왕대는 마곡사에서 기가 가장 강한 곳으로 군왕이 나올 만하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말기 몰래 무덤도 많이 썼는데 이후 유골을 모두 파내고 지금은 돌과 흙으로 채웠다.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한다. 세조가 마곡사에 왔을 때 이 군왕대에 올라 "내가 비록 왕이지만 만세불망지지(萬世不亡之地)인 이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라며 한탄했다고 한다.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시옵니까.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시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 좌 번 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1 대번


2 상단,중단,하단 위패


3 시왕단


4 26위판관 / 37위귀왕


5 사자단


6 고사단


7 영단


8 금란방, 정제소


9 예수시왕도량


10 일백사위 사화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

탑의 진화
㉑ 일본의 불탑(1)

양식은 韓·中서, 재료는 목탑 압도적

일본은 6세기에 한반도와 중국으로 부터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한반도와의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은 538년 백제 성왕(聖王) 때 도장(道藏)스님이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성실종(成實宗)의 개조가 된 시점부터 나타난다. 그 이후 관륵(觀勒)스님을 비롯하여, 혜총(惠聰), 도림(道琳), 담혜(曇慧), 혜미(慧彌) 스님 등 많은 백제의 스님과 고구려의 혜자(慧慈), 담징(曇徵)스님 등으로부터 불교사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워 일본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불탑신앙의 수용도 병행되어 일본불교 역사에서는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불탑들이 많이 조성됐다.

특히 쇼토쿠태자(574~622)의 업적은 초기 일본불교문화의 초석이라고 할 만큼 지대한 것이었다. 그는 고구려의 혜자 스님과 백제의 혜총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불교를 배우고 이를 널리 포교하기 위해 법륭사(法隆寺)와 사천왕사(四天王寺) 등 40여개의 사찰을 건립하고 각 사찰에 불탑을 조성했다는 기록은 '일본의 아쇼카왕' 이라 칭할 만큼 대단한 것이다.

쇼토쿠태자 이후 일본에서의 불탑조성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데, 형식과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중국불탑의 영향을 받았지만, 재료에 있어서는 목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기후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여름은 대부분 길고, 매우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유연성이 있는 목재가 주종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달리 동절기와 하절기의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재의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아스카 시대(飛鳥時代 : 593~710년)에 조성된 목탑들이 1,30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원형의 형태로 현존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일본의 불탑은 나무를 재료로 조성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불탑을 분류할 때, 석탑, 목탑, 전탑 등 '재료' 적인 분류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형식' 적인 분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불탑의 형식상 분류는 대략 30종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본 글에서는 일반화된 10여종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번 호에서는 다중탑, 다층탑, 보탑, 다보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다중탑(多重塔)

일본의 불탑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다중탑은 탑신이 여러 개인 탑을 말하는데, 그 개수에 따라 삼중탑, 사중탑, 칠중탑, 구중탑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탑의 층수를 표현할 때는 지붕돌인 옥개석이 몇 개냐에 따라 3층탑, 5층탑, 7층탑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옥개석 사이에 탑신이 있으면 '층탑' 이라고 안하고 '중탑' 이라는 표현을 한다. 이러한 중탑의 상륜부에는 노반(露盤), 복발(覆鉢), 윤형(輪形), 수연(水煙), 용차(龍車), 보주(寶珠)를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며, 보통 윤형은 9개로 연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8개의 경우도 있다. 탑의 기단은 사각형이 주종을 이루고 6각, 8각, 원형의 형태도 있으며, 재료는 목재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석조나 와제(瓦製), 동제(銅製) 등도 있다. 가장 오래된 다중탑은 법륭사 5중탑(法隆寺 五重塔)**〈사진1〉**이다. 나라시에 소재한 법륭사의 창건 시기는 607년이라 알려져 있으며 5중탑은 '아스카양식' 으로 약 68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스카양식' 이란 일본에서 7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당시 정치의 중심이 나라분지 남쪽 아스카(飛鳥)지역 이었으므로 이시대의 문화양식을 말한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도, 문물 등을 수입하여 일본 국내의 제반 체제를 혁신한 것이 특징이다. 백제의 영향을 받은 법륭사의 5중탑은 옆에 있는 금당과 함께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1993년에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등록되었다.

이 목탑의 구조 중심에는 거대한 심주가 있는데, 우리나라 목탑의 심주와는 다르게 탑을 지탱하고 있는 기능 보다는 탑 꼭대기에 있는 상륜부의 금속 장식인 철반을 지지하기 위함이고, 탑은 다른 작은 기둥들과 공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 목탑은 높이는 31.5m이며,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다. 체감률이 크기 때문에 5 층은 1층 면적의 절반 크기이다.

또 다른 목조다중탑의 예로는 약사사(?師寺) 동서쪽 쌍탑을 들 수 있다. 약사사는 나라시에 위치한 유명한 불교 사원으로 법상종의 본산이다. 본존불로 약사여래(?師如?)를 모셨기 때문에 절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973년에 화재로 사찰건물의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1528년의 화재로 금당이 소실되었다. 오랜 복원불사 끝에 1976년에 금당이 재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절 전체가 복원된 상태이다. 이 절의 쌍탑 중 동탑(東塔)**〈사진2〉**은 약사사의 유일한 8세기 때의 건축물이다. 이 동탑은 이중 기와형식으로 얼핏 보면 6층으로 보이는 3중탑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나라지역의 불교문화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탑상부의 수연에 투각 장식된 24명의 비천은 피리를 불고, 꽃을 뿌리고, 옷을 휘날리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맑은 하늘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습**〈사진3〉**은 참배하는 이들에게 큰 불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는 전면적인 보수공사 중으로 가림막에 덮여 있어 직접 참배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2) 다층탑(多層塔)

다층탑은 다중탑처럼 보이나 다중탑과 다른 점은 최하층의 탑신을 크게 조성하고, 이층 이상은 탑신을 거의 생략하며, 지붕에 해당되는 옥개를 중첩시키는데 있다. 중첩된 옥개에 의하여 삼층탑, 오층탑, 칠층탑, 구층탑, 십삼층탑 등으로 분류된다. 이 형식의 탑은 목조보다는 석조로 만든 것이 많으며, 가마쿠라시대(鎌倉:1185~1333)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다층탑의 특징 중 하나는 일층 탑신에는 동쪽에 아축불(阿?佛), 남쪽에 보생불(寶生佛), 서쪽에 아미타불(阿彌陀佛), 북쪽에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의 금강계4불상(金剛界 四佛像) 등을 표시 한 것이 많으며, 반야사13층석탑(般若寺十三層石塔)**〈사진4〉**, 동복사13층석탑(東福寺十三層石塔)은 이러한 다층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반야사13층석탑은 높이가 14.2m로 가마쿠라시대 중기인 1253년에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탑이다. 이 탑의 1층 탑신에는 동쪽의 약사불, 서쪽의 아미타불, 남쪽의 석가불, 북쪽의 미륵불의 조각이 뛰어나며, 총 무게가 약 80톤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3) 보탑(寶塔)

보탑은 기단 위에 복발이라고 부르는 반구형을 상단의 상륜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 형상은 인도 산치탑의 '안다' 와 유사하다. 이러한 보탑은 밀교의 전래와 함께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탑신에는 일반적으로 대일여래, 아미타불, 석가여래, 다보불의 사불(四佛)이 조각되고 있다. 기단과 옥개는 방형과 원형의 형상을 주로 한다. 보탑이라는 명칭은 다보탑의 약칭으로 쓰이기도 하며, 보배로 장식한 탑이라는 의미도 있다. 강호(江戶)시대인 1756년에 조성된 동경(東京)의 안락사보탑(安樂寺寶塔)**〈사진5〉**은 높이가 10.85m로 1중방형보탑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4) 다보탑(多寶塔)

우리나라에서의 다보탑은 불국사의 경우처럼, 법화사상 즉, 〈법화경〉 '견보탑품' 의 경설에 의거하여 조성되었으나, 일본에서의 다보탑은 법화사상과는 상관없는 진언종(眞言宗)의 사찰에서 조성되고 있다. 그것은 다보탑 내부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대일여래를 주불로 봉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탑에 상요(裝腰)라 하여 탑신에 아름다운 곡선의 장엄구조를 조성한 형태로 근강(近江)의 석산사다보탑(石山寺多寶塔)**〈사진6〉**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진1〉
가장 오래된 다중탑인 법륭사 5중탑


〈사진2〉
약사사 쌍탑 중 동탑(東塔)은 약사사의 유일한 8세기 때의 건축물이다.


〈사진3〉
약사사 동탑 탑상부의 수연에 투각 장식된 24 비천

〈사진4〉
일본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 반야사13층석탑

〈사진5〉
강호시대인 1756년에 조성된 동경의 안락사보탑


〈사진6〉
탑신에 아름다운 곡선의 장엄구조를 조성한 근강의 석산사다보탑

6C 불교 전래 과정서 불탑신앙 수용
'일본의 아쇼카' 쇼토쿠태자 업적 지대
백제 고구려로부터 불교 · 문화 배워

목재 내구성 탁월해 원형 보존 가능
재료적인 분류보다 형식적인 분류 우선

법륭사 5중탑 세계最古 목조건축물
일본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야사 13층석탑 세계 最大…무게 80t
보탑 양식…인도 산치탑의 '안다' 와 유사
일본의 다보탑은 법화사상과 무관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봉행



세계최초 해상법당 반야용선 점안식 및 방생용왕대재

• 일시 :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반야용선사 해상법당 반야용선

세계 최초의 지혜의 배, 반야용선을 조성해서 만 중생들의 소원성취를 이루어주고, 참된 지혜와 깨달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피안(彼岸)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기 위함입니다.

반야용선(般若龍船)이란,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타는 배를 말합니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진리의 지혜)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法)을 통달하여 일체(형상)의 것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미타불의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이 영가를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가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이르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반야용선(般若龍船)을 타야만 아미타불이 기다리는 극락(極樂)세계로 간다고 합니다. 서방극락정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야용선을 꼭 타야만 하기 때문에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타기를 원합니다.

운문사 비로전 천정을 보면 반야용선과 반야용선을 타려고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악착보살(불교경전에 나오는 보살의 이름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생에 기필코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악착같이 용맹 정진한다고 하여 악착보살이라고 하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어느 옛날 청정하고 신앙심 깊은 이들을 서방의 극락정토로 인도해 가는 반야용선이 도착했을 때 이 용선을 타야 할 어떤 보살이 자식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로 그만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보살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선이 떠나가고 있었기에 보살은 용선의 밧줄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서방극락정토로 갔다고 합니다.





큰 지혜로써
피안(깨달음의 세계)의 세계로
반야용선이 이끄는 지혜의 배
피안으로 가는 자비의 손길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서방극락정토에
가세 가세
극락왕생 하세
부처님과 보살님과 함께 가세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가세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183번길 4 반야용선사
전화 055)862-9841 / 팩스 070-8677-9841
주지스님 010-6483-2565 / 이메일 banyaship@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용선사 주지 동운 합장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5〉 영축산 통도사 영산전

불보살과 자비의 敎海

〈교해〉

천정은 일체유심조의 마음이 빚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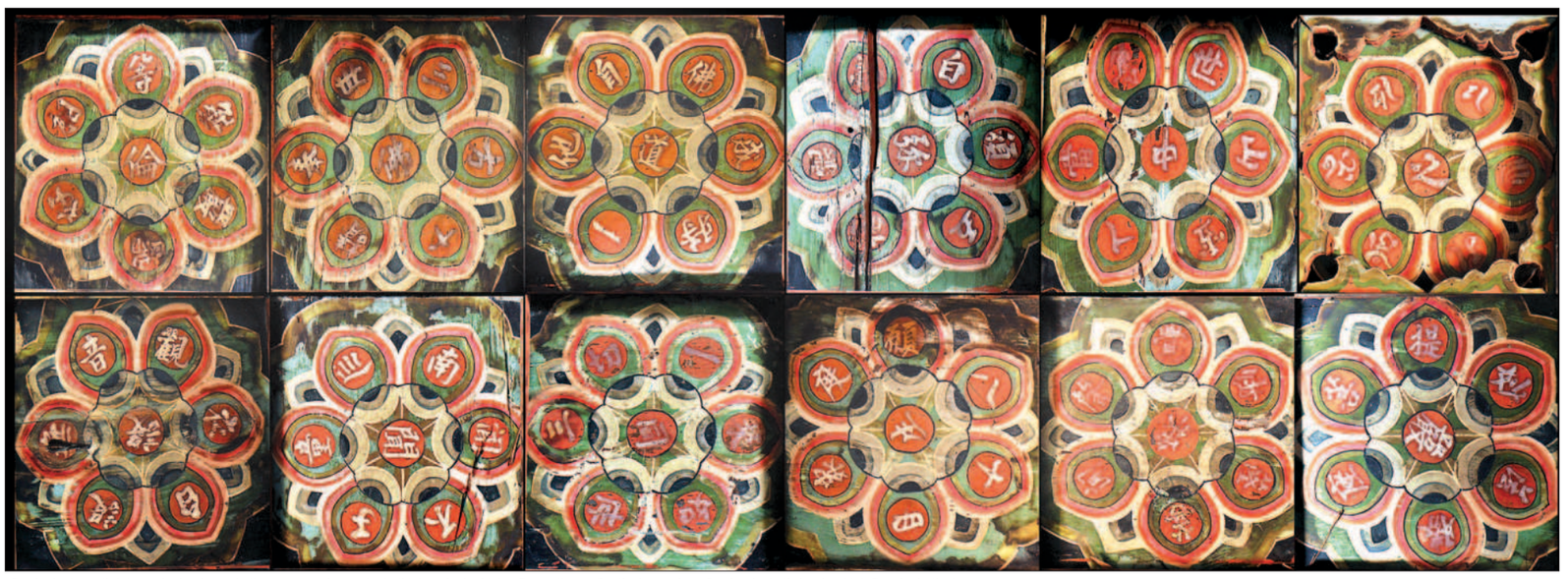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의 천정(天井) 세계는 일반적으로 장엄(莊嚴)세계다. 구상과 추상, 상징들의 회화와 조형, 문양들로 조화롭게 짜여 있다. 실내의 어둠과 깊이에서 시간에 따라 드러나고 잠기면서 때론 거룩하게, 때론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머리 위에서 밤하늘의 은하처럼 빛난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궁륭천정에는 성경 속 서사의 프레스코화로 가득하며, 고구려벽화고분 천정엔 도교적 신들의 세계와 별자리, 생활풍속화, 생명력의 기운이 흐르는 신령의 문양들로 빼곡하다. 그 세계는 단순히 꾸며놓은 평면적 회화세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철학이며 종교이고, 숭고한 아우라의 정신세계다. 한 시대, 한 사회의 총체적 삶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일체유심조' 의 마음이 그 세계를 창조했다.

현존하는 한국의 불전건물 대부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치명적 전란을 거친 16세기 이후의 건축물이다. 사회적 기반이 거의 무너진 사회경제적 조건은 한 사찰에 하나의 중심불전 정립을 정착시켰다. 대웅전, 극락전 등이 한 건물에 통합되었고, 건축역량도 중심불전건물에 집중되었다. 우물천정 칸칸에도 정화된 일체의 마음이 작용했다. 사회 저변에 흐르는 민중의 염원과 불교의 화장세계(華藏世界), 그리고 거룩한 진리, 엄숙한 신성, 부드러운 자비를 집합적 군집의 형태로 표출했다.

진리가 갈무리 된 범자종자불

칸칸은 독립된 하나의 독자성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는 프랙탈기하학의 생명생성 원리가 전개되었다. 천정은 평면이면서 중중(重重)의 공간세계다. 깊고도 중층적인 상의(相依)의 세계로 펼쳐졌다. 삼천대천의 화엄세계다. 칸칸이 불교세계관의 종자를 심었다. 범자종자불 씨앗을 뿌렸고, 여래장 불성(佛性)을 심었고, 부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갈무리해서 내장하였다. 우물반자 격자 틀을 불성의 논밭으로 일구었다. 그 밭에서 성스러운 불성들이 불립문자로 돋아났다.

그를 키운 건 자비의 봄이었고, 적멸의 침묵이었다. 무위의 봄이 천정 칸칸에 함장되어 있었다. 봄은 머무는 바도, 머물지 않는 바도 없다. 오고 감도, 형상도, 소리도 없다. 그런데 뭇 생명을 소생시키고 기른다. 봄이 부처고, 부처가 봄이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대지는 정토(淨土)다. 봄의 대지엔 대지를 뚫고 돋아나는 신명의 새싹들로 금이 가고, 쇄빙선이 지나는 파열음으로 진동한다. 신선한 생명의 풋내가 천지에 가득하고, 생명의 나무에 우화(雨花)의 꽃이 핀다. 여섯 가지 상서로운 법화육서(法華六瑞)가 일어난다.



육엽연화문에 불보살의 상주법계는 물론이고 사시예불, 장엄염불, 옹호게 등 유례없는 미증유의 진리게송과 염불을 장엄했다.

한자음역 육자진언, 중생 근기 맞춰
불보살의 불생불멸 상주법계 드러내

천정장엄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

봄이 세간의 대지에 오듯이 부처께서 번뇌 등 다섯 가지 흐린 오탁악세(五濁惡世)의 예토에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출현하신 뜻도 바로 그러함 때문이다.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고(開), 지견을 보이고(示), 깨닫게 하여(悟), 해탈에 들게 함(入)으로 일체종지의 정토로 제도하기 위해 출현하신다.

그런데 중생 저마다가 가지가지 욕망과 집착으로 저마다 다른 성품과 근기를 가져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 방편으로 쪼개고 나누어서 병따라 처방하신다. 천정의 화장세계도 고차적 관념인 불성의 조형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꽃이 꽃이 아니고, 문자가 문자가 아니다. 불가설불가설의 불교 세계관을 고도로 압축한 상징이자 메타포다. 그래서 천정장엄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난해하고, 제 눈의 안경이 되기 십상이다. 불화처럼 천정장엄에 대한 화기(畵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정장엄에 대한 교의적 바탕이 되는 소의경전(所依經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자니 천정의 꽃만 보면 그나마 교의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화경〉 서품에 나오는 '우화의 상서' 라고 단정짓곤 한다. 그것은 국화를 아는 사람이 모든 꽃을 국화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통도사 영산전 천정장엄은 천정장엄세계의 풍부함과 광대무변(廣大無邊)함, 철학적 깊이의 실상을 낱낱이 자내증으로 드러내고 있어 불교미술사학과 천정장엄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중생의 다양한 표정처럼 격자의 교점마다 시들지 않는 자비의 마중물로 가지가지 형상의 꽃을 얹었다.



삼라만상의 순환, 회전, 대칭의 코스모스적 운행을 표현했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의 화엄법계를 이룬다.

자전과 공전처럼 회전 속 회전

영산전은 통도사 적멸보궁, 부석사 무량수전, 마곡사 대광보전처럼 두 축을 갖추고 있다. 출입동선은 남북방향인데, 예배공간은 90도 꺾인 동서방향이다. 천정양식은 상하2단 층급우물천정이다. 사방 가장자리 천정의 우물칸 수는 124칸이고, 중앙의 상층에 경영된 우물칸 수는 156칸으로, 총 280칸 우물반자 칸칸에 모란, 넝쿨형 신령의 꽃, 그리고 6엽연화문을 베풀어 풍부하고 독특한 벽화와 함께 미증유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앙칸 천정은 밀교적 금강계만다라의 오대오불(五大五佛)의 세계이다. 붉은 바탕의 천계에 노란 생명의 줄기가 소용돌이처럼 감겨 나가고, 주간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의 힘이 뻗쳐나가 역방향으로 돌아나간다. 만유의 자전과 공전처럼 공전 속에 자전을, 회전 속에 회전을 반복한다. 가운데 금니 씨방부분은 자등명으로 미어터져 여기저기서 봄의 생명력이 폭발한다. 삼라만상의 순환, 회전, 대칭의 코스모스적 운행이 아름다운 오방색 색채로 축소조영되어 있다. 그 조영은 한없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며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의 화엄법계를 이룬다. 그것은 천상 설레임 같은 미묘본심이 일렁이는 봄의 대지를 닮았다. 봄은 오고가지만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다.

순환, 회전, 대칭의 코스모스적 운행
칠언절구 문학적 운율 갖춘 게송 표현

유기물 원자의 공유결합 같은 법계

사진가인 나는 영산전을 숱하게 찾아가서 천정에 새겨진 조형문자와 문양들을 낱낱이 영상에 담았다. 나의 주목을 끈 것은 영산전 가장자리 천정, 그 중 동서 양협칸 천정 84칸의 우물반자에 베푼 6엽연화문의 문자종자들이었다. 문자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를 인내력을 갖고 빠짐없이 분석해 보았다. 그 세계는 차마 놀라왔다. '옴마니반메훔' 의 범자진언은 물론이고, 한자로 음역된 육자진언도 있어 중생의 근기에 맞춰 조영의 뜻을 전달하려는 언어학적 관용과 방편에 경건함을 자아냈다. 6엽연화문은 평면회화가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4중의 중중구조를 지닌 입체다. 맨 아래에 아직 분화되지 못한 미혹의 검은 꽃잎이 있고, 그 위에 여러 불보살과 경전의 진리가 펴져 법계를 이룬다. 여섯 꽃잎 위에 여섯 개의 보주입체가 유기화합물 원자들의 공유결합처럼 원자쌍으로 결속해서 새로운 맹아를 구축하고 있다. 종자범자나, 칠언절구의 마지막 글자를 얹어 한 칸을 일단락 지었다. 법열의 가지가지 형상은

중생의 가지가지 표정처럼 격자의 교점에 화룡점정으로 얹었다. 시들지 않는 자비의 마중물이 적멸의 세계에서 별처럼 빛난다.

헌좌진언, 장엄예불 미증유의 표현

여섯 종자, 혹은 일곱 종자로 드러내고 있는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광대하다. 이러한 작법은 어느 불전장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사의(不思議)한 미증유의 신통력이다. 무엇보다 먼저 빈번하게 출현하는 세계는 불보살의 세계다. 석가모니,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지혜, 공덕을 총섭해서 부처의 만다라, 곧 불국토를 펼쳐두었다. 청정도량에로의 봉청(奉請)의 뜻도 담겨 있다.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과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 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주법계를 자내증으로 내보인다. 석가모니와 아미타여래, 관음보살은 대승적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풍부하게 장엄했다. 특히 불전건물의 성격에 상응하여 〈법화경〉 서품과 영산회상의 상서도 빠트리지 않았다.

불생불멸의 상주법계를 정법안장한 후, 사구게나 칠언절구의 문학적 운율을 갖춘 여러 게송과 진언으로 진리법을 드러냈다. 법(法)의 공덕과 법의 장엄(莊嚴)이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더해져 적멸의 고요함은 보다 은유적으로 내밀화 하였다. 법화경 사구게, 예불문, 사시예불의 〈헌좌진언〉, 〈장엄예불〉, 〈공양게〉,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아미타불 〈관불게〉. 예수재 〈옹호게〉,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시련 〈옹호게〉 등 장엄의 영역은 무시무종 광대무변으로 펼쳤다. 실상은 천정의 개념을 완전 비우고 여읜 진리의 바다다. 불보살의 상주법계이며, 자비와 경전의 바다, 교해(敎海)다.

〈금강경오가해〉에 나오는 종경스님의 게송 한 구절이 천정에서 빛난다.

천강유수천강월(千江流水千江月)
만리무운만리천(萬里無雲萬里天)

천 강에 물이 있으니 천 강이 달이요,
만 리에 구름 걷히니 만리의 하늘이도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MAI ★ 미얀마 항공 취항 특가 ★

▶ 만달레이 / 바간/헤호 / 양곤 11월 18일 / 11월 25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나고 죽는 것이 장난에 지나지 않아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⑤

솔직한 말로 태양이 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환하기 때문에 태양이 환하게 뵈는 겁니다. 지금 캄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쨌든지 말이지 지금 캄캄해.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 뵈는 건데, 그러나 캄캄하다느니 환하다느니 이거 전부 경계놀음입니다. 경계. 그러나 캄캄한 걸 받아들일 수 있고 환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 캄캄할 수도 있어. 환할 수도 있어.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만 그대롭니다. 그대롭니다. 우리가 더 그거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공부가 다 됐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림을 하는 것은 별 문제에요. 공부는 다 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이 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은 낮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겠지요?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성도화보살, 말해보세요. 밤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낮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낮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밤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객관적인 조건, 이것이 낮도 되고 밤도 돼.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이래 되는데 전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 고귀한 자립니다. 그 자리 절대의 자립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립니다. 생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 들여.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의 행사입니다. 나는 것도 내의 권리의 행사고 죽는 것도 내의 권리의 행사거든요. 권리의 행사라요. 물론 그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고 환상놀이겠지만은 환상놀이를 함으로써 인간 생활을 우리가 엮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리의 행사라요. 나는 것도 내 권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만 부모가 났다 그래서 한 다섯 살 여섯 살 열 살 먹어야 난 줄 알거든요. 그러나 본래 그 자리를 이걸 갖다 탁 알아버리면은 나고 죽는 것이 전부 하나의 권리 행사, 장난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 진심자리를 알면은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둘러(돌아) 가지 맙시다. 둘러 가지 말아. 둘러 가도 가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둘러 갈라 하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하지만은 말이죠 아직까지는 몸뚱이를 가지고서 시공간이란 요런 관념이 남아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갑시다. 우리는 둘러 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을 합시다. 뭐

>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
> **시공간 개념 남아 있어요**
> **생사는 내 권리의 행사**
> **찾는 것도 버리려는 것도**
> **다 허공임을 알아야 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 뭣이고, 육조대사만 직행한 사람입니까. 직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저 업이 많기 때문에 업을 녹일라니까 자연히 고생을 좀 하는 것이지요. 하니 이것은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은 즐거운 고생이지 나쁜 고생은 아니거든요. 모른 사람들에겐 그것이 나쁜 고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나 업의 당처가 빈 줄 안다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업, 그 당처가 전부 빈 거예요. 참 이거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빈 거예요. 업의 당처가 빈 거예요. 빈 줄만 알아버리면은 아 그만 마음이 탁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면은 그만 업에 휘둘려 버립니다. 좋은 업이면 좋은 업에 홀려버리고 나쁜 업이면 나쁜 업에 홀려 버려요. 나 이거 어제 신문 보고 짜증이 나 죽겠습니다. 빌어먹을 부산 살지 맙시다. 부산 놈이 사람 서이나(셋이나) 죽였네. 아이구, 기가 막혀서 죽겠어요. 물론 업연과계이겠지요. 난들 알 턱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서이나 죽여서 돈 때문에 죽여서 자기 정원에 파묻었다니 아이고, 나중에 뭣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딱 깨놓고 그 사람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묶여서, 물론 사형감이지. 그건 우리가 벌주는 건 아니니까 말할 거 없고. 그 사람이 업의 당처가 빈 줄 안다면은 이 육신, 형무소에 들어앉아 사형집행 할 때까지 성불합니다. 나중에 이거 버리는 거 문제 아닌 거 아니라요? 언제는 우리가 안 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한 번 두 번만 버려봤나요. 우리가 수 억 천만 번 우리가 몸을 버렸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좀체 그 마음을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것이 인제 직행코스로 나가는 길인데 내가 말한 거. 그 흉악한 죄 아니에요? 삼도지옥 열 번 천번 만번 면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 해야 되고 모습으로 봐선 그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러나 저러나 그 당처가 빈 줄만 알아버리면은 이 사람도 이 육신 그대로 성불할 도리가 있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하니 우리 이래 합시다. 우리 직행으로 갑시다. 직행, 고속버스 타고 갑시다. 벌써 우리가 고속버스가 준비됐습니다. 됐으니 오늘 말이죠 마음의 소재(所在), 난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여기인가 저기인가 거기인가. 허공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여기 허공인가, 잡을라 해도 없고 피할라 해도 가도 또 허공이고 가도 허공이니까, 도대체 이거 어느 허공인고 우선 당분간 말이죠 몇 시간 동안 뭐 하겠지만 말이죠. 나중에 가서는 말이죠 아, 이 자리구나. 찾을라 한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버릴라 하는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마음 찾을라는 것 헛거 아니에요? 마음 버릴라는 거, 탐진치 버릴라는 거 헛거 아니에요? 사량 분별 망상 버릴라는 거 전부 헛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참 이건 우리가 인간 절대에 속한 문젭니다. 지구덩어리 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 버려놓고 이것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인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 길은 나왔죠? 그 길로만 다니면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간절히 염불하면 누구나 구제해줘

14-5 십념(十念)

'무량수불전' 에 하는 것은, 우주의 헤아릴 바 없는 대생명을 깨치신 그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일러다오. 그 분인즉 대자대비의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삼고 있는 아미타불이다.

'우러러 두 손 모아' 는 큰 서원이 깊은 그 부처님 앞에 귀명(歸命)한다. 목숨을 돌이켜 빌고 절 한다는 것. '원왕생 원왕생'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 나는 기어이 당신과 같은 그런 생애에 들어가 극락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것.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고' 이것은 흔구(欣求)라고 한다. 흔구정토(欣求淨土), 기꺼이 정토를 구한다. 그리움은 아까 말하였듯이 인간의 영원한 자세다. '사뢰어 주소서' 우리의 원행(願行)이 보은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절실히 느끼고 그 큰 사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는 이 사연을 일러 다오.

'이 몸 버려두고'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아미타불 당신인들 어찌 마음 편하고 자신의 덕을 이루실 수 있겠느냐는 말. 중생의 제도 없는 대자대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건질 사람 없는 구세주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생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구세할 주인이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원효대사의 논리로 볼 진데, 소공역공(所空亦空)이라는 제 3의 테제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답적(高踏的)인 교학의 진리나 어려운 현실의 중도(中道)는 우리들 고달픈 중생에게 힘에 겨운 일이므로 확실한 믿음을 얻어, 염불을 외우므로서 이행도(易行道)를 밟아 가자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 자신도 그렇게 말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지경을 말한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 어렵고 고달픈 일이 많은데 복잡하게 잡념을 일으킬 것 있느냐. 정신 통일하여 정성껏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자. 이런 생활이다.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염불수행을 하고, 몸도 목욕재계하고, 입을 양치질 하고, 뜻을 맑히고 이렇듯 기도하고, 정진하고, 성스러운 수도 생활을 하고, 성자 생활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우리가 비록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안태한 극락세계로 간다. 극락 상품(上品)으로 올라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생활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할 일 다한 것은 아니다. 현실을 옳게 파악하고 극락세계에 가 있는 것만 좋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왕생으로 사회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대사회성을 알고 그리로 나아가야겠다. 희망할 따름이 아니라 대사회성을 간파한 다음에는 그 지경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저 얼빠진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더 비근한 예로는 자식들을 위해, 일을 위해, 그 가엾고 어여쁜 것들을 위해, 악이라도 겁도 내지 않고,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데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재로운 활동으로 제도 사업을 벌려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염불하는 사람의 보은 ·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 **미타의 대본원력은 수승한 힘**
> **아미타불 간절히 부르면**
> **시방세계 광명 두루 비추어**
> **금빛 찬란한 손길 내밀어준다.**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의식을 깨친 사람의 대사회의 생명을, 사명을 이룩해 나가는 자리인 것이다.

대사회의 사명을 이룩해 나간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사의한 수승(殊勝)의, 아주 뛰어난 원력(願力)에 의하여서 이 지경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것을 나무아미타불, 칭명 염불하는 가운데 얻어진다. 비상한 원력이 이에서 솟아나고, 우리는 보은 · 감사의 지경에 도달한다. 이것이 다음에 말하는 섭취게(攝取偈)란 것이다.

15. 섭취게(攝取偈)

광명편조(光明遍照) 십방세계(十方世界)
염불중생(念佛衆生) 섭취불사(攝取不捨)

염불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모조리 다 섭취(攝取)해서 건져 준다는 미타의 대본원력(大本願力)이 우리에게 아주 수승한 힘이 된다.

광명(光名)이 두루 퍼지어
십방(十方) 세계에
아미타불
목말라 부르는 중생득에게
손을 뻗쳐, 일일이
금빛 찬란한 손을 뻗쳐
안아들고
품에 안는다.

한 사람인들 버리기야 하리.

미타의 본원력(本願力)에 우리가 실려, 배라 할까, 비행기라 할까, 그것을 타면 혼자 제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힘으로 삽시간에 천 만리를 갈 수 있다. 그런 비유를 든다. 원시경전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다. 배를 타고 가는 비유인데, 원행 길을 혼자 가다가, 큰 강을 만났다. 이를 건너야 목적지에 닿을 것인데 좋은 도리는 없을까. 한참 만에 배 한척을 찾아내었다. 그것을 타고 노를 저어 이제는 어렵잖게 건너편 언덕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을 건너 놓고 생각하니 배가 어떻게나 고마운지 측량할 길 없다. 그리고 보니 배가 여간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문득 애착이 붙어 버린다. 배를 뒤집어쓰고 육지를 걸어 갈 수는 없다.

배는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과정이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강을 건너는 것이며, 이는 달성했다. 그러면 배를 가지고 육지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念佛)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염불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아미타불을 뵈어야 하고, 그의 본원력(本願力)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공상역공(空相亦空), 공공역공(空空亦空)은 아직 배를 가져가야 하나 어떻거나 망설이는 상태다. 그 배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이다. 소공역공(所空亦空)의 자리에서는 배건 뭣이건 그것이 유용(有用)하다는 데 대해서까지 애착이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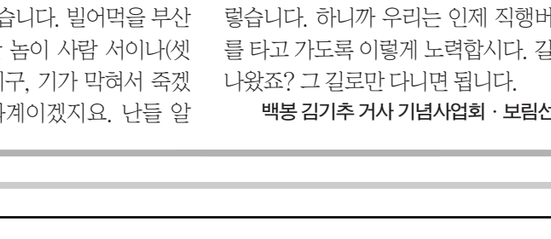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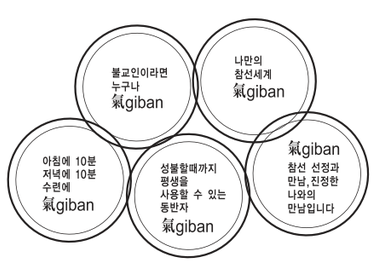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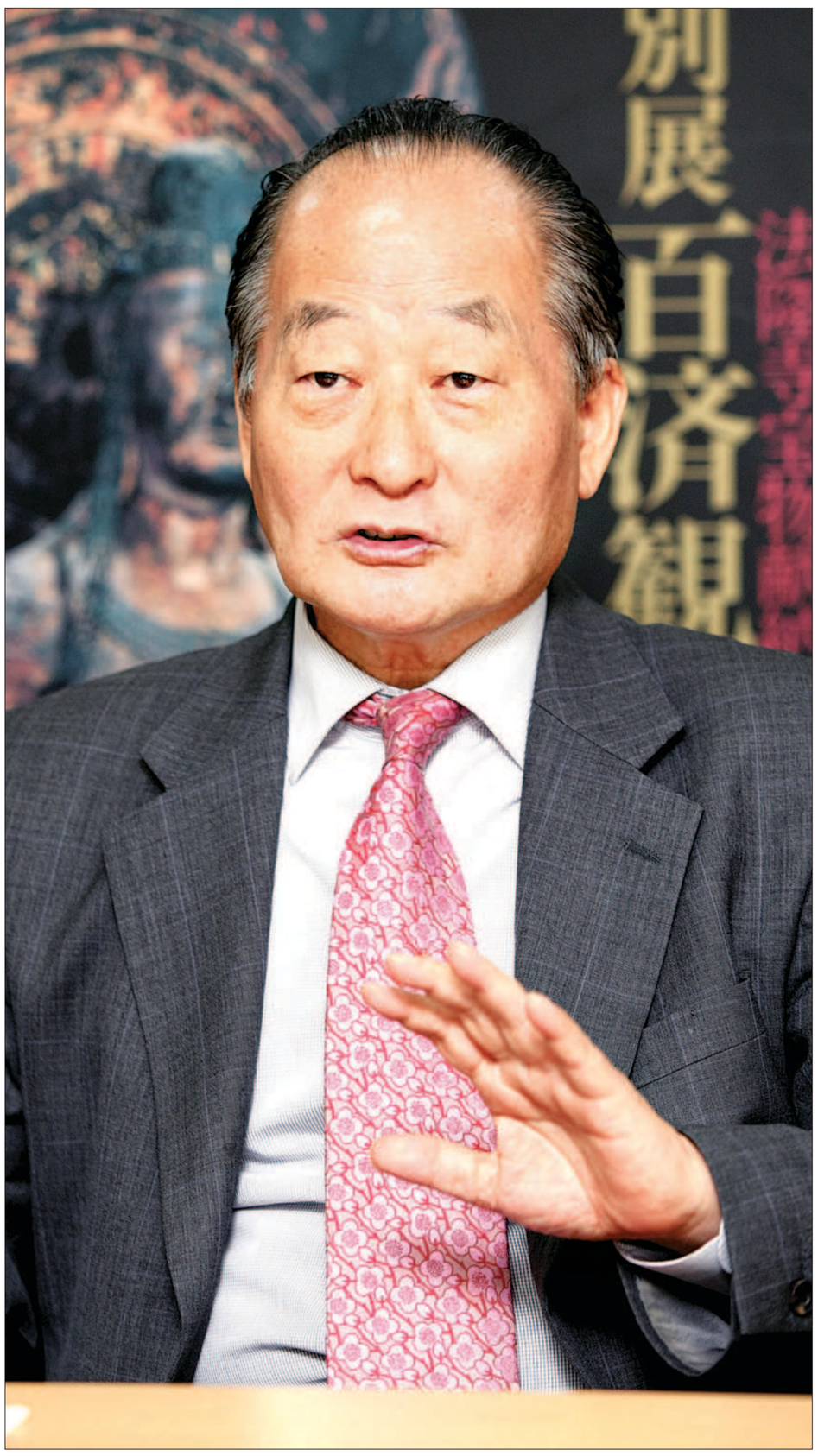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미술에서 깨달은 '영기화생론' …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원장



강우방 원장은 … 1941년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이화여대 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일향한국미술연구원에서 한국미술사 전반을 정리하고 있는 미술사학자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사리장엄〉〈한국미술의 탄생〉〈한국불교 조각의 흐름〉〈수월관음의 탄생〉과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예술은 수단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화 한 점이 경전을 대신할 수 있고 불교의 진리를 대변할 수 있죠.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조형예술로 보여주며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 이전에 미술 작품에서 제 학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73)은 불교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을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이 정립한 영기화생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40년 넘게 한국미술사 연구에 매진해 온 강 원장의 연구방향과 불교미술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영기화생론을 말하다

강 원장은 지난해 1년 동안 본지에서 영기화생론을 바탕으로 '강우방 원장의 한국 미술의 틀린용어 바로잡기' 연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영기화생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미술 용어들이 잘못되었음을 이론적으로 밝히며 앞으로 이에 대한 용어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그가 정립한 영기화생론은 무엇일까?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은 제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 이론입니다. 불교는 종교와 철학을 겸비한 체계화된 종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철학의 세계와 이를 조형언어로 표현한 조형예술은 영(靈)의 세계입니다. 일상적인 세속적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고 언어도 함유하는 바가 달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조형언어의 이면을 연구하는 것이 영기화생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영적(靈的) 기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영적 존재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기운'을 보거나 느껴서 여러 가지 조형으로 표현해 왔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 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니 우리는 10%만 보고 연구하고 논쟁하는 셈이 되므로 학문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靈的) 기운'을 바탕으로 용(龍), 봉황, 식물넝쿨모양 등 동물모양이나 식물모양을 구상적 혹은 추상적으로 표현한, 조형 일체를 '영기문(靈氣文)'이라 부릅니다. 바로 이들 영기(문)에서 만물이 화생, 즉 신비한 탄생을 합니다. 이것을 '영기화생(靈氣化生)'이라 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상적 시각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강 원장은 영기화생의 표현원리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고 말한다. "조형예술은 종교의 수단이 아니라 나름의 조형언어로 절대적 진리의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형예술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00년에 귀면(鬼面)을 용면(龍面)으로 인식한 것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이후 한국의 건축, 회화, 금속공예, 도자공예, 복식 등을 새로운 방향에서 연구해나갔다. 동시에 이전에 이룩해 놓은 조형 언어들에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절감하고 본지와 불교신문에 100회에 걸친 연재를 감행한 바 있다. "저는 이런 작업들이 불교문화를 올바로 잡아가는 일이며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문화는 불교문화에 진배없으므로 한국문화를 바로 잡아가는 여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의 연구 과정은 다양한 저서로 탄생되었다. 〈한국미술의 탄생〉(솔 출판사, 2007년)이었고 각론격으로 출판된 저서가 〈수월관음의 탄생〉(글항아리, 2013년)이며 〈오덕사 괘불〉(통도사, 2013년) 등이 차례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불교미술의 보고 경주로 향하다

강우방 교수는 서울대에서 독문학과 고고인류학을 공부하며 미술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68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입사하게 된다. 이후 우리 문화의 모태가 신라임을 절감하고 1970년부터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제가 아마도 지방박물관 최초의 학예연구사일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받던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경주는 그 자체가 불교미술의 보고였기에 문화재 연구에 몰두해 있던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죠. 당시는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황룡사, 감은사, 분황사, 안압지 등 주요 유적지들에 대한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철학 겸비한 체계화된 종교
현대인들은 문화재의 10%만 읽어내
'영기화생론' 이론 정립으로 이면 찾아
유럽 · 일본 등 세계 문화재로 연구 확대

1970년부터 경주박물관서 근무하며
분황사 황룡사 등 유적지 발굴 참여
출퇴근 시간 답사하며 사진 기록 남겨
2002년 '영겁 그리고 찰나' 사진전도

경주박물관 근무 시절 그는 '한국미술 오천년'이라는 주제로 3년 동안 일본과 미국 등을 돌며 대규모의 순회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때 미국 전시에 대비해 미리 써놓았던 논문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주제는 '삼국시대 신라 미술 통일신라의 미술 과도기 양식'이었다. 강 원장은 이를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하버드대 미술사학과의 초청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사실 학위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미술사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3년 유학을 했는데 주로 인도 중국 미술 등의 작품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한국미술은 그곳에 공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는 않았어요.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니 수준이 많이 낮았는데, 돌이켜보면 한국미술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격이니 당연한 일이죠. 하버드 시절에는 주로 미술사 전반에 대한 기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공부가 미술사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강 원장은 12년 경주 생활을 정리하고 1982년 서울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한다. 이후 1997년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다시 경주를 찾게 되니 경주는 그에게 제 2의 고향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경주에 있는 동안은 불교미술 관련 논문을 많이 썼어요. 문화재 사진도 많이 찍었죠. 문화재 연구와 사진찍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출퇴근 시간 경주 주변을 답사하며 틈틈이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퇴임 이후에 전시회를 열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2002년 '영겁 그리고 찰나'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시회를 가졌다. 경주에 산재한 고분, 석굴암 불상, 탑 등 30여년 동안 찍어온 수만컷의 사진 중 80여점을 엄선한 전시였다. 흑백사진은 1970~1982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직 시절에 찍은 것이고, 컬러사진은 1997~2000년 경주박물관장 시절에 찍은 것들이었다. 문화재 사진 촬영은 미술사학자에게는 필수라고 말하는 강 교수는 "영겁과 찰나가 불이(不二)의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사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강 교수는 이제는 경주의 문화재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그간 일반인들 사이에서 답사 붐이 크게 일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이 유명해지자 너도 나도 남산을 찾으니 남산이 다 헐어버렸죠. 저는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는 답사는 반대합니다. 정말 관심 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유적지 구석구석을 찾아야 그 가치를 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사는 놀러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답사나 교육은 문화재를 엉망으로 훼손하죠. 그래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들의 답사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사찰들이 문화재 보호에 인식이 부족한 것도 큰 걱정이라며 스님들도 불교미술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가 보물로 지정된 한 사찰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찰 단청을 엉망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알고보니 초보한테 작업을 맡겨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죠. 스님들이 문화재 전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님들도 문화재에 대한 소양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각 사찰이 문화재 목록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도 있죠. 더불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한국미술사 '답 찾기' 40년



금산사 공포 조사 장면. 강우방 원장은 스님들이 우리 불교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화여대대학원 교수 재직시 학생들과 함께 떠난 경주남산 답사



신라 금관 조사. 영기화생론으로 조형예술의 원리를 풀어가고 있는 그는 신라금관도 영기화생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송광사 불화 조사 당시 찍은 기념사진

어 문화재청 관리도 중요하고 소양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이 문화재를 담당해야합니다. 결국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불교문화재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영기화생론

불교조각을 전공했으나 불상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사상 전반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불경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탐독해 '여래', '보살', '열반', '정각' 등 불교적 사고방식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학문적 노력을 바탕으로 성립된 영기화생론으로 그는 한국 건축, 불화, 공예 등 모든 장르의 의문을 풀 수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도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한 모든 장르를 10년 간 강의해왔다. 연구원의 강의는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지는 않는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지성인들을 위한 강의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자 공부 등 문자교육이 필수라고 그는 강조한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수준 높은 문자 교육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조형언어의 원리를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의지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죠. 학력 수준에 관계 없이 이런 학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층이 분명 있습니다. 저는 한자공부는 조형언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화생론'은 고차원의 세계이며 세계조형예술 역시 고차원의 세계이므로 한자를 모르면 설명할 길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독한 조형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선 한계가 있지만 문자언어인 한자와 한글을 올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론은 한국의 문화유산에만 머무르지 않기에 세계 문화유산 해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봄 일본의 제총산대학 기와 연구회 초청으로 일본 기와 전공자들을 상대로 기와무늬의 상징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일본에 기와 연구자가 3000명이지만, 기와의 불교적 상징에 대한 강연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지난여름 7월에 아테네에서 ATINER(Athens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주최로 열린 대규모 세계 대회에서 불교미술에서 정립한 영기화생론으로, 그리스 로마 신전의 캐피털(공포, 柱)의 조형들을 서양학자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 신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발표를 가졌다.

"영기화생론으로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조형미술의 상당부분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서양 미술사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비잔틴 미술, 르네상스 미술에서 무엇인지 모를 조형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간 한국미술사를 차근차근 연구한 결과였죠. 조형예술은 문자언어로 쓰여진 진리보다 더 감동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파리에서도 발표를 갖는다. 프랑스 고딕 성당, 즉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초석을 중심으로 기둥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 성당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한 상태다.

"세계의 모든 종교건축의 조형원리는 똑 같다는 것을 깨쳤으므로 이런 발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슬람미술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등지로 가서 활발하게 매번 새로운 주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 원장은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무한히 거대한 산, 잃어버린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밤 12시까지 연구에 몰두하며 청년 못지 않는 열정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강우방 원장. 그의 이론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해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환산 불가능한 불교 정신 문화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지울 수 있는 표준이 있을까?

가을 들녘의 수확량은 알아 낼 수 있을지라도 황금빛 출렁이는 들판의 아름다움을 가치로는 측량하지는 못할 것 같다.

살다보면 소중하지만 물질적 잣대로 가치를 정량하학 힘든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된다.

절에 온지 얼마 안 된 보살의 이야기이다. 한번은 자신이 다른 사찰에 갔다가 격은 얘기를 했다. 작은 사찰에 우연히 들렸는데 처음 보는 주지스님이 대뜸 '요즘 사업이 잘 안되지?'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사실 하는 일이 어려워 갔었던 것이다. 스님은 천도재를 지내야 사업이 잘 풀릴 거라고 했다. 급한 마음에 그러고 싶다고 하며 가격을 물으니 100만원도 하고, 삼백, 오백,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스님이 아시다시피 사업이 여의찮으니 오백만원 천도재를 하고 '지금 경비를 반만 드리고 사업이 잘되면 나머지를 드리면 안 되겠냐?' 고 했더니 후불은 안 된다고 했다.

보살이 마음을 바꾸어 싼 천도재를 지내기로 마음먹고 다시 스님께 '삼백짜리는 어떤 염불을 하고 오백짜리는 어떤 염불을 하느냐?' 고 물으니 똑같은 염불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왜 가격의 차이가 나느냐고 또 물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정성이 다르다고 했다. 보살은 '스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저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싼 천도재를 올릴 테니, 스님께서 정성을 비싼 천도재처럼 정성을 기울여서 도와 달라' 고 했는데 스님이 이런 보살 처음 본다며 화를 내고 일어서버렸다는 얘기였다.

사찰에서 기도와 불공, 천도의식으로 돈을 받는 일에 경종을 울릴법한데도 초발심 보살은 그저 천진스럽게 이 일을 우째야 좋을지 자꾸 물었다. 사찰에서 지내는 49재와 천도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오랫동안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연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백만 원을 기부한다면 이것은 기부일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좋은 기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기부라고 하면 안 될 듯도 하다. 기분은 보이지 않고 지불한 돈은 정확히 측량이 되므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부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사찰의 천도재나 49재비용도 연말정산의 기부금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났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분위기를 반영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찰의 불공의식은 단순히 의식에 따른 비용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한 사찰에 기부하는 행위로 보는 것 같다.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정량화 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세상의 모든 유형, 무형의 가치는 반드시 돈으로 그 가치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 박구원

법화경 비유품 의주유(衣珠喩, 繫寶珠喩)에는 한 친구가 가난한 자신의 친구를 위해 귀한 보물을 옷에 넣어 주었으나 그 친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불교는 정말이지 무한한 유형적 가치와 무형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현대사회에서 잘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 불교도들은 우리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내고 더욱 빛을 발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오랜 역사가 베여있는 불교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보배로운 가치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루 빨리 자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모두 잃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

현대사회의 유형의 물질을 쫓다가 잃어버린 무형의 자산들이 또 없는지 한번쯤 고개를 돌려 찾아보고 싶어진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이천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원
이천부 이상 @ 1100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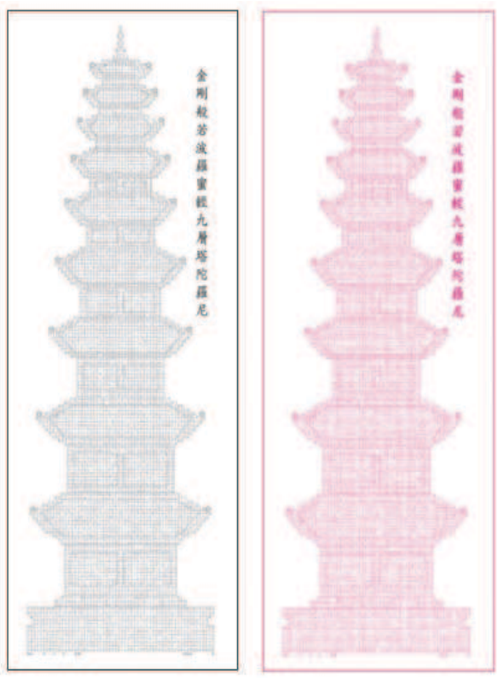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cm × 70cm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650원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450원
• 규격 : 8.9cm × 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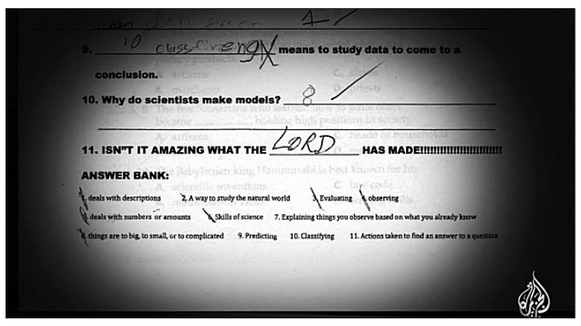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가 5,000원
• 68cm × 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빈 칸에 '주님' 쓰고 특별점수 받으세요

美 불자가정, 종교편향 교육 공립학교에 소송제기




means to study data to come to a conclusion.
10. Why do scientists make models?
11. ISN"T IT AMAZING WHAT THE LORD HAS MADE!!!

지구촌 세계불교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 길을 굳은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법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문화체육광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세계불교법왕청 直屬 團體

-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불교 최고의 어른 큰스님을 법왕과 대승불교승왕과 상좌부 불교 승왕을 모시는 대작불사
본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진전되고 있는 행사 내용 진행이 완성될 때마다 즉시 불교계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행사준비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는 불교계 현실을 안타깝께 생각하며 불교 지도자 큰스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목탁스님과 국제붓다봉사단 일행은 미얀마 극빈층 지원 봉사활동에 매년 동참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월 15일부터 10월 까지 진행한 극빈층 의료지원 봉사에 동참했다.
미얀마 띠빠따가 빨래 야웅쉐잉 싸띵따이(TIPITAKA PALE YOUNGSHAIN)사찰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그 지역 극빈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정성금과 인력을 지원해 성료하게 된 것이다. 이 행사는 미얀마 대통령 직속 불교수호협회 우킨쉐이(U KHIN SHWE)회장, 아싱에이다빠라(Ashin Eihdapala)스님과 함께한 의료봉사로 기간 내 1500여 명을 치료하였으며 향후 목탁스님과 국제붓다 봉사단은 매년 이 행사에 동참 할것을 서원했다.

◆ 국제 붓다 봉사단 ◆

지옥같은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불빛 인간방생. 중생구제

"부처님의 참 모습을 보려거든, 부처님의 자애로운 미소를 보려거든 남의 눈에 꽃이되라. 행복을, 기쁨을 받는 자가 되지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

– 38년 포교현장에서 중생들에게 외치는 목탁스님의 사자후 중에서 –

백내장 등 눈의 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극빈지역 5000여 주민들에게 무료수술을 하는 의료 봉사의 현장은 환희와 감동 그대로였다.
사찰 내 임시 수술실에서의 부처님의 자비행을 보여주는 현장에 21년간 지속되어온 대통령직속 불교수호협회 회장 우킨쉐이, 미얀마 불교 역사상 16명의 삼장법사중 13번째의 삼장법사로 중생의 존경을 받고있는 EINDAPALA 사야도,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하자 대승정 목탁스님과 법왕청 각료 일동과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상영민이사, 최정연이사, 후원자 최영준회장, 고우종, 유항연 회장, 김은래회장, 이천수회장, 안창헌회장 등이 동참했다.

◆ 봉사활동에 참여한 국제 붓다 봉사단 ◆

회장 : 정영숙 광명심
회원 : 양미애 정명심, 김영춘 자성광, 박정의 세정행, 이정희 보현수 윤서영 연화수, 박경진 묘혜, 박정하 대덕신, 이화순 능인경, 최연호 자인심, 이은송 연화행, 모미숙 계수, 김명옥 보덕화, 송미림 여래성, 박연주 감로수,김재은 해탈심, 김영진 관음성, 류명선 대각화, 김은주 환희심, 류옥순 대연행, 권남섭 무량화, 유민희 향적화, 이연숙 여래심, 이현주 법현주, 이옥순 정혜원, 박순환보살, 김경애보살, 박옥희 대연심, 임경자보살, 함수현 등 관세음보살 화신들이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성스런 보살행이었다.

(국제붓다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극빈층 의료지원 봉사에 성금을 전달하는 목탁스님


사찰 내 임시 마련된 진료소


극빈층 백내장 치료에 동참하는 목탁스님


성금으로 마련된 치료기기로 극빈층 백내장 시술


극빈층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


의료 시술을 받기위해 대기중인 지역민


치료를 받기위해 접수된 서류와 지역민들


우 쉐윈 미얀마 종교성 장관을 예방하는 목탁스님


우 쉐윈 미얀마 종교성 장관과 불교교류에 대해 환담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펙스 02-733-5671 / H.P 011-229-6061

수행의 길, 염불소리 꽃비 되어 흐르네

비로자니국제선원 글로벌 불교인재양성센터 건립 기금모연 선화전시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처음 했을 때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의 염불 소리에 맞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심이 났어요. 스님께서 꽃잎을 뿌려주셨는데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죠. 그때의 느낌과 더불어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깊은 산속의 절을 찾아갈 때의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곳 그 좋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면 바로 부처님 찾아가는 길임을 작품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인강 신은숙 작가의 작품이 꽃비가 되어 대중들을 찾아간다. 비로자나국제선원 글로벌 불교인재 양성센터 건립기금 모연 선화 전시회 '염불소리 꽃비 되어'가 11월 1일~10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염불소리 꽃비 되어, 혼자서 가라, 걸림 없는 마음, 수행의 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50여 작품을 기증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작가가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통해 느낀 감동을 부처님의 말씀이 꽃비가 되어 가슴에 내리는 듯한 깊은 신앙적 환희로 표현했다. '걸림 없는 마음'은 〈반야심경〉을 통해 지혜 광명으로 향하는 참나를 찾는 수행의 길을 그려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이 문틀에 기대어 있는 형상이죠. 마음자리 공부를 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 지비의 꽃을 마음에 안은 수행자로 집 안에서 공부해서 밖으로 나가는 시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1월 1일~10일 나무갤러리서
신은숙 작가 작품 50점 기증
걸림없는 마음 · 혼자서 가라 등

이밖에도 연잎 한 점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더불어 부처님의 얼굴을 표현한 '혼자서 가라'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 진리로 가는 행복의 과정을 담아냈으며, 먹 작업의 '수행의 길'은 천지인의 합일을 그려냈다.

신은숙 작가는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해외 전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중견 여성 문인화가로 전시 판매 수익금을 글로벌 불교인재 양성센터 건립 모연금으로 기부한다. "평소 국제포교를 위해 애쓰시는 자우 스님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공간이 부족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없음이 늘 아쉬웠죠. 이번 전시가 건립불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건립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비로자나국제선원이 국제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02)6012-17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은숙 작가의 '염불소리 꽃비 되어'. 자비도량참법 기도에서 느낀 환희심을 화폭에 담았다.

"불교 세계화, 인재 양성에 달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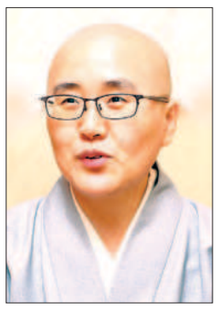
글로벌 센터 건립 추진하는 자우 스님

"대형 교회는 영어법회에 2~3백명의 어린이들이 영어예배에 참가해 선교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는 아직도 영어법회가 보편화 되지 못한 상태죠.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오랜 시간 어린이 · 청소년 영어법회 등을 통해 꾸준히 포교해오고 있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사진〉이 외국인 포교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 건립불사를 위한 개원 8주년 기념법회를 11월 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동시에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 '염불소리 꽃비 되어'를 11월 1일~10일 나무갤러리에서 연다.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는 영어를 기반으로 어린이 · 청소년, 외국인 불자, 스님과 일반인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된다.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불교 세계화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불교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우 스님은 강조한다.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는 외국인에게 참선 절 염불 절 간경 사경 등을 통한 수행 지도, 불교교리 지도, 고민상담 등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서적 요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글로벌불교인재양성센터는 △영어로 불교를 교육할 수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위한 역량결집 및 교육양성기관 △외국인을 위한 불교서적의 번역 △영어 염불의식의 연구 및 제작 △스님들도 국제적인 감각과 문화 습득 및 외국인들을 수행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스님은 "아직 부지 확보는 못한 상태지만 모연을 통해 기금이 확보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 도심에 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사모연을 위한 선화전시회를 갖는 동시에 1인 월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1006-701-346789, 예금주 =비로자나국제선원 **정혜숙 기자**

"지화는 전통불교의 맥 이어가는 작업"

석용 스님 전통지화전시회
10월 30일~11월 5일



"지화는 불교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한국전통문화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때문에 2008년 10월 서울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지화를 만드는 일이 곧 수행이라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석용 스님〈사진〉의 전통지화전시회가 10월 30일~11월 5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열린다. 스님은 모란 · 작약 · 국화 · 연꽃 등 다양한 지화 작품 약 30여 점을 공개한다.

"전통한지로 만든 꽃 '지화'는 지금은 희귀한 예술품이 됐지만, 1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궁중, 민간의 혼례와 상례, 무속 신앙에서 지화를 사용했어요. 특히 불교에서는 영산재, 수륙재 등 불교행사에 지화를 장엄해왔죠.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했고, 크기나 종류에 제한 없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행사 후에 소각하는 등 처리가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가 보급된 뒤 생화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화는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화 제작 방법 또한 점차 사라져 현재는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태종에서는 춘광 스님을 비롯해 저와 여러 스님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지화를 만들어 각종 불교의식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화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영산재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에는 약 1000여 송이의 지화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한지를 물들인 염료도 쑥 등 천연재료를 가공해 만든다.



석용 스님이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지화'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영산재에 사용할 1000여 개의 지화를 완성하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형색색 크고 작은 꽃 모양에 맞게 한지를 재단하고 염색하고 말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용 칼로 꽃잎 하나하나를 접는 과정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인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천태종 지화의 맥은 현재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1971년 인간문화재 범패 전승자 故 권수근 스님으로부터 지화 제작 방법을 사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석용 스님이 1982년 구인사로 출가하면서 춘광 스님으로부터 지화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았다.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장엄분야 이수자인 태고종 장벽응 스님과 정지광 스님에게 지화 제작법을 사사했다. 현재 석용 스님은 천태종 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지화 제작을 전수하고 있다.

(043)420-7310 **정혜숙 기자**

"나눔과 비움의 가치 부처님 일생으로"

'붓다, 일곱 걸음의 꽃'
10월 31일~ 11월 2일

감각적 동양 의상과 현대적인 무대미술의 조화, 독경과 서양악기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현대무용의 새로운 장을 펼친 파사무용단(예술감독 황미숙)의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한국공연예술센터 공동기획'에 선정되어 앵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0월 31일~ 11월 2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은 2012년 초연 이후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2년 만에 주인공이 오창익 씨로 바뀌고, Mnet의 '댄싱9' 출연으로 인지도를 쌓은 이윤희 씨가 합류해 새로운 무대를 펼친다.

2대 붓다 오창익 씨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무용축제인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MODAFE)에서 스파크플레이스 신인상을 수상하고 안무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현대무용가다. 그는 부드럽지만 강한 붓다 연기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나눔과 비움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심정민 무용평론가는 오창익 씨에 대해 "붓다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성격묘사로 작품 전반에 드라마틱한 무게감과 긴장감을 더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댄싱9 시즌2'의 레드윙즈팀 활동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이윤희 씨는 천수관음을 열연한다.



2014년 2대 붓다로 선정된 무용가 오창익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10인 이상 단체 예매는 30% 할인이 가능하다. (02)2263-4680 **정혜숙 기자**

조재익 '붓다 꽃이 피다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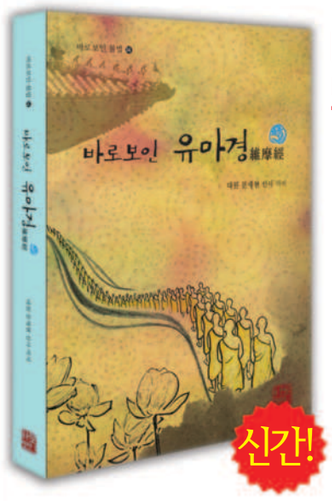
조재익 작가의 15회 개인전 '붓다 꽃이 피다2014'가 10월 29일~11월 5일 가회동 60에서 열린다. 작가는 옛길 시리즈와 붓다 시리즈 등 14점의 작품을 전시, 구도의 길로 향하는 여정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경주 남산, 간다라, 크메르 등의 불상들을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표현해 주목된다. 작가는 "미얀마 바간, 국내 폐사지 등을 여행하며 수행한 느낌을 다양한 모습의 불상과 함께 담아냈다"고 전했다. 010-2813-1213 **정혜숙 기자**



조재익 작가의 '붓다 꽃이 피다II'

대원 문재현 선사님 67권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바로보인 유마경

신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삼보양초



①원기등홈 / 원기등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타레홈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문화人

"세상 풍경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선율 탄생하죠"

피아노 병창 공연 앞둔 발달장애 뮤지션 최준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발달장애 뮤지션 최준 군은 현재 8번째 연주회로 피아노병창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백중' · 홍보가 등 실린 앨범 발매
11월 5일 오후 8시 국립극장서
내년 불교음반 제작도 계획 중

죽음에 대한 감회를 피아노곡 '백중'으로 표현하는 최준 군(25)의 손길에는 소멸의 쓸쓸함이 그대로 담겨 나왔다. 최 군은 7살 지능의 발달장애 뮤지션이다. 또래의 아이처럼 대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일기 쓰듯 오선지 위에 그려내 피아노로 표현하고 판소리로 세상과 소통한다.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최 군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10월 21일 삼청동에 위치한 최준 군의 연습실을 찾았다. 연습실 아래는 어머니 모현선 씨의 옷매장이 있었고 2층 디자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최정돈 씨의 사무실 한 켠에 최 군의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한마음선원을 다녔던 최 군은 백중날 절에 다녀온 소감을 음악으로 옮겼다. 누구를 생각하며 썼냐는 질문에 "대행 스님!"이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생사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준이가 죽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재작년 대행 큰스님의 입적 이후에요. 스님을 다시 뵐 수 없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죠. 또 지난해에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다복이가 죽었고 올해 2월에는 매일 준이를 업고 특수학교를 다니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알게 된 거 같아요."

최근 피아노병창 새 앨범을 발매한 최준 군은 11월 5일 오후 8시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소리, 피아노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 8회째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 그는 '백중'은 물론 판소리 흥보가 등 10여곡을 판소리 병창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최준은 피아노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2012년 KBS 인간극장, 올 5월에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최근 SBS 스타킹 출연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양방언 씨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국립극장 여우락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등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어머니는 전한다. "국립극장 같은 큰 무대에 연주할 수 있도록 양방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후에도 전주소리 축제와도 연결이 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도 원만히 성사될 수 있었죠. 이번에 여는 공연 역시 이런 성과에 힘입어 가능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자주 지방의 절에 다닌다는 최 군은 월정사 상원사 견성암 등을 다녀온 느낌도 모두 오선지 위에 그려 놓았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7살 때부터 다 외웠고 매일 저녁 〈한마음 요전〉을 들여다 볼 만큼 신심도 깊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장애판정을 받고 점집과 교회 등을 전전하던 최 군의 부모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친견 이후 불교에 귀의했고 최 군도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절에 다녀온 느낌을 오선지에 그려 프린트를 해 놓으면 아버지 최정돈 씨가 곱게 철을 해 놓은 것이 벌 써 두 권 분량에 이른다. 그간의 곡들을 선별해 내년 즈음에는 불교 음반을 낼 계획이다. 올해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작곡을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 최 군은 흥보가 중 화초장을 피아노병창으로 들려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주변의 아기자기한 풍경도 최 군의 오감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 음악이 되어 춤을 춘다. 그에게 음악은 또다른 언어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열쇠이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인 것이다. 그래서 최준은 시방세계 세상의 수많은 풍경들을 음악으로 담아내며 세상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02)722-027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최준 군이 불자 뮤지션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머니 모현선 • 아버지 최정돈 씨의 뒷바라지가 큰 힘이 되었다.



11월 5일 피아노 병창 공연 포스터

도인의 큰 은혜 산처럼 무겁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㊷ 영통사 (下)




영통사의 경선원에는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사진은 2012년 11월 15일 천태종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 스님들이 합동으로 대각국사 911주기 다례제를 올리는 모습.

운자의 대물림, 시의 멋과 맛

김창협은 영통사에서 시를 읊으며 채수와 박은을 떠올렸는데, 박은 역시 영통사에서 시를 지으며 자연에 은거해 도를 닦는 고절한 은자(隱者)의 삶을 그렸다. 박은의 문집 〈취읍헌유고〉는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행(李荇 1478~1534)이 편찬했다.

이행은 2편의 영통사 관련 시를 남겼다. 하나는 7언 율시이고 하나는 5언 고시인데 그 길이가 50행이나 된다. 이행의 문집 〈용재집(容齋集)〉 제4권 '천마록(天磨錄)'에 수록된 7언 율시를 보자.

우승미우문총림(偶乘微雨問叢林)
동부청한고목음(洞府淸寒古木陰)
악색담농조모태(岳色淡濃朝暮態)
계성서질단장음(溪聲徐疾短長吟)
백년천석혼여작(百年泉石渾如昨)
일일풍류갱유금(一日風流更有今)
주잔다표구불악(酒盞茶瓢俱不惡)
각수잔경박서침(却愁殘景迫西沈)

우연히 가랑비 속에 총림을 물으니
맑고 서늘한 골짜기 고목이 우거졌네.
묽고 짙은 산의 빛깔은 아침저녁 모습
늦고 빠른 시냇물 소린
길고 짧은 시런가.
백 년 전의 천석이 도무지 어제만 같은데
하루 즐기는 풍류 다시 오늘이 있어라.
술잔이고 찻잔이고 다 나쁘지 않지만
석양이 서쪽에 잠길까 외려 걱정이로세.

시인은 영통사라는 공간을 완상하며 참으로 담담하고 맑은 시상을 풀어 놓고 있다. 산 빛과 시냇물소리의 대구와 백 년 전의 자연과 하루의 풍류를 대비하는 솜씨도 대단하지 않은가? 거기에 술잔과 찻잔을 가리지 않는 호방함 속에 지는 해를 아쉬워하는 정감이 곱기만 하다.

'영통사 앞의 물줄기는 만고에 우레 비처럼 굉음 울리지'로 시작하는 50행의 장시에서도 이행은 맑은 경물과 정갈한 시상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선비의 풍모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 시의 제목은 '영통사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한 중열의 시에 차운하다'이다. 중열은 앞에서 이야기 한 박은의 자(字)다. 그러니까 박은은 영통사에서 앞 사람의 시를 차운하였는데, 그 시를 다시 친구인 이행이 차운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운자를 대물림 해 가면서 지어진 시를 읽는 것도 흥미롭다.

시로 보답한 스님들의 은덕

영통사는 고려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찰이었다. 때문에 고려후기 선비들과 영통사 스님들의 교류도 막역했다. 그러한 교류의 멋과 정을 엿볼 수 있는 시로는 조선 태종과 사돈지간인 조준(趙浚 1346~1405)의 작품이 있다. 그의 문집 〈송당집〉 제1권에 실린 7언 절구 두 수는 '영통사 의침법사가 부채와 시를 선물로 주어 시운을 빌려 사례하다'는 제목 아래 지어졌다.

오송강수양청유(吳松江水兩淸幽)
유월청풍가매구(六月淸風可買求)
만사홍진다열뇌(萬事紅塵多熱惱)
도인가혜중산구(道人嘉惠重山丘)

오송강 물처럼 맑고도 그윽하니
유월 맑은 바람을 사는 것도 좋겠네.
세상 풍진은 열뇌만 많은데
도인의 큰 은혜는 산처럼 무겁네.

월색송성사전유(月色松聲寺轉幽)
수침소진담망구(水沈銷盡澹忘求)
병부고핍광시략(病夫固乏匡時略)
타일심사복일구(他日尋師卜一丘)

달빛 솔바람에 절 더욱 그윽하고
물에 잠겨 다한 마음 담담해
욕심 잊었네.
병든 몸은 진실로 시대 바룰 계책 없으니
다음에 스님 찾아 물러나 살 곳
구해야지.

의침 법사가 어떤 스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님과선비의 도타운 교분이 달빛처럼 은은한 시라 하겠다. 첫 수에 인용된 '오송강 물'은 중국에 있는 강이다. 태호에서 발원하여 동북으로 흘러 소주 가정을 거쳐 상해에서 황포강에 흘러드는 강인데, 당나라 장우신이란 사람이 〈전다수기(煎茶水記)〉에서 물의 품질을 논하며 오송강수를 16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시인은 영통사 스님이 부채와 시를 선물한 것을 두고 그 정을 오송강 물에 비유했다.

조준이 남긴 두 수의 시는 스님과의 교분이 주는 청량한 기쁨과 인생살이의 고뇌를 식힐 계책을 묻고 싶은 중생의 마음이 간절하게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읽을수록 마음을 당기는 맛이 있다.

소방삼신일(少訪三身日)
문전백미심(門前柏未尋)
금봉경백발(今逢驚白髮)
배주십년심(桮酒十年心)

젊어서 삼신을 방문한 날에는
문 앞의 잣나무 찾지 못했더니
오늘 서로 만나 백발에 놀라며
한 잔 술로 십 년의 마음 달랜다오.

엄상투갈의(嚴霜透葛衣)
량월산청휘(凉月散淸輝)
옹슬악문법(擁膝樂聞法)
중정좌부귀(中庭坐不歸)

매서운 서리는 갈옷을 파고들고
서늘한 달은 맑은 빛 뿌리는구려.
무릎 안고서 법문 즐겁게 듣느라
뜰 가운데 앉아 돌아가지 않는다오.

남효온(南孝溫 1454~1492)도 영통사 스님들을 자주 찾았나 보다. 문집 〈추강집(秋江集)〉 제3권에 실린 '영통사(靈通寺)에서 밤에 얘기하다가 경(瓊) 법주(法主)께 드리다'는 2수의 시가 그의 지극한 마음을 보여준다.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권하는 '관음태교'-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관음태교로 낳자!

불자라면 모두 불교 고유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야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만현 큰스님

태교(胎敎) –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가 지은 〈태교신기〉에서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태교 열달이 낫다."고 말합니다. 태교는 아이의 '인성과 지능'을 형성하는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는 최초의 교육으로서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2001~2009년)를 차지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 예술계를 주름잡고 있는 비결도 태교와 영유아 교육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잉태(孕胎)의 진실 – 영혼체의 존재
잉태는 난자와 정자의 단순한 결합인 수정(受精)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인연있는 태아의 영혼체가 보통 수정의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되었더라도 자연유산 됩니다. 영혼체는 육체가 죽어도 소멸하지 않고 사후세계를 살아가는 인간(태아)의 본체입니다.
인간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모두 이 영혼체에 업(業)으로 저장이 됩니다. 선행을 하여 선업이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고, 죄를 많이 지어 악업이 많은 사람은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이 '카르마의 법칙'(인과법)이라는 우주의 이법(理法)입니다.
그러므로 태교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영혼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태교의 본질은 불행의 원인인 악업을 소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관음태교 –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염불태교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첫째는 태아에 좋은 영혼체가 들어야 하고, 둘째는 이미 잉태된 태아 영혼체에 쌓인 악업의 업장(業障)을 소멸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행복 태교법입니다. 지극정성으로 관음태교를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좋은 인연의 영혼체를 부모와 맺어주고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을 씻어주기 때문에 태아는 건강하고 지혜총명하며 심성이 착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재능개발 위주의 다양한 태교법에 비해서 관음태교는 불교 고유의 전인적(全人的)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서 주소·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간절하게 소리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관음태교 체험발표


관음태교 개강식

유의사항 – 낙태(落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계10선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아와 원결(怨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염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이의 행복을 좌우하고 가정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인류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관음태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성현과 총명유능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교 고유의 태교법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택은 바로 관음태교 입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252회) •11월 2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 243 1787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5 ~ 10/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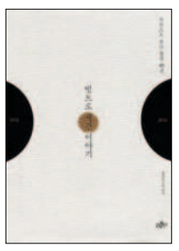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5	리셋 – 월호 스님 잠언집	월호	마음의숲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8	초기불교입문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9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웅연	불광출판사
10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작가정신



‘불혹’ 맞은 불광…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

빛으로 새긴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불광 40년

불광연구원 편저 | 불광출판사 펴냄 | 5만원



불광회, 월간 불광, 불광법회, 불광사 등으로 이어진 ‘불광’의 40년 역사를 담은 책이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생생한 사진 자료 728장과 함께 불광의 40년사를 형성기, 성장기, 계승기, 중창기, ‘불광의 오늘’로 나누어 시대별로 정리해 엮었다.



한국불교 전법사에 귀감으로 남은
‘불광’ 40년사 728장 사진과 함께 엮어

역사의 시작 ‘불광회’ 창립한
광덕 스님 생애부터 오늘의 불광까지



도심포교의 효시로 불리는 ‘불광’의 40년의 역사는 1974년 9월 1일, 광덕 스님이 ‘불광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됐다. 불광회는 일종의 법인적 단체로서, 이후 스님과 불광 대중들이 전개한 모든 불광운동을 이끈 모체이다.

책은 불광회가 창립되기 전인 형성기부터 조명하고 있다. 1927년 광덕 스님의 탄생에서 1973년 불광회가 출범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인 ‘형성기’는 불광운동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불광운동의 사상적 근간이 형성되어가던 시기로, 실질적인 불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첫째, ‘형성기’에서 광덕 스님의 생애와 불광사상의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이때 광덕 스님은 수행과 정진에 매진하며 다양한 불서를 간행했으며, 소천 스님을 도와 ‘금강경 구국독송회운동’을 펼치는 등 대중전법의 경험을 쌓아갔다. 나아가 정화불사 이후에는 종무행정에 투신하여 각종 대소사를 맡아 조계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둘째 ‘초석기’에서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1974년 광덕 스님은 전법을 위한 신행 조직으로 ‘불광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그해 월간 〈불광〉을 창간하여 불광운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의 법문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했고, 자연히 스님이 주석하는 대각사로 불자들이 몰려들었다. 스님은 1975년 43명의 불자들을 모아 마침내 ‘불광법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불광법회는 서울 종로 대각사를 중심으로 야단법석을 펼치며 ‘불광운동’의 중추적 조직으로 성장해갔다.

셋째, ‘성장기’에서는 1983년에서 1998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이 기간 동안 대각사에서 형성된 불광법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1983년 서울 잠실에 도심전법 도량 불광사를 창건하고 본격적인 불광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후 잠실법당은 바라밀국토 건설이라는 전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근본도량이 되었다. 불광사는 어린이에서 청년과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별로 법회를 개설했다. 나아가 의례를 현대화하고, 연화부를 설립하여 재가자에게 의례를 집전하게 하는 등 혁신적인 전법활동으로 교단 안팎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넷째, ‘계승기’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이 시기는 광덕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그 정신과 유지를 계승하는 시기다. 스승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여럿이 함께 걸어온 불광의 힘은 광덕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전법의 원력은 식을 줄 몰랐고, 광덕 스님의 유지는 재자들에게 계승되었다. 광덕 스님의 부도탑과 부도비가 제막되었고, 법어집을 정리하는 추모사업도 진행되었다. 나아가 가람을 정비하고 불광교육원 부지를 확보하여 사격을 일신하고 도량을 확장했다.

다섯째, ‘중창기’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이 기간은 불광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잠실법당을 다시 짓는 중창불사를 이뤄낸 시기이다. 이로써 불광은 지난 4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법당을 세우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한편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찰의 사회적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장했으며, 불광연구원을 설립하여 광덕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전법학 연구에 초석을 놓았다. 불광운동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된 월간 〈불광〉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전법포교지가 되었으며, 불광출판사 역시 수많은 양서를 출판하며 문서포교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오늘 마침내 불광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불광이 걸어온 40년 역사는 현대 한국불교 전법사의 귀감으로 평가된다. 빛바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찰나의 순간들은 한국불교 전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홍 스님은 “공자는 사람의 나이 마흔이 되면 유혹에 흔들림이 없고 미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혹(不惑)이라고 했습니다. 불광도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광이 걸어온 40년의 역사는 매일매일이 흔들림 없는 길이었습니다.”며 “빛바랜 사진을 통해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을 회고하는 것은 단지 40년을 정리하고 환희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위함입니다.”며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불광이 걸어온 40년의 역사는 불광만의 역사가 아니기에 이번 사진집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광덕 스님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한 불광의 전법사는 한국불교 전법사의 텍스트가 될 것이며, 지홍 스님을 비롯해 불사를 이어 갈 불광의 사부대중에게는 점검과 다짐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역사에서 밀려난 역사도 알고는 있어야”

염불처럼 서러워서

김성동 지음 | 작은숲 펴냄 | 1만7천원



소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이 이 ‘시대’에 건네는 역사에세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역사로서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왜곡’과 ‘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부적절한 세태를 짚어간다.

“프랑스가 나치한테 점령당했던 것이 4년간이었다. 그 4년 동안 비시친독 괴뢰정권에서 독일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친독파 7천여 명을 처단하였다. 우리는 일제한테 점령당한 것이 36년이다. 병자늑약까지 올라가면 130년이 넘는다. 그런데 해방을 맞은 지 반 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단죄하지 못하였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민족반역자들을 반드시 처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들의 잘못만큼은 역사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책은 1950년 7월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대전형무소 사상범과 민간인들이 학살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조국광복 투쟁에 몸 바쳤던 어른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친일파들의 손에 죽어 골짜기에 묻히는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현재도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친일’ 처단 못해도 ‘잘못’은 기록돼야
잘못된 현실은 잘못된 역사에서 비롯
고조선~현재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염불처럼 서러워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이 시대의 우리 사회와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 진실일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에 칠순을 바라보는 작가는 이런 에세이를 써야했던 것일까.

책은 우리가 ‘친일’이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력이 대를 이어 편히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라는 것이 승자들의 기록이라면 승자들이 꾸려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현실인 것이라면 역사의 패자들, 즉 패자의 후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비단할아버지’를 둔 ‘거적자손’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승자들의 역사라는 인식은 아주 현실적인 인식이며, 그들이 자기 멋대로 역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역사에서 밀려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어떻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왜 쓰러지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의 진실만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 시대의 후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비단할아버지의 거적자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실을 감추고 잘 가르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자는 붓을 든 것이며, 때문에 〈염불처럼 서러워서〉의 문장들은 서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서러움조차 언급되지 않는 오늘이 또 서러운 것이다.



포로가 된 빨치산 유격대원

책은 끝나지 않은 친일의 역사와 왜구는 대륙백제의 후손들이고, ‘녹두가’의 녹두꽃은 전봉준이 아니라 김개남이며, ‘땡초’라는 말은 조선시대 혁명 승려들의 모임인 당취(黨聚)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등 고조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인물, 사건을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가려져있던 역사를 들려준다. 박재완 기자

저자 김성동은

1947년 음력 11월 8일 충남 부령에서 태어났다. 8.15와 6.25사변을 거치면서 아버지와 큰삼촌, 그리고 외삼촌까지 잃었다. 조선왕조 끝 무렵 선비였던 할아버지한테서 천자문을 비롯하여 〈소학〉, 〈대학〉, 〈맹자〉까지 배우며 조선과 동양의 역사와 풍습을 배웠다. 1965년 여름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입산했으며, 1976년 가을에 하산했다. 1975년 〈주간종교〉 종교소설 현상공모에 단편 〈목탁조〉가 당선됐다. 1978년 ‘한국문학신인상’에 중편 〈만다라〉가 당선됐고, 이듬해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8년 〈시와 함께〉에 ‘중생’ 등 11편의 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저서로는 창작집 〈피안의 새〉 〈오막살이 집 한 채〉 〈붉은 단추〉, 장편소설 〈길〉 〈집〉 〈만다라〉 〈꿈〉 〈국수(國手)〉, 산문집 〈미륵의 세상 꿈의 나라〉 〈생명기행〉 〈김성동 천자문〉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외로워야 한다〉 등이 있다.



소설로 다시 만나는 일타 스님 일대기

인연1, 2

정찬주 지음 | 작가정신 펴냄 | 1만 2800원



이 책은 우리 시대의 한 스승으로 살다 간 일타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14세 출가 때부터 71세에 입적하는 순간까지 순수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온 일타 스님을 불자들은 '자비의 화신' 으로 기억한다. 스님은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오롯이 사셨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보이는 저 높은 위치에 선 위인으로서의 일타 스님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와 다름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일타 스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비를 실천하기까지 수많은 번뇌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론 다른 길을 모색 한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망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타 스님의 치열한 정진은 보다 현실적이며, 이러한 노력이 자기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까지 염원한 것이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소설은 화자 고명인이 등장하는 부분과 일타 스님이 주인공으로 직접 등장하는 병렬 구조로 이뤄져 있다. 소설 속의 고명인은 우리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명인은 어머니를 여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일타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해인사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자기도 모르게 스님이 수행했던 행적을 좇기 시작한다. 이 과정 속에서 고명인은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미 입적한 일타 스님과 생사의 경계를 넘어 맺은 인연이 고명인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다. 이와는 별도로 일타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구도의 길을 걷는 모습을 찬찬히 보여준다. 고명인과 일타 스님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종국에는 한곳에서 합치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명인이 깨달음을 얻은 일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자신만의 화두를 드는 장면은 일타 스님이 직접 고명인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온다는 말이 있다. 오늘이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연을 새롭게 맺고, 또 그 인연을 끊는 셈이다. 그래서 고승들은 오고 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오직 현재만을 직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명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매 순간순간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인과의 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어느새 절감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과의 고리를 끝없는 윤회를 통해 설명한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이 있고, 현재의 내가 속

인간적인 스님 모습 조명
치열한 정진 감동적으로 기술
화자와 주인공 등장 병렬 구조
단단한 짜임새 구성력 돋보여

한 금생이 있으며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내생이 있다. 이 삼생의 순환 속에서 수많은 인연의 고리를 맺고 풀어가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보는 우리의 삶이다. 소설 속에서도 이러한 순환의 고리는 그대로 작동된다. 일타 스님이 상좌 혜관 스님에게 내생에는 혜관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나 혜국 스님이 일타 스님의 은사였던 대강백 고경 스님의 후신인 것처럼 암시되는 장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인연』은 인과의 고리처럼 앞뒤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단단하고 짜임새 있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

모든 종교는 각 개인의 '마음' 을 구하고 평안을 얻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고명인 역시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일타 스님의 법문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즉심시불, 즉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인가란 화두를 들고 자신의 마음을 구하게 된다. 고명인이 들었던 일타 스님의 법문은 곧 일타 스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육성에 다름 아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자 큰 기대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부처인지, 내 마음속에 과연 부처가 있는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마다 다 제각각일 것이다. 소설은 결코 작가가 작성한 '해답' 을 직접적으로 건네지 않는다. 다만 화두를 던질 뿐이다. 그만큼 이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과 해석의 폭은 넓어지기 마련이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은 어쩌면 한가한 사치에 속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계기 자체가 없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 즉 '나' 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와 심리치료의 공통점은?… 고통치유

자비의 심리학

론 레드너 지음 | 박성현 외 5명 공역 | 1만 7천원



불교와 심리치료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불교와 심리치료를 실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늘어난다. 그 중 불교 명상이 심리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즉 고통을 치유하고 의식 발달을 도모하는 동서양 두 개의 상이한 길이 비로소 한 길로 만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심리학자 론 레드너가 불교와 심리치료의 이해를 돕는 책인 〈자비의 심리학〉을 펴내 눈길을 끈다. 저자는 불교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를 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냈다. 또한 부정적 감정 혹은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로 고통 받는 다양한 사례를 수록해 자비가 갖는 심리치료적 효과를 설명한다.

자비심은 우주 안의 모든 존재가 연결됐다는 깨달음서 비롯된 감정이다. 이러한 지혜가 결여된 행복 추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다른 존재와 분리된 견고하고 영구적인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비심 계발을 위해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짓된 가면을 벗어 버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거짓된 가면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끈질긴 자기애적 이미지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자기애적 이미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소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즐거움만을 취하고 불쾌한 것들은 부인하거나 없애려 한다. 이러한 자기애적 소망이 성공하면 즐거워하고 실패하면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는다. 자기애적 이미지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갈망과 원망, 쾌락과 불만족을 오가는 윤회의 덫에 빠지게 된다.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은 자기애적 소망이 결국 괴로움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모든

불교 자비, 심리학 언어로 풀어내
거짓된 가면 자기애 집착서 발생

존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이 책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과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 애도하기, 사랑 넘치는 의사소통, 투사를 이해하기, 논쟁에서 즐겁게 지기와 같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주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서 흔히 경험하는 골칫거리들에 대해 자비심을 증진시킴으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생한 예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자비로운 시각' 에서는 자비가 심리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이유와 자비의 개발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을 소개하고, 2부 '자비 수행' 에서는 자비를 키우는 방법을 담았다.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특징은 자비라는 주제를 통해서 서양 심리학과 소통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의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비에 대한 깊은 고찰과 적극적인 실천 운동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지침이 될만하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습관적 에너지가 人生 끌고가 … 마음공부 매일 반복 필요"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禪)

글 보현 · 사진 강명주 | 민족사 펴냄 | 1만 3800원



지난 1999년 자전소설 〈타래〉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보현스님(부처님 마을 선원장)의 신간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禪)〉이 출간됐다.

〈타래〉서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 역정을 풀어냈다면, 이번 책에서는 깨달음의 향기 가득한 수행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활 선을 통해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어 날아가듯이' 세간에서 짊어지고 있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 이야기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쓴쓸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 삭발하는 날, 정말 환희심에 차서 날아갈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습니다. (…) 신기한 것은 나를 출가로 이끈 땅콩 스님을 더 이상 꿈에서 뵐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배처럼 땅콩 스님은 그날 이후로 생생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땅콩 스님은 더 이상 뵐 수 없었지만 내 공부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출가 당시를 회고한다.

스님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출가 인연 이야기를 밝혔다.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보았던 땅콩 스님이 인도로 출가했다' 는 몽중가피로 이루어진 스님의 출가 인연 이야기가 매우 독특하다. 그렇잖아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동안 땅콩 스님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는데,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았기에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서 당당한 수행자의 면모가 느껴진다.

스님은 인기 절정이었던 탑스타 시절, 자살 충동을 느꼈을 정도로 괴로웠다. 하지만 출가 후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수행을 통해 당신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참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답을 빼면 비로소 참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 잘못 된 정답, 자기가 옳다고 집착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그 높이와 넓이만큼 괴로움도 커지고 '참 나' 와는 팔만 사천리나 멀어집니다."라고 그간의 사유를 털어 놓는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임을 스님은 이 책에서 확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선 수행을 통해 참 나를 보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던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조언한다. "가슴속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애써도 그 번뇌 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하기 힘듭니다.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선지식으로 섬길 때 번뇌 망상도, 그로 인한 고통도 사라집니다."라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수를 부처님으로 선지식으로 섬길 때 번뇌 망상과 고통에서 사라진다는 스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스님의 수행력으로 빚은 한 말씀 한 말씀이기에 안심입명을 넘어 근원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다.

저자는 마음공부의 중요성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운동선수는 시합 긴장증후군, 탤런트는 연기 긴장증후군, 가수는 공연 긴장증후군 등등. 긴장증후군은 다 불안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러한 긴장증후군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잘 관찰하고 본질을 찾는 공부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활선은 활력 에너지 일으켜

를 해 나가면 보너스를 받았다는 고마운 느낌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스님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고 역설한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는 생활 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서도 잠시 잠깐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7분 수행, 생활선으로 환골탈태의 삶을 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저자는 "습관적인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마음공부도 습관화해야 한다. 당신 안의 에너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 선"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리더십 선, 비즈니스 선, 성공 선, 체중계 선, 면접을 앞둔 이들을 위한 자세 선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안에 본래 간직한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내어 쓰는 다양한 방법을 자상하게 일깨워준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비결이 몸에 배는 듯하다. 대 긍정에너지를 담고 있는 스님의 생활 선 이야기는 마음 치유에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열어주는 자기 계발서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장과 부록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으며, 각 장의 문을 열 때면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을 담고 있는 무생화, 수미산, 일엽편주, 야화, 나그네 등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요도 만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전국 서점 판매중!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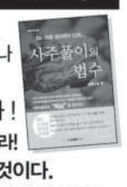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불교의 '中道'를 현대 詩에 꽃피우다

불교로 읽는 古典
엘리엇의 詩選



조의연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엘리엇은 하버드 대학원 철학과 시절 인도학 공부를 통해 계몽된 신비화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회고한다. 그의 대학원 시절의 노트나 에세이는 현재까지도 하버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인도에 대한 박식함이 잘 드러나 있고 대학원 당시의 철학 연구 계획의 약 1/3이 아시아 철학과 언어학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학위과정 수업에도 불교연구와 관련된 과목이 눈에 띄었고 그의 노트에는 중도(中道)를 지향하는 인도의 대승불교의 학파이자, 나가르주나에 의해 창건된 중관파(中觀派)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엘리엇은 실제로 시를 쓸 때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상당히 불교에 침잠해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는 칠레의 한 여류 시인에게 불교는 자신의 작품에서 평생의 영향으로 남아 있으며 〈황무지〉(Wasteland)를 쓸 때 자신은 거의 불교도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엘리엇은 〈셸리와 키츠〉(Shelley and Keats)론에서 "몇몇 초기의 불교 경전들은 구약성서의 어떤 부분들처럼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바 있으며, "오래 전 나는 고대 인도어를 공부했으며, 그 당시 나는 주로 철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 다소 읽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시가 인도 사상과 감수성의 영향을 보인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는 또 '현자 괴테(Saga Goethe)'를 자신의 초기 불교 경전 및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 독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문맥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텍스트들과 사상들은 엘리엇에게 평생의 중요성을 가졌었다. 이러한 인도와 불교의 사상이 드러나는 내용이 그의 시 〈사중주〉(Four Quartets)의 '번트 노튼(Burnt Norton)'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도, 정연한 모형을 지으며,
텅 빈 골목을 따라, 희양목 원 속으로,
들어가 말라붙은 연못을 들여다본다.

메마른 연못, 메마르고 굳어진,
가장자리는 갈색,
그리고 연못은 햇빛과 함께
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연꽃이 떠올랐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수면이 빛의 핵심을 받아 번쩍거린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뒤에 있었다,
연못에 반사되어.
그러다 구름이 지나고, 연못은 텅 빈다.

So we moved, and they, in a formal pattern,
Along the empty alley, into the box circle,
To look down into the drained pool.
Dry the pool, dry concrete, brown edged,
And the pool was filled with water out of sunlight,
And the lotos rose, quietly, quietly,
The surface glittered out of heart of light,
And they were behind us, reflected in the pool.
Then a cloud passed, and the pool was empty.

컨즈(C. M. Kearns)와 같은 비평가들은 위 시의 표현을 지금까지 영어로 쓰인 'shunyata,' 즉, 공(空)의 체험에 관한 시구 중 가장 뛰어난 표현으로 꼽고 있는데, 단지 소재에서의 인유라기보다는 그의 불교적인 감수성과 감각 및 사유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April is the cruellest month)"로 시작하여 "주라. 공감하라. 자제하라. 평안 평안 평안(Datta. Dayadhvam. Damyata./ Shantih shantih shantih)"로 끝나는 '황무지'는 한 편의 정신적인 여행으로 볼 수 있다.

이 표현은 반야심경의 "관자재 보살이 심오한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다 공임을 조견하고 일체의 고액을 건넌다"로 시작하여 "닿았노라, 닿았노라 피안에 닿았노라 피안에 와 닿았노라 깨달음에 이르러 기쁘도다"로 끝나는 표현을 연상하게 한다. 두 편의 서사가 모두 죽음과 고행으로부터 평안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인 유사성이 드러난다.

또한 황무지는 마치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다양한 선지식을 찾아 헤매는 구도의 행적을 보여주듯, 인류의 역사를 조감하는 지혜 탐구의 여로로도 읽어볼 수 있다.

엘리엇의 대표적인 시론인 몰개성 시론(impersonality theory) 역시 불교의 핵심 교의인 연기적 사유를 보여준다. 화엄종의 제3조 법장(法藏)의 금사자장(金獅子章)은 연기를 설명하여, "금은 그 자체가 본성을 갖지 않기(無自性) 때문에, 금세공사의 수작업(緣)으로 사자의 형태가 드러난다. 그것은 다만 수작업이라고 하는 연(緣)에 의해 존재할 뿐이므로 연기라고 하는 것이다"고 쓰고 있다. 재료로서의 금 자체에는 사자로 드러날 본질이나 의지가 없고 다만 금세공사의 손질이라는 연에 의해 사자로서 드러날 뿐이며 이것이 연기다. 결국 화엄교학의 연기설은 모든 사물이 무자성이라는 것, 어떤 사물에도 실체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 할 만한 것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T.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1888~1965)의 사진.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극작가인 그는 인도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그가 1922년에 발표한 '황무지'는 현대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엘리엇은 194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인도학 심취하며 불교 관심
스스로 불교에 침잠함을 회고

엘리엇의 대표적 시 '황무지'
불교적 사유와 감수성 담겨
시 곳곳에 중도 · 연기 사상이
"상처의 시대, 치유법 제시해"

그의 몰개성 시론이 드러나는 '전통과 개인 재능'에서 "성숙한 시인의 정신은 특별한, 또는 매우 다양한, 감정들이 멋대로 그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조합들을 만드는 매개체"라고 설명하고 시인 정신은 자신은 변함없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결합하도록 촉진시키는 촉매와 같다고 정의했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시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제멋대로 시인 정신이라는 매체 속에 들어와 연(緣)을 맺고 이에 의해 새로운 조합을 만든 것일 뿐, 그 자체의 자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그의 시학은 연기설의 속성과 유기적으로 공유한다.

엘리엇의 철학과 문학을 파악해볼 수 있는 주제어로는 '관계성'이 있다. 이는 색(色)의 공성(空性)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관계론적 원리인 연기설과 역시 관련이 있다. 엘리엇에게는 어떤 객체도 밖으로부터 의미를 받아들이는 관계들의 얽힘에 의해서만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개체나 요소는 마음 속에서 단번에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관계들의 거미줄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의 실체는 그 자체로서 정확하게 고정될 수 없다.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 오직 다른 대상들에 대한 중첩하는 관계의 얽힘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엘리엇은 박사학위논문인 "F. H. 브래들리의 철학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 H. Bradley)"에서 "자아는 하나의 구축물이다(The self is a construction)"고 쓰고 있다. 그리고 자아는 하나의 세계에 의존하며 이 세계 역시 자아에 의존한다는 말로 자아와 세계가 상호 의존적임을 밝힌다.

일체의 구축이 여러 요소들의 결합물이며 이와 같은 구축의 허구성 또는 불변성을 탈구축(de-construct)하는 것이 엘리엇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의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비개성주의 또는 몰개성 시론은 이 개념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볼 수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 일체 현상의 연기적인 구축에 공을 드러내는 것이 공(空)사상인데 엘리엇이 관계 얽힘의 시학에 이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엘리엇은 세계가 선험적으로 하나일 수도 있고 선험적으로 여럿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세계는 화엄연기(華嚴緣起) 세계의 기본 구도이다. 엘리엇은 이 두 견해가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본다.

어떤 내용이 적절하려면 설명의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시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더 많은 문맥들과 관계들의 얽힘을 내포해야 한다. 엘리엇이 단일한 조망, 단일한 시점을 유지하는 설명보다 시점의 변화와 다중적인 조망들을 허용하는 서술을 더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원효의 화쟁사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엘리엇은 〈사중주〉의 '이스트 코커(East Coker)'에서 "나는 여기, 중도에 있다"(here I am, in the middle way)고 쓰고 있다. 몇몇 비평가들은 이 시구가 불교적 중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불교에 있어서 중도는 존재의 모든 고정된 공식들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성취되는 해방의 길이며 불교의 중도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형식들과 공간의 관계에 집중한다. '번트 노튼(Burnt Norton)'의 '비존재와 존재 사이의 제한의 형태(the form of limitation/ Between un-being and being)' 또한 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회전하는 세계의 정점에.
육(肉)도 아니고 탈육(脫肉)도 아니고,
어디로부터도 아니고 어디를 향하여도 아니다; 정점에, 그곳에 무도가 있다,
그러나 억류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이라 부르지 말라,
과거와 미래가 모이는 곳. 어디로부터의
움직임도 어디를 향한 움직임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다.

At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 Neither flesh nor fleshless;
Neither from nor towards; at the still point, there the dance is,
but neither arrest nor movement. And do not call it fixity,
Where past and future are gathered. Neither movement from nor towards,
Neither ascent nor decline.

이 표현은 여실히 불교의 중도 사상과 니르바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엘리엇 시에서 '정점'(still point)은 언급된 것처럼 고정되지 않고 억류나 움직임이 아니다. 불교에서 세속은 열반과 다르지 않고 열반과 세속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다음의 표현도 중도 사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이르자면
그대는 무지의 길로 가야 한다.
그대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코자 한다면
그대는 무소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대가 아닌 것에 이르자면
그대가 있지 않은 길로 가야 한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아는 유일한 것이고
그대가 소유하는 것은
그대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고
그대가 있는 곳은
그대가 있지 않은 곳이다.

You must go by a way which is the way of ignorance.
In order to possess what you do not possess
You must go by the way of dispossession.
In order to arrive at what you are not
You must go through the way in which you are not.
And what you do not know is the only thing you know
And what you own is what you do not own
And where you are is where you are not.

이렇게 엘리엇은 중도와 무소유의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반면에 지혜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고도 말한다. 그의 철학적 사유와 문학 활동 그리고 지혜탐구는 동전의 양면처럼 몰두와 무소유의 입장이 병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엇과 불교는 중도라는 쟁점에서 상통하는 비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사유는 여러 상충하는 이념들로 인해 또는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분열된 우리 시대에 필요한 통합적인 치유를 제시하는지도 모른다.

무구스님과 함께하는 인도불교 성지순례!

성지순례 + 세계문화유산 탐방 할인특전에
선착순으로 모십시다!!!

▶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 12월 5일 (9박 10일)
▶ **여 정 :** 델리 - 아우랑가바드(엘로라 석굴사원, 아잔타 석굴사원) - 보팔(산치대탑) - 오차(사원) - 카주라호(사원) - 사르나트(녹야원) - 아르라(타지마할) - 델리 - 인천공항
▶ **경 비 :** 1인 / ₩ 2,800,000
▶ **문의전화 : 우리출판사 02-313-5047 · 010-5474-1233**
▶ **계좌번호 : 신 한 은 행 100-016-214784 (수효사 김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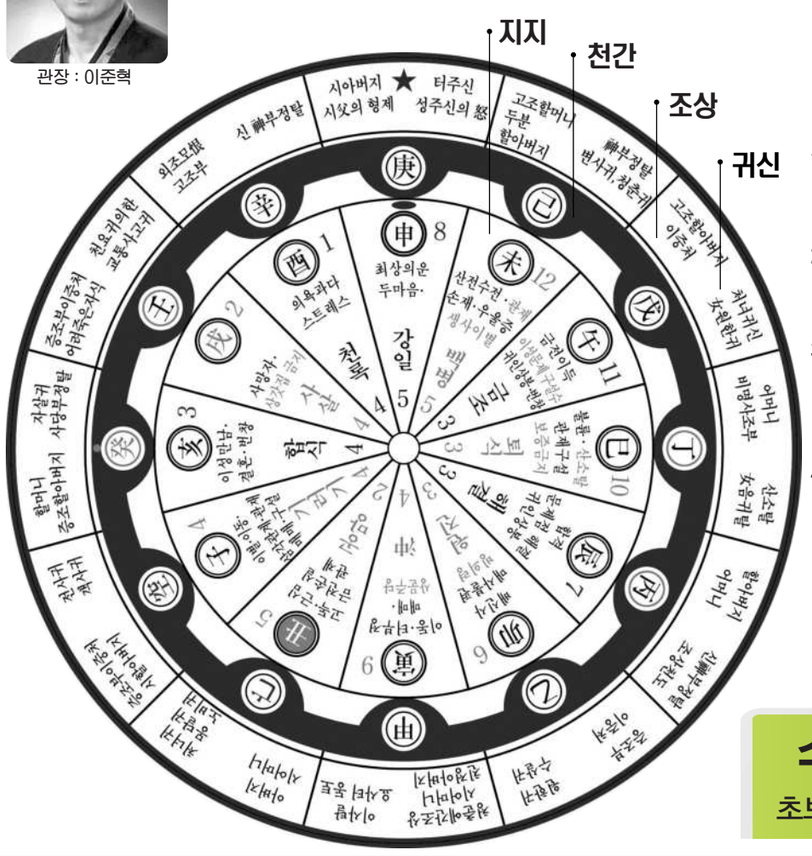
※ 전 일정 호텔 숙박 및 한식 제공으로 인도여행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관장 : 이준혁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 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궁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렵니까?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4) ·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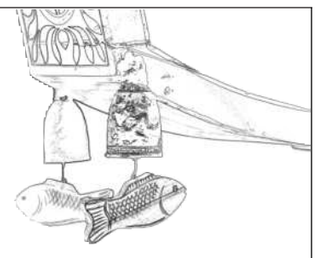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일 사람이 죄와 복을 지으면 그것은 지은 자의 것이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언제나 지은 대로 지고 다녀야 한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거지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시각장애자 71세
무소유 초대종정 대종사입니다
남은 여생 암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010-9003-7783

최 면 공 부

주1-2회, 3시간씩,
총 5회, 55만원.
단체환영, 시간,
돈이 없는 분 상담환영
프로최면 강태현 합장
010-9609-191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혼상례, 화환, 케이크

유능한 지점장
시,군,구 지역별 차등 등록
비. 5년계약, 성실한 분
등본,이력서,사진부착,종교
기입,신분증,건강진단서
070-8849-3011
사회적상부상조 협업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천일기도 노전자리 원합니다

50대 태고종 비구입니다.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지역 사찰에서 지극한 신심으로 천일기도 할 수 있는 사찰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계종에서 기도, 한 20년 했습니다
010-6216-4133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50대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서울 북한산 용암사 부전스님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9350-3216

구 인 광 고

미국령(사이버) 미국.대학교
이사장,총장,영입운영
가능하신 분. 양도 및 투자 원함.
2007년 등록
현재영업 (라이센스)
010-8774-2040

불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경북 울진)
010-8957-47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철학관, 작명소 영업할분

(명리학) 신살육신법,격국용신법,
횡사예방법,영가길흉법
- 점사:육임,육호,기문,귀장,
당사주활용법
(성명학) 작명,개명,상호,신생아
- 한글,한문,영어작명법,싸인
감정법(특강:관상학,수상학)
*고승,명사 쪽집게 통변개인전수함
010-5564-2488

한가족, 한식구 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50-60대까지,
조계종 대구 청계사)
010-3254-8930

천 둥 · 번 개 · 벼 락

- 천둥번개를 부리는 무서운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바꾸는
기도법을 특별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중국기문,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여자 상좌를 구합니다

보연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9번지)
* 사찰에 거주 (주 · 야간)
하실 분
010-8920-5663
031-848-0663
011-888-2727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권 선 문

지장도량에 명부전 건립과 지장보살님, 십대왕 조성불사에 시주 설판이나 화주하여 주시는 분께 10여분 큰스님 작품 2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뜻 깊은 이번 대작불사에 지극한 정성과 큰 자비심으로 도와주시면 평생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큰 인연으로 무량복덕을 지으시고 생사고행을 벗어나서 성불하십시오.
연락처 : 경북 안동 덕왕사 054)853-3855. 010-9890-1237
계좌번호 :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입니다.
기도 중에 전화 연락이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원각 합장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지리산에서 수만평 약초 재배로 자급자족하는 조용한 선사에 기도정진하며 생활 할 비구니 스님 2분, 처사님을 모십니다

010-4924-372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치유요법 강좌

-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요일) ~ 12월 11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까지 총 9강
- 장소 : 사단법인 녹색연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대구, 수성구 동원로 91 / 3층)
- 모집인원 : 선착순 9명
- 주간 개인지도 : 부처골 지장선원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 2길 136
- 입금 : 농협 703088-51-013554 / 메일 : jijangsw@naver.com
- 강의 : 대체의학 초능력심령치료의 대가 혜봉스님 www.jijangsw.com
- 전수비 : 35만원. 회향하는 지식나눔의 재능기부로 (특별 70% 할인 교육 강좌비)

010-8585-4908 / 054)383-8553
2급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자격증 취득 가능 / 중점강좌 : 복부, 어깨, 목허리, 오십견, 독소 빼기 / 우울증, 불면증, 빙의, 영적질병, 영동 수기, 족기 치유요법 / 장수 주천도수법 / 영동신기술 (단기 속서지도 가능)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 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 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되 어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 본생경 -

사 찰 안 내

사 찰
- 위치 : 부산 금정구
- 대지 : 1,000평
- 건물 : 법당, 용왕당, 노상부처님 요사채, 방6개.. 주차장
- 묘땅 : 1억 7천(스님 사정으로..)

※필히 방문 상담, 전화상담요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양도세. 취 · 등록세 전문상담(무료)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신도시 사찰
- 위치 : 김해시 주촌
- 대지 : 658평
- 건물 : 80평(법당,요사채,산성각,주차장,텃밭)
- 산세가 수려함
- 가액 : 7억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북팔공산 사찰 양도
- 법당.삼성각목조 스님실.공양간
- 방사20개총건물5동 토지4,600㎡
- 대구시와 근접된 아주좋은 산속
- 양도금액 : 8억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포교원 선원

- 위치:부산시동구수정동(버스정류장) 전철역 1분거리
- 상가 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무량수전, 지장전 등)
- 공양간, 방 3개 등 생활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0-6413-046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8천
◎ 위치 경기수도권
◎ 종교용지 : 1300평
◎ 법당 : 50평,전각 3채
◎ 요사 : 100평,
◎ 양도 : 15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북 경산시 조용한사찰 양도
* 법당42㎡. 요사채 85㎡. 토지 약 3,000㎡
* 주변이 산과 마을.대구시에 근접된 사찰
* 양도금액 : 토지 값 정도로 2억 8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 거리
- 건물 :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 수목장, 등 적지)
- 가액: 6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불가)

010-7376-172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명당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동남향
- 지목 : 임야 (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당 10만원 약 2,200평
-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사 찰 안 내

- 제주도 서귀포시 돈내코 초입에 위치한 숲속의 사찰
- 큰법당. 산신각, 요사채(5칸), 주차장, 인터넷 등 설비 완비
- 가액 :1. 전세: 5천만원
  2. 보증금 3천만원+ 년세300만원(1,2항중 선택)
  3. 비품,시설비 없음

010-5214-7872(스님)
010-5816-5623
064)762-4690(책임자)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안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 면적 : 총 55평
- 법당구조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소불
- 음향시설, 방2개, 거실, 공양간 시설은 A급. 몸만 오세요
- 가액:보증금전세1,000만원월60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2,500만원

010-2610-9997

포교원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달동 874-4번지 3층 (교보생명 빌딩 뒷쪽)
- 평수 50평, 법당, 방3, 주방, 화장실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100만원

010-8928-9494
010-7132-9157

사 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삼존불)
- 법당,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뜰밤나무도 있음
- 기도하실 스님이나 보살님 대환영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대지 : 약 420평
- 법당1동, 요사채 1동
- 공찰 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져 함

010-4263-0801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음성 감곡면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방3
- 공양간 화장실 2개, 창고 1, 텃밭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없음
- 오랫동안 사용가능
- 주지스님 이주 관계로 급 안내 그리고 내부시설 협의 가능

010-3293-1705

사찰 암자 기도터 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2길 484-3
- 면적 2,000평, 법당, 요사채
- 산신각, 용왕전, 미륵전, 기도방 2동
- 뒷산 밤나무 100주(매년 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 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 지상물 일체포함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3억

011-278-944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 평수 35평, 3층 건물의 3층 외 방1개, 옥상 30평 이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칠성탱화, 영가단, 앰프 및 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등, 주방집기 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403-370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시청 부근
- 대지 78평(건물 70) 3층 전체, 옥상전체사용
- 4존불, 보물급후불탱, 삼성각 별도 위치, 음향시설, 에어컨4개, 방3개, 종무실1, 후원, 다실1, 옥상창고25평. 몸만오시면 됨
- 현 불교대학 명상센터 방편 있으신 분 유리
- 가액 : 전세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집기 및 시설비 상호절충 시설 최고(개인용품 제외)

010-8737-458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전망 좋음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8억
-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 2층 건물중 2층 독채 55평
- 방3, 거실, 욕실, 화장실, 도시가스
- 인법당, 법당종,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982
- 땅 320평, 옆쪽 계곡 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여 먼 앞쪽에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토성 작업 완성되었습니다
- 땅까지 포장도로 되있음. 대형차 진입가능
- 정남향 좌청룡 우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 사찰 전원 주택 팬션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 가액 : 7천만원

010-3544-9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천하명당)
- 평수 270평, 법당 2층 건물 25평
- 삼존불 인등 700등
- 1층 13자 방 2칸, 샤워장 별도
- 요사채:공양간, 창고10평, 방2칸 화장실 2칸 별도, 주인직거래
- 가액 : 4억 7천(창원불사 관계로)

010-7169-9878

포교원 임대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20평, 코너 남향쪽
- 건물주가 신도여서 협조함
- 2층 건물 2층, 간판 연등 잘 보임
- 포교원 부전스님 소개

010-5381-1419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룸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등기소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사통팔달 교통 편리, 지하철역 근접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 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신축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목조주택, 인법당
- 대지 100평, 건평 25평
- 실평수 35평정도
- 동남향 마을끝집 옆길 있음
- 개인토굴 장만하실 스님 적합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2억 1천만원(절충가능) 대출 6,000만원 정도됨

017-808-254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평수 : 45평,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010-3868-7435

단독주택(급) 안내

- 대지 63평, 거물 34평
- 3층 단독주택
- 포교원으로 적합
- 방 9개, 마당 있음
- 주인직, 가액조절가능
- 가액 : 6,300만원

010-9755-5038
010-5505-650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1동, 요사채1동, 창고1동 방4, 입식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1억 5천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010-4439-4499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해도동
- 평수 : 35평 5층(승강기운행)
- 삼존불 외 모든시설 완벽
- 보증금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어려운 스님께 저렴하게 드림
- 모든 주거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 됨
- 금융기관 시장 밀착지역임

010-3999-3891

포교원(선원)안내

- 경기도 의정부역 시청방향 도보 3분(차고유)
- 법당1, 방2, 다락방1, 부엌, 실내화장실, 40평
- 황토방 같은 깨끗한 집, 즉시 법회 가능
- 시설 최고 시설비 무
- 가액 : 전세 7천만원 / 3천만원 월 50만원

010-2304-173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철 도보 3분
- 평수 : 125평, 3층 건물
- 1층 요사채 24평
  2층 법당24평(원목)
  3층 다용도실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융자 1억2천만원)
- 실입주금 : 1억 3천만원

010-9150-86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2,500평, 모든 조건 완비
- 복지요양연수원 등 수익성
- 사찰운영중 18억
- 춘천 3,600평 대지 전 임포함
- 가액 : 3억6천
- 최고조건 절충 교환가능

010-4880-789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당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오셔도됩니다

010-8653-3216

토굴(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대지 : 326평
- 물좋고. 인심좋은 시골촌집
- 가격: 4.500원(사천오백만원)

010-4296-8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레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 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 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 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 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 가능, 주인직접)

010-2608-7277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 현재사찰 운영 중, 모든 조건 완비
- 서울 상계 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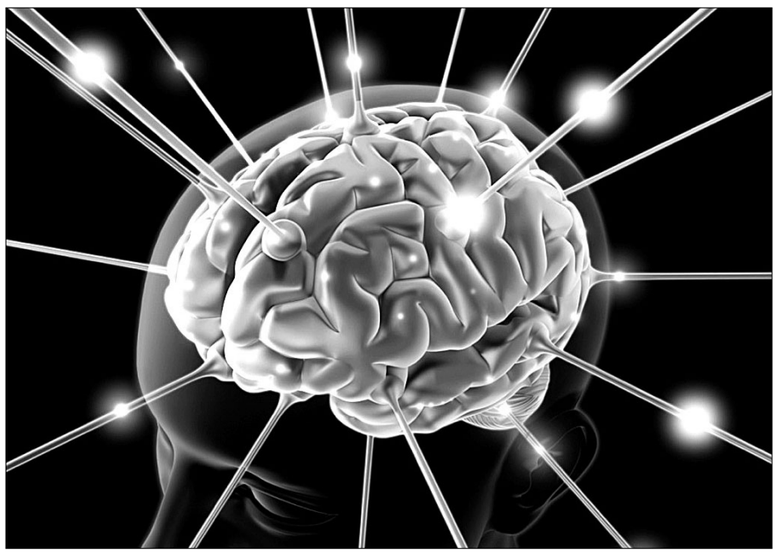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뇌연구 박사)

〈1〉 에고, 마음, 의식

"사고의 통제력 되찾으려면 '알아차림' 하라"

인간의 뇌와 의식에 관해 40년 이상 연구해 온 저자 에릭 호프만은 〈이타적 인간의 뇌〉(불광출판사 刊)에서 인식 패러다임을 바꿀 뇌의 네 번째 진화에 대해 탐구한다. 이 책은 뇌의 진화에 따른 의식 상태 변화와 뇌 활동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실험하고 관찰하여 새로운 뇌 이론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에고 중심의 좌뇌가 우뇌를 통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좌우반구의 균형 회복을 주문하고 있다. 본지는 그 내용을 발췌 · 요약한다. 〈편집자 주〉



의식은 인간의 마음과 다르다

나는 의식이 뇌의 진화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마치 누군가 마법을 부린 듯 갑자기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나의 관점에서 의식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인 일면으로서 무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의식을 찾으려고 뇌를 조사하는 것은 영상과 소리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알아내려고 텔레비전을 분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의식은 뇌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뇌에는 의식이 거처하는 장소가 결코 없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다. "뇌를 제분기 크기로 확대해서 그 내부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다 해도 결코 의식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의식은 영원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변함이 없다. 의식이 뇌와 정신을 통해 인간에게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변할 뿐이다. 인간의 정신은 임시 창조물에 불과하며 끊임없이 진화한다. 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신적, 정서적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뇌와 기능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정신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원한 의식(Consciousness)과 인간의 의식으로서의 마음(conscious mind)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원한 의식은 절대적이고 형체가 없고 우주의 근본적인 일면이며,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의식의 한 가지 형태로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임시 창조물이다. 영원한 의식은 뇌의 질량과 복잡성이 충분히 발달한 결과, 물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 마음은 영원한 의식과 우주 에너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A New Earth)〉에서 영원한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당신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면 의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대답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왜곡한 것이며 또 하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 주체, 그 나, 그 아는 자, 이것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알 수 없고 지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뛰어난 저서 〈과학에서 신으로(From Science to God)〉에서 피터 러셀은 현대 과학이 영원한 의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양 과학은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

러셀의 주장에 따르면, 영원한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며 뇌와 신경계는 영원한 의식의 증폭기로서 더욱 수준 높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는 뇌를 영사기에 비유한다. 영사기의 빛은 영원한 의식을 나타내고 필름은 정신을, 스크린 상의 이미지는 경험을 나타낸다. 영사기의 렌즈는 뇌와 신경계에 해당한다. 렌즈가 없어도 스크린에는 여전히 빛이 비친다. 하지만 이미지의 선명도가 훨씬 감소한다. 동물들은 아마 그렇게 세상을 지각할 것이다.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덜 발달했기 때문이다.

마음과 에고

마음(mind)은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정서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의식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인 활동까지 포함한다. 감정을 자극하는 강박적 사고는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나는 여기서 마음의 일부로서 개인을 지배하고 대개 개인과 동일시 되는 것을 일컬어 에고(ego)라 지칭했다. 에고는 마음과의 무의식적 동일시가 만들어낸 거짓 자기(false self)다.

에고는 개인의 과거사를 통해, 그리고 그의 마음의 정신적, 정서적 활동을 통해 자기감(sense of self)을 얻는다. 또한 에고는 학벌, 직위, 인간관계, 재산 등 외적인 면을 자신과 동일시 한다. 이 외적 측면은 개인의 참모습과는 당연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The Power of Now)〉에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주시하는 영원한 의식으로서, 즉 관찰자로서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 바로 에고이다."

기본적인 에고 양식(ego patterns)은 저항, 통제, 권력, 탐욕, 방어, 공격이다. 에고는 저항을 통해 성장한다. 〈요가: 자유에 이르는 길(Yoga: The path to liberation)〉에서 인도의 신비주의자 오쇼는 에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싸우지 않으면 에고는 단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에고가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협력이 필요하며, 당신은 싸움과 저항을 통해 협력한다. (그러나)당신은 우주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므로 우주와 싸운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당신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모든 싸움은 기본적으로 실존에 맞서는 것이다."

에고는 사고를 담당하는 좌반구와 주로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질 테일러(Jill Taylor)는 좌측 측두엽에 뇌졸중을 겪은 신경해부학자로서 저서 〈긍정의 뇌(My Stroke of Insight)〉에서 그 의견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회복되는 동안 나는 완고하고 오만하고 빈정대고 질투심이 강한 나의 성격을 맡은 부위가 손상된 좌반구의 에고 중추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의 에고가 자리한 그 부위로 하여금 쓰라린 패배자로 느끼게 하고 원한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복수를 꾸미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성격들이 다시 깨어나자 새로 발견한 나의 우반구의 순수한 성품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결론을 말하면, 마음은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으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능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면 마음은 자신의 삶과 싸움을 벌이고 매우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마음이 영원한 의식의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영원한 의식' 이란 절대적이고 형체가 없고 우주 근본의 일면

'마음' 은 영원한 의식의 한 형태로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임시창조물

영원한 의식과 우주에너지의 상호작용 결과로 탄생한 게 '마음'

개인을 지배하는 에고(ego)는 학벌, 재산 등 외적인 면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거짓 자기

마음 그 너머: 의식적 사고의 힘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의 사고와도 동일시한다. 많은 이들이 사고가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사고는 상당히 과대평가되고 있다.

사고하는 마음 그 너머에 직관, 사랑, 연민, 창의성을 나타내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존재한다. 이 고차원 의식이 사고를 책임질 때, 나는 그것을 '의식적인 사고(conscious thinking)' 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사고는 의식적이지 않다. 사고는 관찰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며 매우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다. 생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생각이 실체가 없는 빗물질 현상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와 두뇌에 영향을 끼치는 전기화학적 현실이라는 것이다. 생각은 마음에 필요한 '음식' 이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지극히 중요하다.

예전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찾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요. 하지만 우리 클리닉에서는 생각을 멈추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변호사는 무척 당황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그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없애줄 거라는 말에 겁을 먹고 그 변호사는 결국 훈련을 포기하고 말았다.

생각은 귀중한 도구다. 분석하는 마음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가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내면 대화에 몰두한다. 자신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일일이 평가한다. 이 내면 대화는 거의 언제나 무의식적이다. 우리가 그 대화를 토대로 현실을 지각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내면 대화는 또한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 감정들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그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생각의 90퍼센트 정도가 자동적이라는 것이다.

그 수많은 생각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무의식적으로 돌고 돈다. 대체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생각이 우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 골몰하고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통제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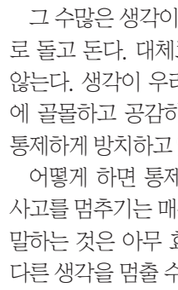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강박적 사고를 멈추기는 매우 어렵다. 생각을 멈추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한 생각을 이용해서 다른 생각을 멈출 수도 없다. 그 명령은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져야 한다. 따라서 당신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이고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 과정 자체를 더 높은 곳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오쇼의 말처럼 "언덕 위의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의식을 사고의 수준 '그 위' 로 높일 수 있다.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 생각을 주시하고 있는 관찰자라는 것도 알아차림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끼어든 것이다.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사고는 힘을 잃고 점차 잦아든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림 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언제 생각을 할지 그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골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차림하고 더욱 또렷하게 깨어 있으며 현재에 존재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에릭 호프만의 〈이타적 인간의 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에릭 호프만(Erik Hoffmann)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심리연구소에서 조교수로 8년간 재직했다. 주요 연구 영역은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와 변화된 의식(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이다. 미국 뉴저지 주의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에 방문교수로 여러 번 부임하여 정량화뇌파검사(QEEG)를 이용해 정신질환자의 뇌 기능을 연구했다. 2001년 여름, 잉거 스핀들러와 함께 코펜하겐 근처의 심비온사이언스파크에 멘탈 피트니스 앤 리서치 센터(Mentak Fitness &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서 ADHD 아동과 스트레스 문제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뇌파 훈련과 브레인매핑을 시행했다. 인간의 뇌와 의식에 관해 40년 이상 연구해온 그는 2007년 이후 연구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 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 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갤러리 색즉시공



또 한 편의 가을

불단엔 향 한 그루 뜨겁게 서있고
시절 잊은 석탑 위로 드높은 하늘

간밤에 추웠던 마당 위로 행자는 걷고
깊은 곳에서 짙어가는 노장의 기침 소리

깊어진 하늘을 구름이 채웠으니
지난날의 가풍은 누가 이을 것인가

차가운 바람 처마 끝에서 사라지면
법당 찬 바닥에 누군가 또 좌복을 편다

또 한 시절이 끝나는가
담장 너머 단풍이 날아든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영생불멸 원한 소년의 자성 찾기

Buddha in Comic & Ani

⑲ 린타로의 '은하철도 999'



린타로의 '은하철도 999'의 포스터

현재 한국 사회의 30 · 40대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 한 애니메이션을 꼽자면 '은하철도 999'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판 오프닝은 가수 김국환 씨가 구성진 목소리로 불렀고, 당시 아이들은 이 노래가 들리면 TV 브라운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은하철도 999'는 일본 만화가 마츠모토 레이지의 원작을 1970년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켰던 린타로가 감독한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1978년 9월부터 1981년 3월까지 2년 6개월 간 총 1백13회 TV시리즈로 방영됐고, 이후 '안녕, 은하철도 999' · '은하철도 999- 이터널 환타지' 등의 극장판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은하철도999'는 주인공 철이(원작명 호시노 테츠로)와 메텔이라는 미모의 여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안드로메다에 가는 우주여행 모험기이며 장르로는 로드무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매회 한 행성에 도착해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종착지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별을 향해 가는 게 '은하철도 999'의 주된 플롯이다.

이는 기계인간이 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거듭하는 철이와 메텔의 여정은 마치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의 구도기와 흡사하다.

진리를 얻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나가는 선재동자와 여정을 거듭하면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해나가는 철이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길을 떠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둘은 여정을 통해 진리와 인간에 대한 성찰을 이룬다. 실제 1백여 회에 달하는 TV시리즈의 내용은 곳곳에 불교적 코드를 담아내고 있다.

"원래 이 우주에는 물체에 모양이 없는 것이 옳은지도 모른다. 사람이든 별이든 모양 그 자체는 모두 덧없는 것이다. 잠시 동안 가짜 탈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탄식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모양이 없는 혹성 누르바' 중에서

이는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이든 하나로 고정된 것은 없다'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정 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는 주제는 '은하철도 999'의 전편에서 걸쳐 관통한다. 철이는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무상함'을 깨닫는다. '모든 것은 무상할 뿐'이라는 주제 의식은 '은하철도 999'의 극장판인 '안녕, 은하철도 999'에서 더욱 명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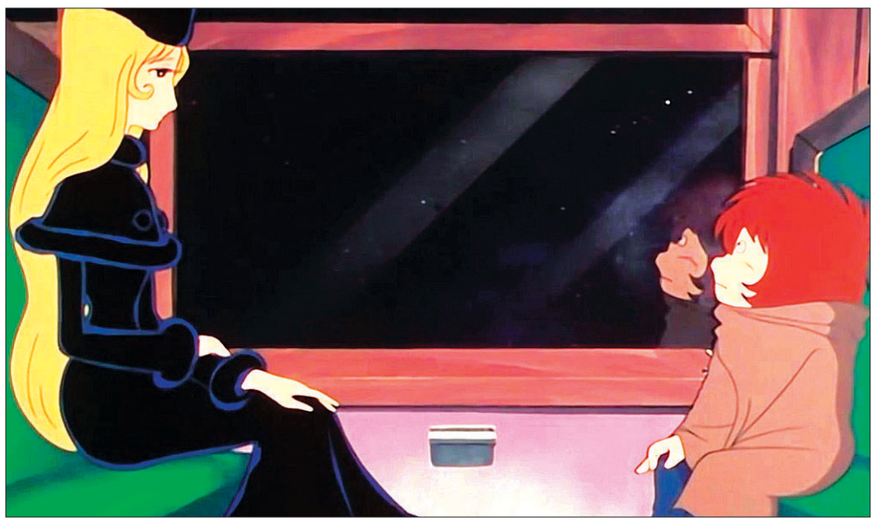
메텔의 어머니 프로메슘과 아버지 닥터 반은 영원의 세계인 '기계 제국'을 건설해 인간의 불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인간이 사라진 기계제국이

철이의 기계인간 되기 위한 여정
'화엄경' 선재동자 구법 순례 유사
"모든 것은 변한다" 진리 깨달아

만들어지자 닥터 반은 깊은 회의에 빠지고, 우주 최고의 전사였던 파우스트(철이의 아버지)는 기계제국의 전사가 된다. 기계제국에 도착한 철이는 기계인간이 되기 직전 스스로 인간이기를 선택한다.

기계인간과 제국은 유한할 수 밖에 없는 삶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생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산물이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은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면서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알고 있던 기계인간도 인간의 영혼이 담긴 캡슐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마는 불완전한 존재였다.

기계 몸을 얻어 영원을 소유하려 했던 철이는 인간



선재동자 구법여정이 담긴 〈화엄경〉입법계품과 유사한 '은하철도 999'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기계인간이 되기 위한 철이의 여정을 그린다. 철이의 여정에서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며 이를 통한 성찰이 이뤄진다. '은하철도 999'는 솔직히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의 욕망이 빚어낸 현실 앞에 분노하고 스스로 레지스탕스가 돼서 기계제국과 싸워 나간다. 결국 철이는 자진해서 기계인간이 된 아버지 파우스트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고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기계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그곳이 가지는 강한 에너지에 이끌려온 소리없는 마녀 '사이렌'(블랙홀이라고 보면 된다.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강한 에너지원을 찾아 이동하며 별을 통채로 집어삼키는 우주의 무덤으로 상징된다)때문이다. 애초 기계인간이든 인간이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작가 마츠모토 레이지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해 왔다. 인간은 유한적이나 시간은 영원하다. 결국 철이가 여정의 종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자식에게서 그 다음 자식으로 이어지는 계승적인 유대가 바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진리였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여행의 동반자 메텔도 철이를 '남자'로 인정하고 홀연히 떠나간다. 메텔은 소년에게 사랑과 모성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 여성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텔은 철이에게 '청춘의 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와의 작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언젠가는 꼭 거쳐야할 성장통이면서도 모든 인연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한여름 밤의 소나기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청춘이라는 존재처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 스님

지금 한 생에 알아놓으면 세세생생에 꽃이 핍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제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직장도 뭐, 특별히 목표를 세워서 출세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자연스럽게 놔지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돼야 한다는 그런 욕심도 '그냥 자기 업대로 인연 따라 살겠지.' 하고 놔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놔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제가 환자여서 지금 현재도 불편하면서도 환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오르막 길이든지 내리막 길이든지, 현실에 부닥쳐서야 '아 참, 내가 아프지.' 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리인지 지금도 의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도 그렇고 또, 직장 일에도, 무관심한 건 아니었지만 주어진 여건을 소화만 해 나갔는데도, 역시 또 생각보다 빠른 진급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안달을 해도 잘 안되더니 그냥 맡겨 버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더군요. 이것이 맡기는 도리인지, 그래서 진급도 이렇게 해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생각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차를 못 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버릇이 없어져서 경우에 따라서 자가용이 없으면 좌석버스도 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면서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의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등산하다 넘어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디 눈에 보이는 상처 부위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현세의 어떤 업이 아니라 전생에서 제가 무슨 업을 지어 가지고 온 모양인데, 이게 무슨 업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녹여 나가다 보면 그 업도 금생에 녹여져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큰스님께 여쭤 보고자 나왔습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 사이에서 몸 하나를 받아서 내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끌고 한데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러니 과거는 없어요. 그래 배낭 속에 있어 가지고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지은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도 되고 영계성으로도 되고 아주 뭐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밖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 가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과로 인한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갚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은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깁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원수졌던 마음이 그냥 까맣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다 하지만 차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아까도 질문할 때에 나의 과거를 물었지마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걸 배워서 모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큰스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걸 맡겨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경계마다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겨 가면서 맡긴다는 사이 없이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정나는 것은 그 동안 건건이 나타나는 경계를 주인공에 맡겨 가면서 그것이 또 관(觀)한다는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생활 속에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니까 저의 힘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속에 큰 응어리가 져서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낱낱이 오는 그런 경계인 줄은 압니다마는,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그 낱낱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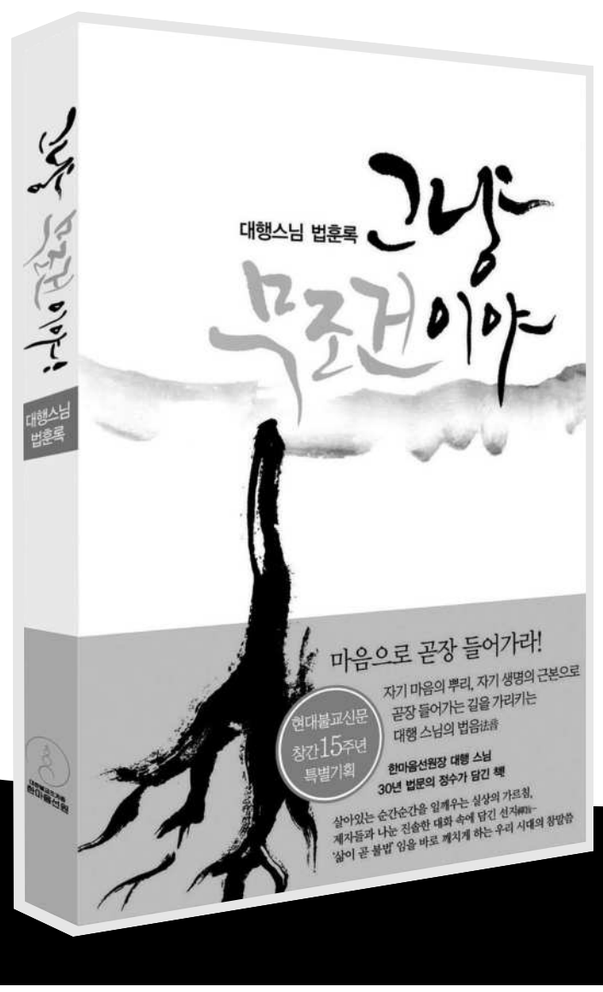
큰스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몰아서 닥치는 것도 댁이 공부하는 데에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작은 거나 큰 거나 엄청 많은 거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댁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타나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쫙 오든, 하나가 오든 쬐그만 게 오든 그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이구,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이러는구나. 팥죽 속에서 팥죽이 끓어서 팥죽 방울이 온갖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자3(남): 하나죠?

큰스님: 네, 하나죠. 그러니까 다 끓었으면 불만 끄면 금방 아닙니까? 허허허. 그런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까? 짐승 몸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습이 있겠지만, 인간으로 돼 가지고는 정신을 뺏기느냐 뺏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신을요. 지금은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야 안 뺏기고, 알아야 모두 굴리죠.

엊그저께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찻길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습디다. 가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무조건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는 길과 오는 길, 양면이 다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생각 없고, 가서 죽는 것도 생각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가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서 오는 것도 생각해야 이것이 핀트가 맞아지죠. 그래서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니다. 정신계와 육신이 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이 둘이 아니다. 넓게 본다면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아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 아닌 나'와 지금 '현상의 나'가 바로 같이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법을 굴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들이고 낼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 못한다면…. 그래서 '나 아닌 나'는 부(父)라고 하고 지금 '현상의 나'는 자(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작용을 하고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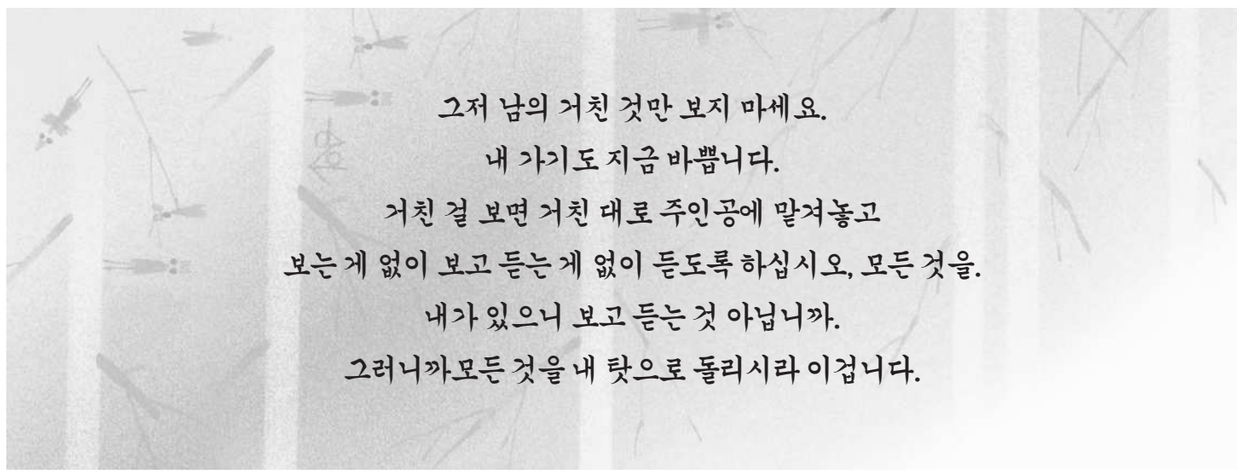
몇 달 됐지마는 L.A.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있는 박사나 그 외에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받으려고 논문을 쓰고 있는 생물학자니 철학자니 과학자니 뭐,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해 주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아래 위가 딱 맞게, 그냥 그 논문이 잘 써지더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이다, 저녁과 아침이, 24시간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났다, 이러더라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맞붙어 버린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삼천 년 전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화(化)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찰나찰나 나오는 대로 작용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탁발을 하면서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가 생전 그러지 않더니 아주 슬픈 내색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프게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여직껏 은사 스님을 모셔왔어도 우시는 일이 없고 슬퍼하시는 일이 없었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여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이따가 얘기하마." 그러고 가시거든요.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서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릴 듣고선 아니, 화창하게 웃으시더라 이겁니다. 아주 화창하게 웃으시니까 "아니, 또 웃으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생전 울고 웃는 것을 못 봤는데 아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래, 가서 얘기하마." 그러면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 아까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여쭤 봤습니다. 여쭤 보니까 글쎄, 성문 바깥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말라 빼들어진 귀신이, 즉 말하자면 아귀가 앉아서 있다가 그 스님을 보더니 달려들어선 매달리며 살려 달라고 그냥 애원을 하거든요. 애원을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아, 성 안으로 밥 얻으러 간 어머니가 오백 년이 되도록 안 나온다는 겁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내 어떤 땐 웃음이 나옵니다. "스님께선 꼭 그럭하실 수 있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걸랑은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성 바깥에서 이렇게 빼들어져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으니 그렇게 일러 달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오백 년이 되도록 밥 한 술 얻질 못해서 빼들어져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어 나가지 못했노라고 일러 달라."고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래서 그 스님께서 탁발한 밥을 좀 나눠 줘서 먹이고 나니까 아, 싱싱해져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만 상봉을 했죠. "아들과 어머니가 천지가 상봉을 하듯이 상봉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단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아까 왜 우셨습니까?" 하니까 "하도 애원을 하는데 불쌍해서 그랬느니라." 이러고, "웃음은 왜 웃으셨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글쎄 이것 좀 들어봐라. 내가 전자에 입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 내 자식놈이 발목을 쥐고선 그냥 못 가게 해 가지고, 나 죽이고 떠나라고 하도 그러길래 그냥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서 사대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입산을 했느니라."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아, 가다 보니까 그 참새가 바로 과거의 내 아들 녀석이 아니더냐? 그래서 너무 반가와서 웃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모두가 비유해서 말해 놓은 것이지만,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반을 못 보니까, 못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반 얘기만 한 거죠. 그래 몸은 성 밖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했다니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하고 웃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신다면 마음으로 빛보다 더 빠르게 달나라에 가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들을 수 있고, 또는 시시각각으로 화해서 나투기도 할 수 있고, 진드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면 한마음이 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발이다! 지렁이가 발이 없지만 지렁이 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서 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았다 한다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만 옳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귀신이 됩니다. 허허허…. 그리고 또 모자라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함이 없이 여러분의 그 괴로움을 덜어 주고 같이 해 주고, 아픔도 내 아픔과 같이 해 주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 공부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학술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해 봐도 공덕이 안 됩니다. 과학도 지금 물질과학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되고 정신의학이 돼야 하고, 정신과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맷돌을 하나 돌리려고 해도 심봉을 꽂아야 맷돌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맷돌에 넣고 가는 것도 심봉을 꽂아야만 갈립니다. 그런데 심봉도 안 꽂고선 "갈려 나와라, 갈려 나와라." 하고 바깥으로 쳐들고 빌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게 어떻게 공덕이 돼서 갈려 나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모두가 실상의 그 실천을 그대로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또 팔수레공법으로…, 허허허…, 모두가 이렇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죠. 그러면 다 살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게 있어야 살아 나오는 게 있고, 또 죽는 게 있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의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온통 그 끈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엊그저께도 내가 그랬지만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빼지 못해서 애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미줄이 뭡니까? 그것도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 잘못 가면 뭐가 잘못된다고 해서 날짜를 생각을 안 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질 않은가.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궁합이 따로 있습니까? 만날 그렇게 요만한 거 하나서부터 큰 거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간 데 없이 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탁 터진다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저 남의 거친 것만 보지 마세요. 내 가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거친 걸 보면 거친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보는 게 없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듣는 게 없이 듣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듣는 거지. 잘못된 것도 내가 있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시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로 뭉쳐야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죠. 모두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우리가 지금 속은 비고 겉만 꽉 차 가지고, 지금 정치도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거기 있고, 속이 텅텅 빈 나라가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칭찬할 만합니다. 본받을 만하고요. 남의 거 거저 먹지 않겠다는 사상 말입니다. 그전에 어려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물건을 접시에다 담아 가면, 그 접시를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는 밥을 먹어도, 물론 불교의 발우공양에서 배워 간 공깃밥이지마는 그거를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이 적고요. 악랄하게 했다 할지라도 악랄하게 하면 했지 탓은 안 한다 이겁니다. 허허허….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어벙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돌아가지 말고 칼이 있으면 칼로 탁 잘라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세에 그 수박씨가 다시 나와도, 수박으로 다시 나와도 여전히 그 맛은 알 겁니다. 지금 한 생에 알아 놓으면 세세생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 놔야 요다음의 생에서도 또 뚜껑만 열면 그냥 모두 술술 나오죠. 그래야 세계가 평등해지고 모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모두 공부들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평등해지려고 합디다. 허허허….

사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여러분 정신을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길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직지直指'는 깨달음에 대한 선禪의 교과서
덕산스님의 안목으로 푼 선문답의 세계

돈오의 길 직지심경 (전 3권)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 전3권 42,000원
상권(216쪽 | 12,000원) 중권(344쪽 | 14,000원) 하권(540쪽 | 16,000원)

선(禪)수행의 지침서인 《직지심경》은 사람의 본래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임을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며 살라는 가르침이다. 덕산스님이 염불선(念佛禪)의 깨달음 체험을 바탕으로 선문답과 게송 등을 쉽게 설명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명분

불자 세상보기

'탓' 하기 전에 국민이 안전요원 되자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인기 댄스그룹의 거리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관람객들이 발밑의 환풍구가 붕괴되는 바람에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주말 오후 퇴근시간 무렵 잠간 짬을 내서 연예인들의 춤과 노래를 즐기려고 했던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어처구니없는 죽음과 뒤바뀌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고를 두고 우리는 다시 누구를 얼마나 더 원망해야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후진국 수준의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은 역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덕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득 거울 속의 나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얼마나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운전 중에도 통화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문자를 보내고 기사검색을 하는가 하면, 신호위반을 하고 정지선을 어긴 경우는 그야말로 부지기수가 아니었던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들은 적이 과연 있기나 했던가.

곱씹어볼수록 나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래 놓고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자나 공무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이나 해댔으니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당한 안전사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행운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머물기만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 자기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은 바로 "나한테는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너나 할 것 없이 무대가 잘 보이는 높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때마침 무대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기가 막힌 장소를 발견했다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곳으로 몰려갔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 환풍기 붕괴사고의 본질인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도 언젠가 이번과 똑같은 사고의 희생자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안전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요원의 지시는 있으나마나이다. 그들이 '이곳은 위험하니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던들 누가 거들떠보기나 했겠는가.

어느 베테랑 소방관은 안전 불감증에도 단계가 있는데, 우리사회의 경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초기단계가 아니라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해도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말기단계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100번 아무 일이 없다가도 101번째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안전사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많은 재해현장을 지켜본 소방관의 말인 만큼 가볍게 흘러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음번에는 그 불행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능력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관련 보도를 지켜보면서 남에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곧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임을 절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느 하나 공업(共業) 아닌 것이 없다. 외견상 우리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자연재해도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된 공업의 과보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원인이 너무나 분명한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들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공업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답은 '너'가 아니라 '나'였던 것이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전에 '내'가 바로 안전사고의 유발자이자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평론 열린논단

'세월호' 앞에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 시대 맞는 삶의 지침 주어야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한 10월 23일 열린논단에서 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단에 섰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종교계의 자성의 움직임을 강조한 오강남 명예교수의 목소리를 싣었다.



〈불교평론〉은 10월 23일 오강남 교수를 초청해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진행했다.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꽃다운 생명들이 사라져 갔다. 이런 애달픈 죽음 앞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주제는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자문하고 자답해야 할 질문이다.

세월호 사건을 보며 국가 최고 책임자는 '국가개조론'을 부르짖었다.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종교계, 특히 한국종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일을 계기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불의 부정을 통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종래의 무의미하게 되풀이하던 교리나 관행을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같은 참사를 두고 불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해답은 이를 업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된 대로의 업이란 사람들이 몸, 입, 생각으로 짓는 선악의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 지은 행위로 현재에 대응하는 응보를 받고 다시 현재의 행위로 미래에 상응하는 결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과거에 행한 일의 업보다.

그러나 인과응보 같은 업 사상이 과연 세월호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비극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것이 희생자의 가족이나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통속적인 태도를 종교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종교에 표층에만 머무는 종교적 발달장애를 치유하고, 심층 종교로 나가야 한다. 불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탐진치에 찌든 나를 비우고, 참된 나를 찾는 과정을 걸어야 한다. 기독교적 용어로 본다면 신성 내지는 내안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종교는 표층에 머무르는 종교에 불과하다. 나의 욕심을 보리거 나를 찾는 수단이 되는 심층 종교가 되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 종교만이 오로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누구도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갖지 못할 것입이다. 심층종교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절대적 진리는 어느 누구의 독점물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인 무리가 코끼리를 만진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앉아 서로 대화하면 진리의 세계에 가까워 질 수 있다.

한국종교 전체가 침몰하는 일이 없으려면 불교가 기독교와 손잡고 이시대에 걸맞는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이 것이 결국 종교의 영성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社說

종교편향·훼불, 근본 대책 필요

한국사회를 다종교사회라고 한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믿을 신앙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하지만 여러 종교가 함께 있다 보니 갈등이 벌어진다. 문제는 갈등의 수위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종교 갈등의 수위는 매우 높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신교의 '땅밟기' 기도다. 지난 7월에는 부처님 정각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땅밟기 기도를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수덕사에서 땅밟기 인증 사진을 남겨 덜미가 잡힌 목사도 있었다. 10월 19일에는 구미 도리사에서 지역 교회 목사와 신도가 경내지인 서대에서 예배를 보다 주지 묘장 스님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종교편향도 꾸준하다. 대구시립합창단은 지난해 지휘자 취임 이후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빚었고, 올해에도 지자체 연합 행사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해서 결국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또한 속초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종단의 대응 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종교편향 대응 기구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2013년 3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고, 현재까지 위원장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다.

종교편향과 훼불이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정작 종교평화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는 식의 '사후약방문' 대처만 이뤄지고 있다. 지속되는 훼불과 종교편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근본 예방책인 종교평화법과 증오범죄방지법 제정에도 불교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교평화위원회가 제 위치에 돌아와야 한다. 위원장 선임과 모니터링단 구성이 필요하다.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린다. 균열을 막을 수 있는 종교평화위원회가 다시 재가동되길 바란다.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지난 5월 말 조계종 문화부 A주임은 갑자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상시 진행되는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을 위해 인사동 한 경매업체 도록을 보던 중 도난품으로 보이는 성보문화재들이 대거 물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문화부 스님들과 직원들은 경매 현장을 급히 찾았다. 경매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물론 신고를 접수한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문화재청 직원들과 함께였다. 당시 도난품으로 확인된 4점이 압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0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추가 조사로 사상 최대인 48점의 불교문화재를 회수한 성과를 낸 데 이어, 그 과정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경찰, 문화재청이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와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조계종과 경찰청, 문화재청은 협약을 맺고 불교문화재 도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수사과정 협조 등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하는 도난문화재는 모두 796건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도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성보문화재인 경주 불국사 다보탑 작은 사자상은 3개가 사라지고 한 개만 남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석조문화재 작은 부수물이 여전히 문화재 절도범들의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든 꼭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문화재 절도의 공효시효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스런 유산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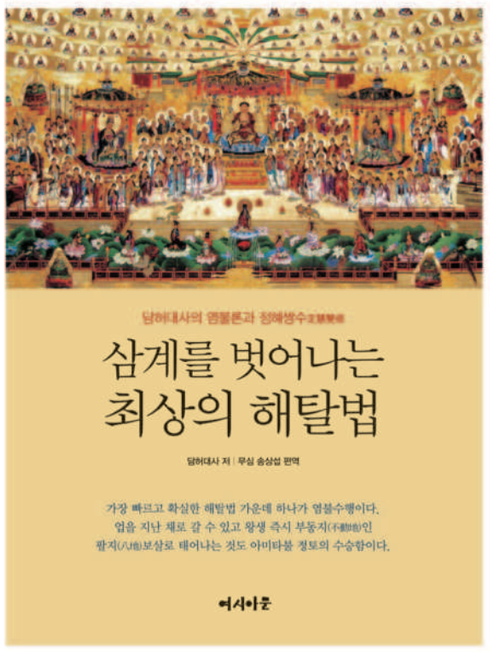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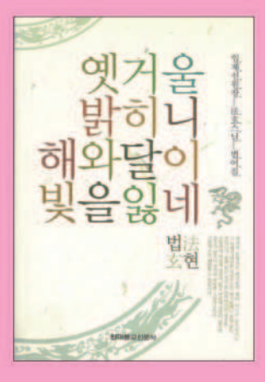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